

고성군지



제 9편 고성의 교육



제 9편 고성의 교육

제 1장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와 발전

제 1절 고대의 교육

교육은 지구상에 인류가 생활하게 된 그날부터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달하여 왔음을 누구나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삼국시대 이전의 교육이 어떠한 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이루어진 사실은 기록이 없어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조직적인 교육은 아닐지라도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농사, 수렵, 도구제작 등을 생활하는 동안에 배웠을 것이며, 맹수나 외부족의 침해를 막기 위한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자연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대자연의 위력을 숭상하여 신앙적 생활 속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 고대신앙이 일상생활에 흡입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이 고대사회 교육의 주종을 이루었으리라 생각된다.

고대의 교육에 있어서의 특징은 첫째, 무의도적인 교육이 행하여졌고, 둘째, 생활과 교육이 하나인 생활교육이었으며, 셋째, 경험과 모방에 의한 교육이었다.

문자가 없었던 원시사회는 교육도 원시적이어서 조직적인 교육은 없었다. 고조선 이전의 사회교육을 살펴보면, 생활환경에서 연장자의 생활 활동을 모방하여 배웠다. 교육내용은 생활을 근거로 한 지식, 기술, 종교적 행사, 전투훈련 등이었다.

고조선 사회의 교육은 도덕과 예의를 중시하여 미풍양속을 강조하였으며 농경지식, 가정 기공 및 전투훈련을 배우는데 힘썼다. 교육 형태로는 종교적 관념에 의한 의식교육, 신체 단련을 위한 의식교육, 경험에 입각한 예시교육, 농경을 위한 기술교육, 경천사상과 정서 교육을 강조하였다. 한마디로 자기 보존적 필요와 생활 적응적 필요에 입각한 교육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조선의 교육현황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기록 중에는 홍익인간과 8조 법금이 대표적이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실로 인간의 행복을 위하고 인간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인류 역사의 숭고한 이상으로서 우리나라 현행 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교육이념인 것이다. 8조 법금은 만민법의 성질을 띤 일종의 민중교회법으로 도덕교육인 동시에 사회교화를 위한 현실적 교육실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대사회의 공통된 관념으로 나타나 있는 경천사상은 부족국가의 공동의식으로 행해진 제천행사와 그에 따른 가무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교육적 실천이 다분히 주술

적 신앙과 관계가 깊었는데, 국가의 증대사나 민간행사에서도 반드시 제시받아 그에 의해 행사를 진행했다. 소의 발급, 별 등을 통해 길흉여부를 점치거나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고대인들의 가치판단의 윤리 관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2절 삼국시대의 교육

1) 고구려의 교육

우리 민족이 고대 국가로서 가장 먼저 발전한 것은 고구려다. 삼국 중 고구려는 중국에 가장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조건과 언제나 중국과 밀접한 문화적 관계를 갖게 되었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삼국 중 제일 먼저 학교 교육이 나타났다. 이런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구려는 한자, 한문과 유학을 장려하고 숭상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는 국초부터 문자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문자를 사용하고 그것을 편찬한 책명을 『유기』라 한 것을 보면 일찍부터 한학을 수용한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소수림왕 2년(372)에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하였다고 하니 이 일련의 역사적인 사실은 고구려의 한자, 한문의 교육이 국가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학교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에 고구려 「소수림왕 2년 하(夏)유월...입(立)태학 교육자제」라고 하였으니 고구려에서의 관학의 설립은 서기 372년에 기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삼국사기에 고구려가 태학을 설치하여 자제를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태학의 이념과 학제 그리고 교육내용 등에 관해서는 명백히 밝힌 바가 없다. 학교의 설립은 한자, 한문의 교습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니 다만 당시 중국의 교육내용을 미루어 보아 오경(시전, 서전, 주역, 예기, 춘추)과 삼사(사기, 한서, 후한서)가 중요한 교육과정이었으리라 짐작되며 또 중국이 태학에서 가르쳤던 다른 서적 즉 역서, 의학, 산학, 악서, 병서 등도 대상이었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고구려는 후기에 들어와서 관학인 태학 외에도 초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의 성격을 띤 평민층의 자제들을 위하여 설립한 사학 교육기관인 경당을 산간벽촌에 이르기까지 설립하였다. 태학이 관학인데 비하여 우리나라 사학의 시초라고 여겨지는 경당에 관한 기록 역시 지극히 간단한 것으로 구당서와 신당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즉 「서적을 사랑하는 풍속이 있다. 가난해서 천한 일에 종사하는 집에서까지 각기 네거리에 큰 집을 지어 이를 경당이라고 부른다. 자제가 결혼 전에 주야로 여기서 독서하고 활쏘기를 익힌다. 책은 오경과 사기, 한서, 범엽(范曄)의 후한서, 삼국지, 손성의 진춘추, 그리고 옥

편·자통·자림이나 또 문선이 있어 더욱 중히 여긴다.」

또 「사람들이 학문을 좋아해서 가난하여 천한 일에 종사하는 집에서까지 서로 절약해 길가에 모두 엄옥을 지어 이를 경당이라고 부른다.」라는 기록들은 우리나라 상고시대의 교육을 밝힌 귀중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생활의 필요성 때문에 각기 가정에서 조금씩 행하던 원시시대의 교육이 점차 살림살이가 복잡해짐에 따라 씨족으로 옮겨지고 또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 드디어 부족으로 옮겨간 것이 이 시대에 와서 사학으로 발전하여 일반대중에게까지 널리 미치게 되었다는 것, 둘째, 당시 교육은 소년기로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다는 것, 셋째, 교육은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문무교육을 아울러 행하였다는 것, 넷째, 교육의 범위가 넓고 큰 것과 교과목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미루어 문자 교육이 국민 상하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는 것, 다섯째, 우리나라 일반국민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당은 실로 이 경당에서 발원되었다는 것 등이다.

고구려의 경당은 신라의 화랑도와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인 동시에 군사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지닌 것이었다. 즉 주변 여러 부족과의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방촌락에까지 경당을 세워 문무의 업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하튼 경당의 교육내용 가운데 습사가 있었음은 고구려의 학교교육이 문무일치의 교육을 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고구려로 하여금 강대하게 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2) 백제의 교육

백제 역시 일찍부터 중국과의 교섭이 잦았으므로 직접 그 문화를 받아들여 자체의 문화발달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백제가 망할 때까지 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은 없으니, 일본 역사에 기록된 백제와의 문화교류로 보아 고도의 학술이 발달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고구려가 태학을 세운지 3년(375년)만에 박사 고흥을 얻어 『서기』를 만들도록 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기록이 없지만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이보다 앞서 백제인 왕인이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한 때가 서기 285년이니 박사 고흥을 얻기 90년 전의 일이었다. 이러한 점을 보아 백제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국의 교육사상이나 교육제도를 몰랐을 리가 없다. 다만 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을 뿐이다.

백제의 유교교육의 일본 전파를 보면 『일본서기』의 응신기에서부터 백제를 통한 대륙문화의 전래가 집중 열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기와 왕인의 공헌이 컸었다. 따라서 일본 고대의 교육은 백제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학자들의 한문학 서적의 전수는 일본으로 하여금 유교의 도덕이념을 가지게 하였고, 또 일본에 조직적인 교육

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이 되었다.

또 백제에는 일찍부터 고등교육으로서 박사(博士) 제도가 있어 모시박사, 의박사, 오경박사(역, 시, 서, 예, 춘추), 역박사와 기타 각 전문분야에 관한 박사가 일본에 초빙되어 갔다. 따라서 일본의 아스카시대의 교육은 백제교육의 연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백제에도 고구려의 태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있어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교육 또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는 건국 초부터 왕실의 일단이 국가건설의 중심이 되어 있었으므로 언제나 임금 자신이 기사(騎射)를 잘 하는 무인으로 전쟁 시에는 진두에 나서서 지휘하며, 또 고이왕 때 마련한 관제 가운데 11품이 문독(文督)이요 12품이 무독(武督)이었으니 이는 문과 무를 다스리던 벼슬로서 다 같이 학정장관이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문무교육을 아울러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고 충효가 핵심이 된 경학을 통한 자녀교육과 남녀가 유별하는 예속이 이루어져 경로사상이 사회를 정화시켰다고 한다. 이와 같이 충, 효와 예속이 잘 이루어진 것은 교육의 힘이 크게 공헌한 결과라 하겠다.

3) 신라의 교육

신라는 진한의 옛터에 조그마한 국가를 형성하였고 나라의 기틀이 잡히기 전부터 군사, 산업, 교통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한 채 북방에는 강대한 고구려와 인접하여 위협을 받았으며, 서쪽에는 부강한 백제와 맞대어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신라가 그들과 버티어 생존해 나가자면 정신적으로 강력히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의 의식을 가다듬음으로써 단결을 한층 굳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에서 독특한 교육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다.

신라의 교육은 통일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일 전에는 학교를 세워 교육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신라교육의 전통을 수립한 화랑도 교육이 있었다.

화랑은 원화, 국선, 선랑, 풍월도, 풍류도라는 많은 이름을 가졌는데 이것이 조직화, 형식화된 것은 신라 진흥왕 때부터이다. 화랑 집단의 조직은 그 총지휘자에 국선을 두었다. 그 다음에 덕망과 용의가 빼어난 청소년을 화랑으로 추대하고 그 밑에 낭도, 문도라는 이름으로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소년 단원이 결속하였다.

여기에 화랑이란 일종의 모범이요 사범이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그래서 많은 낭도들로 하여금 이 모범적인 청년인 화랑을 사범으로 하여 그를 수행하면서 아름답고 선량한 인격을 양성하려고 했다.

화랑도가 시작된 동기는 처음부터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제도 혹은 인재를 선발

하기 위한 고시제도로 출발했다. 따라서 화랑도의 교육목적은 첫째, 용감한 병사와 실천적인 인물양성이었다. 구체적으로 씩씩한 중견 청년을 조직하고 훈련하여 언제나 국토방위와 국위선양에 총동원하자는 것이었다. 또 국민의 상무적인 기풍을 진작하여 사기를 앙양하는 동시에 민족통일의 대업을 완성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인의 이득을 용인치 않고 조직과 규율을 통하여 언제나 대아에 희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하였던 것이다. 둘째, 화랑도는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였다. 화랑집회는 유취군유(類聚群遊)로써 그 사이에 도의를 서로 연마하고 생활의 규범을 배우게 하였다. 종교와 도덕의 바탕은 유교, 불교, 도교의 힘이 컸었다. 유교의 정신으로는 오상(부의, 모자, 형우, 제공, 자효), 혹은 인, 의, 예, 지, 신이 있고, 삼사(계, 정, 혜)와 육정(포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은 불교에서 온 사상이다. 그리고 화랑도의 정신을 현묘지도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도교의 요체가 포함되어 있다. 현묘라는 말은 노자 도덕경 제1장의 ‘현지우현(玄之又玄), 중묘지문(衆妙之門)’ 이라고 한 것을 연상시키는 도교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화랑도를 현묘지도라고 부른 것은 그것이 도교적인 의의가 짙음을 시사한다.

화랑도에 유교, 불교, 도교의 교리가 가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화랑은 이 교리를 실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재래의 공동사회의 이념(신라인의 고유한 원시종교), 즉 무교(巫敎) 위에 새로운 유불정신을 가미하여 새 시대가 요청하는 청년을 양성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는 신라 화랑의 지도이념을 대표하고 있다. 이 세속오계는 화랑들의 구체적인 덕목을 가장 잘 정리해 준 것으로 사군이충에서는 충을, 사친이효에서는 효를, 교우이신에서는 신을, 임전무퇴에서는 용을, 살생유택에서는 인을 가르친 것으로서 당시 신라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의였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은 물론이요 침략자에 대한 항쟁에 있어서나 동서고금의 어느 민족을 위해서도 보편타당성이 있는 근본적인 생활덕목의 집약이라 할 수 있다.

화랑도의 교육과정은 지적인 면보다 활동적인 것을 가르쳤다. 주로 도덕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군사적 훈련을 교육의 면에서 강조하였다. 이를테면 첫째로 무술, 둘째로 이성도야, 셋째로 정서도야, 넷째로 심신단련과 직관도야였다.

신라 말에 이르러 화랑이란 말은 쓰이지 않고 대신 선랑, 국선 등으로만 불렸다. 고려에서도 화랑이란 말은 쓰지 않고 선랑은 팔관회의 무동을, 국선은 충렬왕 이후 양반의 군역을 지칭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선랑, 국선이란 말은 쓰지 않게 되고 화랑이란 말은 초기에 남무(男巫)를 가리키게 되어 이를 ‘화랑이’ 라고 하였으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무부(巫夫), 걸립승의 무동(舞童), 사당의 거사(居士) 등을 지칭하게 되었다.

화랑도는 그 창설로부터 삼국통일이 완성된 문무왕에 이르는 약 1세기 동안 융성하여 어려운 시기에는 강한 무사도정신으로 나타나 국난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통일 후 나라에 태평시대가 계속되면서 점차 쇠퇴하였다. 그러나 그 정신은 소멸되지 않고 고려와 조선에 이어 내려오면서 국난을 맞을 때는 의병 등의 의기로 치솟아 오늘날에도 그 정신은 도로서 재흥(再興)을 염원하는 소리가 높다.

신라는 삼국통일 이전까지 화랑도 교육이 교육의 전부였고 멋이었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유교의 정치이념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고유의 화랑도 교육이 쇠퇴하게 되고 대신에 유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즉 신문왕 2년(682)에 이르러 당의 국자감을 모방한 국학을 세우고 예부에 속하게 했다.

국학의 교육목적은 유교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유학의 전당으로서의 기능과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국가관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능으로 볼 수 있다. 교육내용 역시 유교의 경전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논어와 효경을 필수과목으로 하였고 그 밖의 것은 각과에 따르는 선택과목이었다. 논어와 효경을 필수과목으로 과한 것은 신라의 국학이 수신, 즉 수기에 치중하였음을 보여주며 유교의 지도 원리인 충, 효 등을 신라의 지도이념과 일치시켜 보려고 한 데서 온 것이다. 그러다가 국학이 완비되어 학문이 성하여짐에 따라 점차 유교교육 자체가 관료화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체제 면에서 보면 책임자인 경과 그 밑에 박사와 조교가 있어 학생들을 교수하고 사무관리를 두어 관리하였다. 학생의 입학 신분은 귀족의 자제였고 연령은 15~30세까지였으나 수학년한이 9년이었다. 국학에는 성덕왕 16년(717) 당으로부터 문선왕·십철·72제자의 화상을 가져다 봉안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유교 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완비하였다.

그 후 국학은 경덕왕이 태학감으로 바꾸면서 그 기구가 정비, 확충되었고 혜공왕이 다시 국학으로 고쳤다. 고려시대에는 충렬왕 1년(1275) 국자감을 국학으로 고쳤다가 후에 1298년에 성균감으로, 충선왕 즉위(1308)에 성균관으로 고치고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국자감으로 고쳤다가 1362년에 성균관으로 고쳐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

통일 초기에는 국학이 그 교육적 기능을 다할 수 있었으나 중엽에 와서는 독서삼품과라고 불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되었다. 독서삼품과는 과거제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독서출신과라고도 하며 원성왕 4년(788) 유교 정치사상에 입각한 정치운영을 목적으로 국학 내에 설치하였다. 학생들의 독서능력에 따라 성적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로 선발하는 데 참조하였다. 하품은 곡례·논어, 중품은 곡례·논어·효경을 읽을 줄 아는 자, 상품은 춘추좌씨전·예기·문선을 읽어 그 뜻에 능통하고 아울러 논어·효경에도 밝은 자가 되었다. 특히 오경, 삼사(사기·한서·후한서), 제자백가에 모두 능통한 자는 관리로 특별 채용하였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들어와 진골의 수가 늘어나고 진골 귀족간의 왕위 쟁탈과 세력 갈등이 격화되면서 골품제가 폐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자 관계 진출도 학문적 능력보다는 출신 신분이 중요시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한 당나라로 유학을 가거나 그곳에서 관리로 활동하다 귀국하여 신라의 관리로 임용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그 예로 789년 자옥이라는 사람을 양근현 소수(지방관직)로 임명하려 할 때 그가 문적 출신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나라 유학 경력이 인정되어 관리로 채용되었고, 애장왕 1년(802)에는 당나라에 유학하였던 양열이 두힐현의 소수로 임명되었으며, 최치원도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로 있다가 귀국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이처럼 하대로 갈수록 도당(渡唐) 유학생 출신이 관직 진출의 주류를 이룸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학의 중요성은 점점 약해졌고, 독서삼품과의 비중도 감소되었다. 그러나 독서삼품과의 시행은 관리임용의 기준을 학문적 능력에 뒀으로써 골품제리는 신분에 의존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관리 선발방식을 지양하게 되었으며, 유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유능한 유학자를 많이 배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보면 신라의 인재 등용법은 삼국통일 이전까지는 화랑도 교육으로 인물본위의 교육제도를 채택했으나 통일 이후에는 국학의 교육이념이 연구, 보급됨에 따라 일종의 학벌본위, 시험본위의 교육제도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제 3절 고려시대의 교육

고려 건국 초기의 학교교육은 전적으로 신라의 것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독창적인 학교제도를 확립하지 못하였으며 태조 때부터 교육기관으로 개경학·서경학을 두었으나 학교기관의 정비는 성종 대에 이르러서야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한 정치기구 정비에 따라 관료 양성기관이 필요하여 고려 왕조로서의 학교제도를 갖게 되었다. 교육기관은 관학과 사학의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관학은 중앙에 국자감, 동서학당, 오부학당, 지방에 향교, 향약 그리고 사학으로는 십이도와 서당이 그 주종이 이루었다. 이 시대의 교육을 대별하면 학교기관과 과거제도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교육철학의 기반은 모두 공자, 맹자의 유학을 교수하는 유교사상이었다.

1) 관학

(1) 국자감

고려시대 최고학부는 국자감이다. 성종은 정치적 지도이념을 유교주의에 두고 문치주의

에 입각하여 유교적 교양에 투철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성종 11년(992) 12월에 태조 이후 교육기관이던 경학을 국자감으로 개칭하여 설치하였다. 그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는 명기된 것이 없다. 고려사에 의하면 ‘이 때 왕은 유사(有司)에게 승지(勝地)를 얻게 하여 학사와 서재를 넓게 만들고 전장(田庄)을 급여하여 학자를 충실히 함으로써 국자감이 창설되었다.’ 고 하고 있다.

국자감의 교육목적은 관리양성을 목적하면서 동시에 유교적인 학문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이 있었다.

예종 4년(1109)에는 과거 합격자를 십이도에 많이 빼앗기자 과거 응시자를 위하여 국자감에 여택재(역), 대빙재(서), 경덕재(시), 구인재(주례), 복응재(대례), 양정재(춘추), 강예재(무학) 등 칠재를 두어 전공별 강의를 하여 문무교육을 장려했고, 예종 14년에는 육영재단인 양현고를 두어 유학생 60명과 무학생 17명을 길렀다. 그리고 명유를 뽑아 학관박사를 삼고 경의를 강론하여 교도하니 날로 유교의학풍이 높았다.

그러다가 인종 때 비로소 국자감의 학제가 완비되었다. 그 내용은 국자감에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학, 서학, 산학 등의 육학이 있고, 입학자격은 각 학에 따라 달랐다. 그리고 국자감의 교육내용은 주역, 상서, 주례, 예기, 모시, 춘추좌씨전, 곡량전을 각각 일경으로 하고 논어, 효경은 필수과목으로, 율학에는 율령, 서학에는 팔서, 산학에는 산수를 각각 학습하게 하였다. 수업연한은 신라의 국학과 같이 경사를 공부하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은 국자감시에 응시하는 데 필요한 6년과 국자감시에 합격한 후 3년이 지나야 최종 시험인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어 9년이 소요되었다.

그 후 국자감은 충렬왕 원년(1275)에 국학이라 개칭하였다가 충렬왕 34년에는 그 명칭이 성균관으로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성균관을 중심으로 송대의 신유학 곧 정주 성리학이 성하여 문치의 기운이 일어났다. 그 전래자는 안향과 백이정이었다. 이색은 공민왕 원년(1352)에 신유학을 진흥시키는 방법으로 성균관생이 아니면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말라고 했으며 척불양유의 한 방법으로 성균관을 충실히 하고 여기에서 유학진흥책으로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다.

(2) 향교

향교는 지방에 설립된 과학 교육기관으로 지방관리의 자제와 서민의 자제를 양성하는 중등교육의 수준이며 그 이름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국자감과 같이 문묘를 갖추어 선현을 추모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교육을 하였다. 여기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선발되어 국자감에 입학할 수도 있었다.

그 설립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성종 3년(986)에 12목에 경학박사, 의학박사 각 1명씩을 보내어 국자감에서 공부하다가 귀향한 자 및 지방유지의 자제들을 가르치게 하였다는 기록과 성종 11년(992)에 「승지를 얻어 서제를 광영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향교는 성종 대를 거쳐 인종 대에 지방 군, 현에 하나씩 설치하여 지방의 선비를 교육하였던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향교는 공자에게 제사 드리는 문묘를 두었고, 이를 중심으로 학문을 강론하는 명륜당이 있었는데 이 점은 조선의 향교와 큰 차이가 없다.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향교는 크게 번성하지 못했다.

향교는 유교의 사당인 동시에 교육기관이다. 향교는 그 교육기능으로 지방민의 교화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3) 동서학당과 오부학당

고려시대 학당들은 고려 후기 국도인 개경에 세운 학교로 향교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하였으며, 국자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도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었다. 향교와 다른 점은 문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학당은 조선시대 사학으로 계승되었다.

동서학당은 원종 2년(1261) 3월에 설립된 것으로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설치된 것으로 별감을 보내어 가르치게 하였다고 하며, 오부학당은 공양왕 때 당시 주자학의 태두였던 정몽주가 성균관 대사성을 겸하고 있을 때 개경의 중앙과 동, 서, 남, 북에 세운 학교였다. 이 학당은 서울에 있는 학도들을 수용하여 지방의 향교에서 행한 교육을 가르쳤음이 분명하다. 이 학당들은 대체로 향학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향학이 지방에 세워진 반면 학당들은 개경에 세워졌고, 향학에는 문묘가 있었는데 반하여 문묘가 없었다는 점이 다르다.

2) 사학

(1) 십이도 교육

십이도는 고려시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사에 기록된 가장 훌륭한 사립학교이다. 이는 문종 이후 개경에 있던 십이 사학의 생도를 초청한 것으로 이 사학의 중심인물은 최충이다. 최충은 문종 7년에 72세의 고령으로 관에서 물러나 자기 집 사당에 글방을 차리고 이웃 학동들을 불러 모아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한 결과 도처에서 학도들이 모여들었다. 이에 최충은 사재를 털어 구재(아홉 채의 학사)를 짓고 수없이 모여든 학도를 학반으로 나누어 정성을 다하여 가르치니 조정의 공신들도 이를 찬양했고 이어서 관직에서 물러난 학자들도 11개의 사숙을 설립하게 되었으니 곧 12공도라고 했다. 이와 같은 12도 교육은 9경과

3사가 주된 학과였고 그밖에 시를 짓게 하였다. 매년 여름이면 승방을 빌려 하과(夏課)를 닦게 하였으며 때로는 유람을 시켜 흥취를 돋우는 데 힘썼다.

고려시대 십이도가 성황한 이유는 국가감의 교육이 쇠퇴하고 교수 중에 무성의, 실력 없는 자가 많았음에 비해 십이도의 교수는 비록 관직을 떠나 있었으나 학식과 교양이 월등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십이도는 고려시대 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학풍과 학벌을 형성하면서 민간교육에 지대한 공적을 남기게 된 것이다.

(2) 서당

고려의 서당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이 서당은 최초의 본격적인 초등교육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고구려 시대에 경당이 부분적으로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했으나 중등교육기관이 그 중심적인 성격이었고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은 매우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역사에서 본격적인 초등교육이 시작된 것은 고려시대의 이 서당이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고려시대의 서당에 관한 국내의 자료가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고려 서당의 기록은 인종 2년(1124)에 송나라의 사신 수행자인 서공이 지은 「고려도경」이라는 책에 기초해서 당시 서당의 모습을 짐작할 도리밖에 없다. 「고려도경」 1장에는 ‘마을 입구와 거리에 경관과 서사가 두 셋씩 서로 마주보며 서있고 민간인 자제의 미혼자가 무리를 지어 스승에게 경서를 배우며 좀 성장하면 끼리끼리 벼를 택하여 사관으로 가서 강습하고 아래로 미천한 아이도 역시 마을 선생에게 배운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서공의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에 이미 상당히 많은 서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서당교육은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조선의 서당은 아마 고려의 서당과 목적, 내용, 방법, 수준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려의 서당에 대해서는 조선의 서당을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다.

지방의 서민층 자제를 교육하는 민간 경영의 교육기관으로는 초등교육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조선의 서당에 이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교사를 훈장이라 하였으며, 개인의 재능에 따라 천자문, 통감에서부터 사서삼경에 이르기까지 배울 수 있었고, 여기에서 뽑힌 사람은 향학에 진학하였다.

이와 같은 서당은 지방민들이 자제교육을 위해서 자치적으로 설립한 학교로서 대중교육에 준 영향력이 실로 지대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 육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명기된 사료가 없어 당시 서당교육의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없음이 아

쉽다 하겠다.

3) 과거제도와 교육

과거는 인재를 뽑는 한 방법이었으나 유교국가에 있어서 교육과 과거제도는 별도의 것으로 볼 수 없는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행해진 것은 신라 원성왕 때 독서삼품출신과를 들 수 있겠으나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은 고려 광종 때부터이다. 동국통감에 ‘광종 9년(958)에 후주인 쌓기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과거법을 시행하였다.’ 고 하였고 또 ‘이로부터 사람을 뽑는데 이 법을 썼고 해마다 인재를 뽑되 그 수는 정하지 아니하였다.’ 고 한 것이 곧 그것이다.

처음에는 제술과(진사과), 명경과(생원과), 의과(잡과로 확대됨), 복과를 두었으며 덕종 때는 국가감시가 실시되었고, 인종 때에 대략적인 정비를 보았다. 제술과는 시, 부, 송, 책 등의 사항으로, 명경과는 유교의 경전으로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잡과는 법률, 의학, 천문, 지리 등의 기술과목으로 시험을 보았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다 같이 문신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으나 일반적으로 경학보다는 문예가 더 숭상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술과가 더욱 중요시되었다. 기술관 등용을 위한 잡과는 그 격이 가장 낮았다. 성종 때에는 과거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복시제가 시행되었으며, 무신의 등용시험인 무과시는 공양왕 2년(1390)에 비로소 설치되었다. 승과는 승려 등용시험으로 교종시와 선종시로 구별하였다. 응시자격은 신분적 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천민을 제외한 모든 일반서민에게도 자격을 주었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관리의 등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음서 등의 제도 때문에 그리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과거제도는 교육의 본연의 목적인 인격완성의 필연에 앞서 개인의 영달과 입신양명이 궁극의 목적이 되어 학교교육을 규제하게 되었고, 마침내 과거의 급제를 위한 수단으로 학교교육이 행하여짐으로써 과거의 고시과목과 학교의 교육내용은 동일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교육의 순수성을 잃게 되었다.

과거를 위한 교육은 과거 준비에 몰두한 나머지 중국 고전인 경사, 시문, 제술 등이 중핵이 되어 시대변천과 관계없이 고려조부터 조선조까지 교육내용이 변함없이 계승된 것이다. 이러한 영향이 인재등용 자체에도 문제점이 많은 동시에 학교교육의 독자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유교교육이 발전됨에 따라 모회사상과 상고주의(尙古主義) 사상이 커지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예의범절 등이 유교사상에 의해서 고정화되고 다양한 학문과 사상이 발전을 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제 4절 조선시대의 교육

조선의 교육제도는 고려의 교육체계를 그대로 계승하여 고려시대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관학으로 중앙에 있는 성균관과 지방에 있는 향교, 그리고 사학으로 서원, 서당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었으며 국가적으로 유기적인 학교체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의 교육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유교주의를 교육이념으로 일관하였다.

1) 관학

(1) 성균관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감, 성균감, 성균관의 명칭을 조선왕조가 계승했으며 태조 6년(1397)에 현재의 자리인 숭교방(현 성균관대학교)에 건물을 짓고 이듬해 문을 열었다. 강의하는 명륜당과 유교 선현을 모신 문묘, 유생들이 거처하는 재를 두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지사(정2품) 1명 이하, 학론(종9품)까지 37명의 교직원이 배정되었다. 유학 생도의 정원 및 취학 자격은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의 양반자제로 생원, 진사에 이른 사람으로 정하고, 즉 한성시나 향시에 합격한 자를 우선으로 하고 정원의 200명에 지원자가 부족할 때는 사학의 생도나 국가유공자의 직계손인 유음적자(有蔭嫡子)로서 능력을 보아 보충하고 조사(관리)로서 취학을 희망하는 자는 허락했다. 정원은 조선 초기에 150명으로 정했다가 세종 11년(1429)에는 200명으로 늘렸으나 영조 때는 120명, 조선 말기에는 100명으로 줄었다.

성균관은 또한 양현고(養賢庫)라는 부설기관을 두고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유생들의 일용 물품의 공급과 숙식의 뒷바라지를 책임졌다. 따라서 성균관에는 국가가 정식으로 지급한 토지 외에도 많은 보조를 받음으로써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왕이 친히 문묘에 제사지내며 행학도 찾아서 유교이념에 입각한 학술의 연마와 지도적 인재를 배출하는 총본산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조선의 역대 임금들은 성균관으로 가서 직접 유생들에게 경서의 뜻을 묻는 친문을 하면서 유생들을 격려했으니 유생들도 긍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였다.

성종 때에는 향관청(享官廳)과 존경각(尊經閣)도 완성되었으며 조선왕조 5백년간 몇 차례 기복은 있었지만 최고학부로서의 위치에는 변함이 없었다.

성균관의 교육내용은 강독(講讀), 제술(製述), 습자(習字)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강독은 사서(四書: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오경(五經: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과 역

사서가 기본이었고, 불교 서적이거나 유가 이외에 다른 제자백가의 저술은 금지시켰다. 제술은 시(詩)·부(賦)·표(表)·책(策)·의(疑)·의(義)·송(頌)·명(銘)·잠(箴)·기(記)의 다양한 형식의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며, 습자는 해서(楷書), 행서(行書), 초서(草書) 등이었다.

성균관의 학칙은 학령(學令)을 비롯하여 권학사목(勸學事目), 구재학규(九齋學規), 진학절목(進學節目)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학령에는 성균관에서 행하여진 아침 행사, 매월 행사를 비롯해서 독서, 제술, 강경성적, 벌칙, 자치제 등에 관해서 싣고 있다.

성균관 유생들은 그들대로의 자치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어서 이를테면 국가정책에 실정이 있거나 명문 풍교에 해가 될 만한 일이 있다고 보았을 때는 유소(儒疏)로써 탄핵도 하였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단식(권당), 수업거부(공제), 집으로 가는(공관) 집단행동을 하기도 했다.

성균관은 대체로 인재양성의 기능과 함께 선성(先聖)과 선현에 대한 봉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 있어서는 성균관이 주자학을 연구 보급하는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기능과 주자학 이념에 입각하여 관리를 양성하는 관리 양성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지배사상과 관료체제를 재편성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사학(四學)

사학은 서울의 네 곳, 즉 북(중학), 동(동학), 서(서학), 남(남학)에 설치하였는데 고려의 학당을 계승하여 한양에 세운 중등교육기관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 개경의 오부학당을 본 따 한양과 오부에 학당을 두려고 했지만 북부를 제외하고 학당을 세워 이를 동부유학, 서부유학, 남부유학, 중부유학이라 불렀는데 세종 12년(1430)에 동학, 서학, 남학, 중학이라 바꿔 부르면서 통칭하여 사학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학당들은 문묘를 갖추지 않고 강당과 동서 양재만 있었으며, 교관은 처음에 성균관의 박사가 겸임했는데 세종 9년(1463)에는 각 학당마다 종6품의 교수 2인과 정9품의 훈도 2인을 전임으로 두었다.

그러나 교관들이 학당에 근무하길 꺼려하니 성종 8년(1477)에는 30개월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구임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학당에는 양반자제 100명씩을 뽑아 20명씩 조를 만들어 공부를 시키고 매달 6일에는 각 학당에서 20명씩 60명을 선발하여 3품 이하의 문신 3인이 강독과 제술 시험을 보아 우수한 학생 10명씩에만 생원과 진사의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 사학은 민간의 사학(私學)인 서원이 발달하면서 학생이 줄기 시작하여 조선 중기 이후에 점차 폐쇄되고 말았다.

(3) 향교

향교는 조선시대에 지방재정에 의해 설치, 운영된 중등 정도의 교육기관이라고 하겠다. 태조 원년(1392)에 각 도의 접찰사(후일 관찰사)에 명하여 그 지방 학교의 흥폐(興廢)로써 지방관 근무성적의 기준으로 삼고 크게 교학의 쇠신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지방행정 단위였던 부, 목, 군, 현에 향교 1교씩 두고 경국대전에서는 학생 정원과 교수, 훈도직을 정규 관원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향교의 학생(생도) 정원과 자격 기준을 경국대전의 예전 생도조에 부, 대도호부, 목 단위에는 90명을 정원으로 간주하고 16세 이하인 자는 정원 외로 보았다. 이하 도호부 70명, 군 50명, 현 30명으로 규정했다. 후일에는 거의 폐지되었으나 초기 향교에는 교수(종6품), 훈도(종9품)가 배정되었다. 지역별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당시 경상도로 묶어서 교수 12명, 훈도55명(부산포, 제포의 왜학훈도 2명 포함)이 배정되었는데 후일에 가서는 왜학훈도를 제외하고는 교수 훈도직이 자연 소멸되다시피 하였다.

향교 설립의 목적은 성현에 대한 향사와 유생에게 유학을 교수하는 교학기능과 함께 지방의 문화향상과 사풍진작 등 사회교화적인 기능도 지니고 있었다.

향교의 구조는 성균관을 모방해서 축소한 형태이다. 동서 양제는 명륜당의 전면에 위치하고 동재는 양반자제를 수용하여 내사생(內舍生)이라고 불렀으며 서재는 서류(庶流) 출신 자제들을 수용하였다. 때로는 내사생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로 외사 즉 증광생(增廣生)을 두기도 하였다.

국가는 향교의 재원을 위하여 일정한 학전을 지급해서 기본재원을 삼게 했으며 후일에는 상당 수준의 자체 재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조선왕조 초기의 향교 진흥책에도 불구하고 향교는 후일에는 사(제사)의 기능은 강화되어 간 대신 제(교학)의 기능은 도리어 약화되어 갔다. 그 요인을 몇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째, 교수·훈도 등의 정규 직종의 소멸은 재정적인 여건에서 초래되었던 근무자의 기피에서 왔던 관학 불신을 가져왔다. 둘째, 양반·상민의 자제가 동시에 학습해야 하는 향교 제도에서는 양반 쪽의 기피 현상이 있었다. 셋째, 향교의 교학기능의 약화나 불신은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으로 하여금 그들의 농장을 토대로 서원을 만들어 착실한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가문의 후손들을 가르치고자 하였을 것이다.

향교는 제도상 성균관과 비슷하나 초기 교수, 훈도 혹은 학장(현지 임명)으로 되어 그 크기나 학생수 임명자의 품계도 달랐다.

그 밖의 향교에 관한 규정을 경국대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관직으로서 훈도는 재직기간 9백일이면 이동한다. 교수는 목사 이상을 두고 고을에서는 문관 중에서 선발하고

도호부에서는 생원, 진사 중에서 선택 임명한다. 함경도(영안도) 흥원 이북과 평안도 박천 서쪽의 교관(교수) 임명에는 한 품계 높여 임용한다. 수령이 교관으로 발령을 받은 자가 고의로 부임치 않으면 그가 수령이나 교관으로 이동해야 할 재직기간만큼 임용을 하지 않으며 재임용 때에도 지방 관원으로 임용한다.

향교는 주로 조선시대 지방의 유풍을 진작시키고 아울러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전국의 크고 작은 고을에 설치했던 지방교육기관으로 관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향교 설립은 고려 중기로 올라가며 고려시대 향교제도는 중국의 향교제도를 도입하였다. 조선시대의 향교는 유교의 기본정신을 배우고 익히며 점검하는 곳으로 이는 사회 교화의 이념이 다름 아닌 유교이념이었으며, 또한 유교정신, 유교윤리를 국가가 설립한 향교를 중심으로 실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왕들이 향교설립을 통해 그 기반을 견고히 하려 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중앙에서 지방 군, 현을 획일적으로 쉽게 통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향교는 지방에 설치한 제사 건축물인 문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고려시대나 조선 시대에 문묘가 없으면 향교의 개념에 들지 않았다. 즉 향교는 지방민을 교육하고 교화하는 학교 이전에 ‘문묘’라고 하는 제사영역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 의미가 있었다. 문묘는 전통적인 유학의 정신적 지주 역할로 그 존재가치가 큰 만큼 향교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격식을 갖춘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무와 서무가 함께 자리하여 형성된 구역이다.

조선 중기 이후의 향교는 과거의 준비장이 되었으나 계속된 병란과 흉년, 서원의 속출 등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다가 고종 31년(1894) 말에 과거제도의 폐지와 함께 한 고을에 한 개씩만을 남겨두고 다 헐어버렸다. 향교는 이름만 남아 문묘를 향사할 때를이어서 1900년에는 향교 재산관리 규정을 정하여 그 재산을 부윤, 군수 등이 관장토록 하였다. 1918년에 조사된 바로는 당시 향교의 총수는 335개, 소관 토지는 48만 평이었으며, 그 재산은 문묘의 유지와 사회교화 사업의 시설에 충당하였다. 현재는 향교에 따라 건물의 유지와 문묘의 향사를 위한 약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향교도 있다.

고성향교는 조선 초기 향교 설치령에 따라 지역의 중등교육 및 지방민의 교화를 위하여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전답과 노비 등을 지급받아 지역의 인재 양성과 문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선조 40년(1607년)에 중건되었으며, 고종 7년(1870)에 통영의 죽림으로 이건(移建)되었다가 고종 12년(1875) 다시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다고 고성향교지(固城鄉校誌, 2002)에 나타나 있다.

고성읍 교사리 270-1번지에 위치한 고성향교의 건물배치는 교육공간을 앞쪽에, 제례 공

간을 뒤쪽에 두는 향교 건물배치의 일반적 형태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일직선 배치 양식이다. 그러나 동서무가 대성전 양 측면에 너무 인접되어 있고, 동재는 명륜당의 동쪽 측면에 위치하고 서재는 절반정도가 명륜당의 서쪽 측면에 인접하여 전형적인 향교 배치 격식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명륜당은 일반적으로 일(一)자형인데 비해, 이곳 명륜당은 보기 드문 ‘ㄷ’ 자형의 평면구조이다.

1983년에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219호로 지정되었다.

2) 사학(私學)

(1) 서원

지방의 관학으로 향교가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교학기관으로서 본래적 사명이 약화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몇 차례의 사화 이후 지방에 은거하고 있던 유학자들에 의해 그들의 전답을 기꺼이 희사해 가면서 새로운 사학 교학기관의 창건과 유교적 이상실현의 온상으로서 서원이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서원의 기원은 중종 38년(1543)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의 안유(안향)를 추념하기 위하여 백운동서원(뒤에 사액을 받으면서 소수서원이 됨)을 세운 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각지에 많은 서원이 세워졌으며, 명종 5년(1550)에는 이황의 건의로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액자(편액)를 내리고 책, 노비, 전답 등을 주어 장려했다. 퇴계 역시 풍기군수로 부임하자 백운동서원의 발전을 위해 음양으로 힘을 다해 도왔다. 특히 백운동서원 원규(院規)는 후일 서원 원규의 전범이 되었으며 서원의 운영은 군내 유지들이 공동 관리토록 해서 원임(원장), 원이장(부원장) 각 1명씩 도내의 진신(관직자)과 유림으로 나누어 각각 강장(진신, 유림강장), 훈장, 제장, 집장, 도·부유사, 직월, 직일, 장의, 색장 등이 있고 또 현지인 본읍의 각 감당 원임들이 있었다. 원임은 서원별로 얼마간 차이가 있었으며 따로 학도, 생원, 진사 등 초급 고시 합격자에게 주자학(성리학)을 강의하고 판본 간행과 제향을 올리는 일 등 서원의 업무들을 두루 수행했다.

소수서원에 사액과 책, 노비, 토지가 내려진 것을 시초로 하여 때마침 부실해져 가는 향교에 대신하여 많은 서원이 일어났고, 특히 국가의 보조를 받는 서원도 불어났다. 명종 이전에 세운 것이 29개, 선조 때 124개, 숙종 때에는 각 도에 80~90개, 정조 때에는 650여 개나 되었는데 나중에는 서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봉당과 관련된 분쟁 조성이나 서원의 특권을 빙자하여 양민에 대한 토색질 등 부정적이며 역기능적인 폐단이 늘어났다. 이는 서원 자체가 나뉘었다기보다는 당시 사회가 지녔던 병폐적 사조에 서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었던 데서 유래된 폐단이었다. 그러한 폐해를 부른 요인들을 들어 보면, 향교의 생도

가 서원으로 옮겨가는 일이 많아 향교의 교육이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서원에 따라서는 훌륭한 사장(師長)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한담이나 나누는 비생산적 장소가 되었다. 또 군역이나 부역 등을 피하려는 자의 도피처가 되거나 백성 위에 군림하여 그들을 부려먹는 악덕배의 소굴이 된 것도 있었다. 서원 소유의 토지는 면세 혜택이나 특전들이 주어져 그 수확은 거의 유생들이 낭비하였고 차츰 서원의 토지 확대는 고려의 사원전이 국가경제를 위협했듯이 서원전의 팽창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 사색파쟁이 정권을 다룰 때마다 서원의 유생도 대립하여 이에 가세하여 정국의 불안을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대원군이 집권하여 당시 697개의 서원 가운데 47개소만 남기고 폐쇄하였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서원은 사학기관이었으나 정치적, 사회적인 연관이 불가피하여 교육과 함께 특정 선현을 향시하는 몫을 함께 하였음은 관학인 향교와 그 속성이 유사했다.

서원의 교육목적은 위에서 말한 제사 외에 윤리 도덕면의 교화에 중점을 두어 군자를 양성하는 데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현실적 목적인 과거 준비교육도 병행되었던 것이다. 특히 성현을 본받는 교육목표는 곧 경학과 사장이라는 교육내용으로 집약되었다. 그 중에서도 경학이 강조되었으니, 서원의 교과는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증용, 시경, 주역, 예기, 춘추, 가례, 심경, 근사록 등 성리학적 목적과 결부시켜서 구성되었으며 학생(원생)들은 그러한 교과를 근거로 하여 이기(理氣)와 심성(心性)을 공부하였다.

서원의 특색은 성균관과 향교가 문묘배향을 하는 곳이라면 서원은 대체로 한 사람의 명유, 공신을 흠모하면서 후진을 교육하는 곳으로 비교적 관이 간섭 없이 자율적인 면학의 장소였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현 존경과 후진 장학’이라는 설립 동기가 변질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서원에 따라서는 성균관에 못지않은 수준과 규율이 지켜진 곳이 있는가 하면 실제의 내용은 서당보다 못한 곳도 많았다고 한다.

경상남도 지역에 남겨졌던 서원은 대원군의 첩설서원(疊設書院: 서원이 있는데 또 만든 것) 철폐 정비 정책으로 함양 남계서원(문헌공 정여창), 진주 창열사(2차 진주성 싸움 순절자), 통영 충렬사(충무공 이순신), 거창 포충사(충강공 이술헌), 동래 충렬사(충렬공 송상현)만이 남게 되었다. 서원 철폐 단행 후 5개 서원 외에는 재, 사제, 초당, 정, 대, 단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근년에 복원된 곳도 있어 현재 서원, 사 등으로 이름을 전하고 있다.

고성군내에는 동 17개의 서원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현재는 갈천서원(대가면 갈천리), 도산서원(구만면 화림리), 도연서원(마암면 도전리), 수립서원(마암면 화산리), 위계서원(마암면 석마리) 등이 문화재자료로 지정 받아 보존 관리되고 있다.

(2) 서당

서당은 고구려의 민간자제 교육기관이었던 경당이 형태가 변천되어 내려왔을 것이다. 글방으로도 불리어진 서당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민간인의 자제들을 위하여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한 사설 교육기관이다.

서당교육의 목적은 향교나 서원에의 입학을 위한 준비 기관이었으나 실제로는 지방의 청소년에게 한문의 독해력을 기르고 유학에 대한 초보적 지식을 이해시키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서당을 설립하는 데는 인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누구나 뜻있는 사람이면 훈장 한 사람과 방 한 칸으로써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었다.

서당 운영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훈장 자영 서당으로 훈장 스스로가 자신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하여나 후진을 가르치려는 교육 취미로 세운 것이고 둘째, 유지독영 서당으로 마을에 살림이 넉넉한 이가 자기 집의 자제 및 친척의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훈장의 보수(급비)를 단독으로 부담하고 세운 것이다. 때로는 친척이 아니더라도 이웃집 자제에게도 무료로 수업하게 하였다. 셋째, 유지조합 서당으로 마을의 유지와 사람들이 합쳐 훈장을 초빙하고 교실을 마련하여 조합원의 자제에게만 교육시킨 서당이다. 물론 일체 경비는 이들이 분담했다. 넷째, 촌락조합 서당으로 마을 전체가 조합하여 훈장을 모시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친 동성 마을에 흔했던 서당이다. 서당의 유지비를 보면 마을 서당을 두는 곳에는 훈장의 급료를 지출할 만한 기본 자산이 있는 곳도 있었으나 대개는 기본 자산마저 없었다. 그리고 훈장 가족의 생활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여러 가지 물질로 제공했으며, 훈장이 객지에서 온 경우에는 그의 의복, 식사까지도 학부모가 매월 돌아가면서 담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서당 공부도 예나 지금이나 살림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부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없이 학비의 조달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당은 그곳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수준이나 마을의 민도, 경제력에 따라 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의 학식의 표준은 일정하지 않았다. 강독으로 경사, 백가에 통하는 실력자가 있었는가 하면, 주석과 언해를 참고해 가면서 겨우 경서의 글 뜻이나 전달하는 훈장도 있었다. 때로는 한문자의 활용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훈장도 많았기 때문에 제술(製述)로 표(表)·책(策)·기(記)·명(銘)을 짓고, 시(詩)와 율(律)을 이해하는 자는 드물었다. 겨우 사율(四律)을 빌려 읊기거나 십팔구시(十八句詩) 따위를 한두 마디 읊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처럼 서당도 그 수준은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지금과 같이 교육제도가 완비되지는 못하였을망정 그 때 공부를 하던 그 열정과 부지런한 것은 지금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행하였던 것이다. 공부하는 것도 철에 따라 다르게 하는데 가을부터 밤이 길고 낮이 짧은 때에는 대개 밤공부를 많이 하게 되므로 그 때에

는 사서삼경 등 어느 것이든지 한두 벌 썬 한 해 겨울에 암송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여 갑자기 어느 부분을 읽어라 하면 잠든 김에라도 막힘없이 잘 암송해야 한다. 겨울에는 이와 같이 사서나 삼경 중에서 어느 것이나 한 가지를 마치고 봄이 되면 시집을 읽고 낮에는 글짓기를 하는데 오언이나 칠언으로 짓는 연습을 한다.

서당의 교육내용은 강독, 제술, 습자의 세 가지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독은 처음에 천자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몽선습, 통감, 소학, 사서, 삼경, 사기, 당송문 및 당율로 올라갔다. 서당에 따라서는 춘추, 예기, 근사록을 읽힌 곳도 있었다. 둘째, 제술은 일반적으로 오언절구, 칠언절구, 사율, 십팔구시, 작문 등을 가르쳤다. 셋째, 습자는 처음에 천자문, 동몽선습, 등을 한자 한자씩 가르쳤다. 그 다음에는 글자를 붙여 소리 내어 읽는 것을 가르치고 일장의 대의를 가르친 다음 마지막에 학습자 스스로가 풀이하여 읽도록 했다. 특히 강독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범위를 정해 놓고 종일 숙독시켰으며 훈장과 학생은 그 읽은 수(독수)를 세었다. 숙독한 것은 다시 그 다음날 암송시켜 통과한 후에야 그 다음을 공부하게 했다. 만일 암송을 못하면 이를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시켰다. 이리하여 학생의 재질에 따라 우수한 자는 빨리 그 학업을 이루었고, 둔한 자는 늦게 도달하거나 낙오되었다.

서당 교육은 오늘날 학교 교실에서 행해지는 기계적인 학습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학습자의 개인차와 능력에 맞추어 주로 개별적인 지도방법에 의하여 교수와 지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서당에 입학했어도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내용과 진도가 달랐다. 서당 교육은 오늘날의 교육용어로 말한다면 무학년, 능력별 교육제도를 활용하면서도 개개인의 교도에 철저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된다.

서당이 비록 사설기관이라고는 해도 당시 민간인 자체의 문자교육과 국가의 문화, 유교적 교화에 끼치는 영향이 막중했던 점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 후원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장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효종 10년(1659)에 성균관 제주 송준길에게 명하여 서당학규를 제정하게 하니 이것이 이른바 향학지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의 향촌이 각각 서당을 세우고 훈장을 정하여 그 효과가 없지 않았다. 요즘에는 그 법이 버려졌으니 이제 마땅히 지난날의 사목(조문)을 준수하여 단단히 지키도록 타일러 고쳐 거행토록 하라. 훈장은 그 고을에서 고르도록 하되 대학장과의 예에 따르라. 수령은 때때로 친히 가서 그 학도들을 고강 시험하고 또한 감사와 교양관도 고강하고 또는 글짓기를 시켜라. 그래서 성적이 드러나는 자가 있으면 대전에 의하여 그 사장(훈장)에게는 조세를 감하고 학도에게는 상을 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드러나는 자는 보고(계문)해서 동몽교관으로 삼거나 다른 관직을 주어 권장하는 뜻을 보이라고 하였다.

비록 조선시대의 서당이 자생적인 기초교육 기관이었으나 국민 대중의 문자교육과 그 마을의 도덕적, 예교적인 고을 풍속을 이루고 순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교화로서의 향약을 비롯한 상홀 등 자체 교화의 습속 형성에 서당이 차지한 비중은 매우 컸다고 할 것이다.

특히 오늘에 와서 옛 서당의 훈장들이 행했던 사람과 사람 간에 몸소 학문과 진리를 전하거나 받고자 한 교육을 다시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스승이란 말이 도통(道統), 학문(學問), 인덕(人德), 은의(恩義) 등과 동의어가 되는 것도 여기에 있다. 교육은 본래 인격과 인격이 맞부딪치는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 함은 오늘이라고 해서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기에 결국은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가 아낌없는 성실과 굳건한 신념과 소신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것이 어떠한 교육방법보다 몇 배의 살아있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육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서당 한 가지만 해도 우리에게서 우리 나름의 교육체제와 내용을 지녀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성은 중국 이외의 문명권을 외면해 왔고, 교육내용 역시 유교의 기정(既定) 교과서만을 금과옥조로 삼아왔다는 점이다. 시대의 변천에 맞는 사상적 전통이나 과학, 기술교육이 부진하게 된 것도 서당 교육이 지녔던 국민 대중적인 교육적 열의를 발전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던 아쉬움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3) 성리학 사상

성리학은 존양(存養: 존심양성)과 궁리(窮理)를 목표로 삼았다. 존양이란 항상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천부의 본성을 잘 기른다는 뜻이고, 궁리란 도리를 궁구한다는 말로서 지식을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다.

성현을 배우기 위해서 존양과 궁리에 힘써 천인의 관계를 간파하고 인성의 본무를 발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교육의 방법은 성현의 하던 일을 본뜨는 데 있었으므로 그 교과서는 소학과 사서 및 삼경이었고 그 숭배의 대상은 공자, 맹자, 정자, 주자였고 수양강령은 궁리와 치지정심(致知正心), 성의(誠意), 중화(中和)와 성명(性命), 신독(慎獨)과 경정(更正)이었다. 그 실천요목은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 등이었다.

고려 말에 송학이 들어온 후로 성리학을 연구한 학자가 많았으나 그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진전을 보인 이는 퇴계 이황이 최초이니 향년 70세, 꾸준히 자력에 의하여 연구를 쌓아 정주학의 충실한 후계자가 되었다.

저서에 ‘유집’, ‘주서절요’ 등이 있는데 모두 성학을 밝힌 대저이며, 젊은 학자 기대승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8년간 6차에 걸친 사칠이기(四七理氣) 논쟁은 성리학 이론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다. 사는 사단(四端), 즉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의 마음을 말하며, 칠은 칠정(七情), 즉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欲)의 감정을 말한다. 퇴계는 사단은 이의 발이요 칠정은 기의 발이라 하였는데 기대승은 이발(理發), 기발(氣發)의 호발(互發)에 찬성하지 않고 칠정 중에 사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뒤에 퇴계의 설에 동의하였다.

율곡 이이도 퇴계와 같이 우주의 본체를 이기, 이원의 개념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간적으로 서로 이합함이 없고 시간적으로 선후가 없으며 당연의 법칙으로 우주의 체요, 기는 그 체를 구체화하는 활동 또는 형질이니 우주의 용(用)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기는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라 하였다. 그리고 율곡은 인심의 발에 그 원이 없고 또 이기가 호발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여 퇴계의 설에 찬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퇴계 학설을 믿고 연구하는 주리파와 율곡 학설을 계승하는 주기파의 2대 조류가 있었다.

4) 실학과 교육

18세기가 되면서 현실성이나 진전한 생활감각을 상실한 학문을 바로 잡자는 스스로의 자각에서 우리의 현실에 기반을 둔 실제적 사고를 세우기 위하여 실학파가 나타났다. 이들은 우리 민족이 허약하게 된 요인을 허위와 위선에 있음을 깨닫고 부유하고 강한 국가가 되려면 참됨과 실질에 있음을 주장했다. 실학파의 발생은 성리학이 몰고 온 반인간성에 대한 반발로써 당시 청의 고증학과 서학의 영향이 컸다. 그들은 역사의 변천과 사회적 실정을 바로 파악하고 민족의 각성과 자아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출발점으로 했다.

첫째, 실학에서 말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는 몰 민족의식 극복과 위기의식에서 뚜렷한 민족의 진로를 제시하는 데 노력했다. 둘째, 실학자들은 교육, 정치, 경제 등 제 분야에 걸쳐 과학정신과 실용학에 힘썼다. 즉 관념적, 추상적인 논쟁 대신에 실사, 실물의 학문과 쓸데없는 공리공론 대신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변적인 일로부터 이용후생에 이르는 실지학 부문을 장려했다.

따라서 실학의 학풍은 첫째, 이용후생의 길을 찾아서 경국제민의 재주에 힘쓸 것, 둘째, 우리의 역사, 지리, 물산, 풍토 등을 연구할 것, 셋째, 북학론의 주장인 청조를 통하여 들어오는 외국의 문물제도와 학술 가운데 우수한 것은 수입 활용할 것, 넷째, 고증학의 연구 등이었다.

실학의 신흥 학풍은 당시의 교육풍토 쇄신을 위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과거 합격을 위

한 입신영달에의 집념에서 유래되었음을 지적하고, 봉건적인 사·농·공·상에 입각한 직업관의 혁파, 즉 사회적 통속이었던 노동 천시 관념을 타파하며 학문의 생활화와 실생활에 적용되는 교육관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이 학풍은 유형원을 비롯해서 이익, 안정복, 홍대용, 정약용 등으로 이어져 갔으며 그 정신적 맥락은 후일의 개화사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실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녔던 특성과 교육적 사상을 살펴보면 첫째, 합리주의로서 그들은 권위나 미신을 배척하고 이론에 맞지 않은 것을 비판 배격했다. 인간의 이성을 문제해결과 사리판단의 근본으로 삼았고, 편견과 모순, 허위와 가식을 용납하지 않았다. 둘째, 민본주의로서 박지원은 ‘유민익국(裕民益國)과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정약용은 ‘이중민생(以重民生)’을 기본과제로 삼았다. 특히 박지원은 하늘이 재물을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나무, 군더더기 진 가지에도 비와 이슬은 고루 내리고, 썩은 나무, 흙에서도 버섯이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셋째, 법고창신으로서 이는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터전 위에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이상주의 위에 새로움을 창조하는 진보, 개혁주의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실심향학으로서 모든 일에 본래적으로 지닌 실심을 다할 것을 말했다. 즉 실심으로 시국의 폐단을 보며 정치적 개혁을, 민생고를 보며 이용후생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5) 민족 교육

(1) 민족주의 교육이념의 형성

한국의 민족주의는 한말 외세의 침략 과정에서 주권 침해를 자각하고 한민족의 생존과 주권 회복을 위하여 등장하였다. 이러한 민족주의 의식은 민족의식 속에 깔려 있는 고유이념으로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실학 그리고 동학의 교육사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우리의 건국이념이나 교육이념으로 이타적, 자기희생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간상을 길러내는 것을 바탕으로 민족의식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또 홍익인간의 이념에는 평화와 평등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조선조에 와서 자기반성과 자각에 의한 실학으로 연결된다. 실학의 기본 성격은 객관적 자연관, 사회적 실천윤리 및 민족적 주체의식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특히 실학의 근대적 민족주체의식은 만국병존적 세계관을 수립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동학은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표현되는데 ‘성(誠), 경(敬), 신(信)’의 세 이념을 내걸고 민중교화에 힘썼으니 이것이 곧 동학의 교육이념이요 신분사회를 부정하고 인간평등을 전제로 한 이상사회의 구현을 시도한 것이었다.

(2) 근대학교를 통한 민족교육

한말 한국민족주의는 외세, 즉 주로 일제의 침략에 자극받아 생성, 발전된 비서구형 민족주의였다. 우리 민족은 저항과 굴종의 택일 속에서 일제를 상대로 하여 보다 합리적인 구국운동을 전개하였으니 그것은 자기를 방위하려는 운동이요 또한 남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이었다. 이에 따라 근대학교 역시 민족보전의 이념과 독립사상 고취에 그 선봉을 담당하고 나섰다. 근대학교를 통하여 형성 발전된 근대교육이 지향한 개화, 자주독립은 결국 국민적 자립이며 국가의 자강운동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삼아 자위, 자립을 모색하여 자강적 민족주의를 확립하려 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 교육이념을 근대학교의 건학이념과 제반 활동을 통하여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첫째, 민간 사학에 의한 민족교육이다.

개화 후 선각자들은 열강의 도전에 대하여 나라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근대교육이 최급선무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하였다. 민간 사학의 건학 정신은 선진제국의 문물을 받아들여려는 개화사상에서 출발하였으나 일제의 힘이 점차 강하게 작용하자 교육구국의 인재양성이라는 민족적 요망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19세기 말 일제의 간섭이 노골화되어 갈 때 우리는 개화와 독립이라는 두 개의 면이 민족의 과제였으며, 이 개화의 요청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사학은 1883년의 원산학사이다. 일본의 침투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원산학사의 건학이념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신지식을 교육하여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외국의 도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었다. 그 외에 흥화학교(1895), 을미의숙(1895), 중교의숙(1896), 낙연의숙(1901), 오산학교(1902) 등이 있다.

그 후 일본의 침략 의도가 노골화되자 위기의식으로 독립유지와 민족보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교육구국의 이념이 사학 설립에 나타났는데 이용익이 세운 보성학교(1905)와 보성중학교(1906),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1907), 남궁억이 세운 현산학교(1906) 등이 있었다.

둘째, 선교계 학교의 민족교육이다.

민족주의 교육이념은 주로 민간 사학의 건학정신과 활동을 근간으로 형성되어간 것이지만 선교계 사학도 민족주의 교육이념 형성에 후견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 학교로는 배재학당(1885), 이화학당(1886), 전주의 전주여학교(1891), 구세학교(1886) 등이 있었다.

셋째, 관공립학교를 통한 민족교육이다.

고종은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에 입각한 사회개혁을 생각한 것으로 1884년 6월에 내린 교서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관공립학교의 건학이념으로 보면 이용후생학파가 개화교육 내

지 개화이념을 형성하는데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근대학교 설립정신은 관공립학교에서 개화와 실학의 요소가 뚜렷했으나 점차 일본의 관료주의 및 동화정책으로 퇴색해 갔고, 기독교계 학교는 기독교 정신과 민족주의 정신을 기초로 하였으며, 민간 사학은 처음에 개화사상으로 출발하였으나 일제의 침략과 더불어 민족주의 정신에 기반을 두었다.

이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근대학교 건학이념은 민족적 자각에서부터 싹텄고 이를 실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니 신도덕관의 확립, 개화를 통한 근대 지향, 민족보전과 애국사상의 고취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지 않고 종합 절충적인 입장에서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3) 주권상실기 이전의 민족교육

1890년대를 넘어서면서 일제는 조선에 있어서 침략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이로부터 조국수호 차원의 항일투쟁도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언론, 집회, 결사를 통하여 자각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입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민족 사학의 설립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1900년대부터는 일제의 침략에 대하여 저항과 굴종의 택일 속에서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구국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으며, 근대학교 역시 민족보전과 독립사상의 고취에 선봉을 담당하고 나섰다. 이와 같이 국권회복을 위한 운동은 교육을 통하여 나라를 구하려는 교육입국, 교육구국운동이 선각자나 단체에 의해 방방곡곡에서 전개되고, 서당은 학당, 의숙, 개량 서당 등으로 전환되어 신교육의 요람이 되기도 하였다.

제 5절 일제강점기의 교육

일본은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통하여 한민족의 얼을 말살시킴과 동시에 일본천황에 예속된 신민으로서의 인재 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각급 학교교육에 반영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공포와 동시에 정부의 모든 권한이 조선총독부로 이양되자 그 첫 사업으로 조선교육령이 시달되고, 일본어 교육이 시작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 학교에서는 물론 일반 가정생활에까지 일본어 사용이 강요되었다. 일본은 내선일체를 주장했지만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철저한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교육 제도면에서 일본인 자녀와의 진학을 및 학생 수용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둘째, 식민지 교육이념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철저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셋째,

교육과 근로의 일치를 표방하였다. 넷째, 매일 전 학생에게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우게 하여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일본인화 시키고자 한 것 등이 그 예라고 하겠다.

또한 총독부에 식민지 교육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학관 제도를 두고 자료 수집과 연구, 각 학교의 식민지 교육 시행 여부를 조사, 감독하게 하였다.

1) 교육 제도

(1) 조선교육령

일제는 조선인의 문화적, 정신적 독립성을 말살하고 영구히 식민지인으로 남겨놓기 위해 1911년 8월에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1차 조선교육령은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내용에 관한 법령으로 전문 30조로 이루어졌으며, 이른바 총량한 제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통교육기관으로서 4년제 보통학교와 실업교육기관으로서 4년제 남녀고등학교와 3년제 여자고등학교, 전문교육기관으로서 3~4년제의 전문학교를 두었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보급시키기 위한 보통교육과 농·상·공업 분야의 하급 직업인을 만들기 위한 실업교육,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교육에만 한정하고 대학교육은 허용하지 않았다. 실질적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맞춘다고 하여 보통교육과 실업교육만 실시하고 교사는 제복에 칼을 차고 학생을 가르치며, 사립학교 규칙을 만들어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사립을 억압하였다.

일제는 조선인 교육에 대한 탄압정책을 강화하다가 3·1운동 이후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발표하고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헌병제도를 경찰제도로 바꾸었다. 또한 교사들이 제복에 칼을 차고 다니던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제도 혁신을 위한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제개혁을 심의하고 고등보통학교의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실업교육 비중을 다소 완화하여 1922년 2월에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2차 조선교육령은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일본의 학제에 따라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고등보통학교는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년으로 연장했다. 일본인 학교는 소, 중, 고등학교로 구분하고 조선인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로 나누어 차별하였지만, 조선인 학교에서는 조선어를 정식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공사립 전문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하였다.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개명하여 일본과 같은 명칭으로 부르게 하였다. 또 사범학교를 설치하게 하고 대학에 대한 규정을 두어 조선에서도 대학이 설치될 수 있게 하였다. 이 규정으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937년 7월 루거우차오(盧溝橋)사건으로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한반도를 대륙침공

의 병참기지로 삼아 전시체제를 강화하면서 다시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3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철저히 하면서 조선인에게 황국신민서사의 암송 제창을 강요했다.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고 일본어, 일본역사, 지리과목을 강화하여 나갔다. 이후 점차 내선일체, 인고단련을 교육지침으로 삼고 강화된 식민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40년에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조동근이라 하여 강제적인 창씨개명과 일본어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41년 중학교 이상의 수업연한을 단축하였으며, 소학교령을 개정하여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1943년 3월에는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모든 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전문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각종 토목공사 등에 동원함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송탄유 채집에 동원했고, 마침내 전문학교, 대학교 학생을 학도병으로 강제 지원시켰다. 1944년에는 학도동원령을 내려 근로노력이란 이름으로 수업을 전폐하였으나,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일제의 식민지 교육은 마침내 끝나고 말았다.

4차에 걸쳐 개정 공포된 일제의 조선교육령은 조선인을 영구히 식민지화하려는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의 고등교육을 억제하고 일제에 충성하는 하급 직업인을 양성하는 식민지 우민화 교육정책이었다.

(2) 국공립학교

일제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에 의하여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인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를 세웠으나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전문학교를, 1924년에는 대학(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가. 보통학교

일제는 1911년 교육령에 의하여 8세 이상 아동들에게 일본국민으로서의 필수기능을 교육하기 위하여 보통학교를 세웠는데 1934년에는 심상소학교로, 1941년에는 공립, 사립국민학교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보통학교는 수업연한을 4년(지방은 3년)으로 하여 일본어를 교육 전체의 2/5로 편성하여 보급에 힘썼다. 1922년에는 교육령을 개정하고 수업연한을 6년으로 늘리면서 일어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본 역사, 지리 과목을 추가하고 이과, 도서, 체조를 필수과목으로 바꾸었다.

이 시기는 주권의 상실로 인한 저항적 민족교육 운동기라 할 수 있는데 일제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으나 비밀리에 학생들에게 민족사상을 고취시키고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의식을

배양하였다. 일제의 철저한 탄압 교육정책에 당시의 조선인 자제들은 관공립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민족교육의 장(場)인 사학 또는 서당으로 전학하였다. 당시의 서당은 한문 습득의 장소가 아니라 민족정기를 내세운 신교육을 가미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있었다. 1919년 3·1운동을 전국적인 민중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도 서당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은 민족주의자였다.

우리 고장에서는 1906년 고성초등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회화초등학교(1919년), 송계초등학교(1920년) 등 20여개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나. 고등보통학교

일제는 1911년 교육령에 의하여 국민으로서의 인격 도야와 생활에 유용한 기술, 기능을 교육한다는 명분으로 12세 이상의 보통학교 졸업자가 진학할 수 있는 4년제 남자고등보통학교와 3년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세웠다.

또한 실업계 학생에게는 농업, 공업, 상업 지식 위주로 2~3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했다. 1918년에는 교육령을 수정하여 남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이과를 박물과 화학으로 실업법제, 경제를 실업과 법제경제로 나누었다. 그러나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외국어만 수의과목으로 하고, 고등보통학교에 2년 이내의 보습과를 둘 수 있게 했다.

1922년 교육령을 개정하여 남자고등보통학교는 수학연한을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수학연한을 4~5년으로 하였으며, 이어 1938년 교육령을 일본인 학교와 같이 개정하여 남자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로 개칭하였다. 또 1941년 전시체제에 맞추어 교육령을 개정하여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 수학연한을 4년으로 단축하고 야간중학교를 신설하였다.

다. 전문학교

일제가 1911년에 제정한 조선교육령에는 3~4년제의 전문학교를 두고 16세 이상의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이 진학하여 고등의 학술과 기예를 수여한다고 규정하였다.

1915년에는 3년제와 전문학교 규칙을 제정하고 1916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법률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세웠으며, 1918년에는 수원농림전문학교 등을 설립하였으나 1941년 전시교육 체제로 학제를 바꾸어 수업연한을 2년으로 단축하여 교육을 했다.

라. 대학

3·1운동 이후 일제가 문화정치라는 기만정책으로 전환하자 민족지도자들은 실력양성운

동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교육의 진흥, 산업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실력양성운동이며 실력양성은 곧 교육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족자본에 의한 사립학교와 사설강습소, 개량서당 등이 설립되고 해외 유학생들도 증가하였다.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조선인이 조선인의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한 최초의 운동으로 조선학회가 주도하였으나 총독부의 방해와 여러 사정으로 중도에 좌절되고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대학이 1923년에 창립되었으니 바로 경성제국대학이다.

일제는 1924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총장으로 취임하여 2년제의 법문학부와 의학부를 개설했다. 1934년에 학제를 개정하여 4년제의 법문학부와 의학부를 신설했으나 1941년 전 시교육 체제로 바뀌면서 수업연한을 3년으로 단축했다.

(3) 사립학교

대한제국 때 설립한 사립학교가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대항하여 점차 민족의 자주성을 고취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일제는 융희 1년(1907)에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평양승실학교 대학과와 1910년에 설립한 이화학당 대학교를 폐지하였다.

1911년 사립학교 규칙을 제정하여 일본어를 사용하는 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고,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학교 운영을 규제하였다.

2) 향교와 서당 교육

조선총독부는 1911년 구 교육제도인 성균관의 학교교육을 중지시키고 이름도 경학원으로 바꾼 뒤 사회계몽 사업만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전국의 355개 향교는 명예직인 문묘 직원을 두어 서무만 보게 하였다. 16,540개나 되는 서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하지 않았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는 전국에 서당이 23,556개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40년에는 일제의 단속으로 4,686개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제의 감시를 피하여 마을마다 야학당에서 한글을 깨우쳐 주는 애국청년들의 교습활동이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제 6절 광복 후 교육의 발전과 고성 교육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자 우리 민족은 35년간의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국 방방곡곡에는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넘쳤고, 우리 고장 고성에도 일본, 중국 등 해외로부터 귀환하는 동포들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민주국가를 수립해야 할 이 땅에 국토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아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미군의 진주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을 미군이 통치하게 되고 우리 고성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종래의 식민지적 사상과 행태를 탈피하고 교육을 통하여 해방된 조국을 민주화하려는 노력이 실천에 옮겨졌다.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교육용어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20년대 이후부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8. 15해방 이후에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변천은 관점의 차에 따라 고찰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 데 대체로 ① 교수요목(教授要目) 시대, ② 교과과정(教科課程) 시대, ③ 교육과정(教育課程) 시대로 구분한다.

1)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와 교수요목 시기(1945~1954)

(1)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 시기(1945~1946)

1945년 9월 17일 미군정이 ‘일반명령 제4호’를 공포하여 9월 24일부터 모든 공립국민 학교에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사립국민학교는 개교 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일반명령 제4호는 교수 용어를 한국어로 할 것과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의 교수를 금하는 포괄적인 지시였다. 이어 일제의 색채를 모두 없애라는 교육의 일반 방침과 초·중등학교 교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표를 시달하였다. 특히 일본어 중심의 국어가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의 국어로 바뀐 점, 일본 역사가 폐지되고 우리 국사가 시행된 점 등 주로 일제의 황민화 교육을 탈피하고 신생국가로서 가져야 할 교육내용을 취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교수요목 시기(1946~1954)

교수요목의 시기는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이 나오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교육과정의 개념상 교수요목과 교육과정을 엄밀하게 구분 짓지는 않고 교수요목이란 교과 내용 자체가 학생들이 학습해 나갈 코스이며,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을 열거한 데 불과하였다.

미 군정청 편수국의 교과별 편수관들은 교수요목 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요목 제정을 하는 한편,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에 착수하였으며, 한국교육심의회에서는 확정된 교수

요목을 194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때의 교수요목은 교육과정이 총론에 대항되는 것이 없어 그 구성의 방향이나 이념 또는 목적, 운영상의 유의점 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와 지도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다.

둘째,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교육목표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애족의 교육의 강조하였으며, 일제 잔재를 정신면에서나 생활면에서 긴급히 제거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하였다.

이 교수요목은 새롭게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6·25전쟁으로 중단되어 1954년의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과 그 이듬해 ‘교과과정’이 공포될 때까지 유효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과서가 편찬되어 사용되었다.

(3) 교수요목기 고성의 교육

광복과 함께 미군의 통치와 6·25전쟁 등 혼란의 시기였으나 우리 고장에는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상동·삼오국민학교(1945), 삼락국민학교(1946), 수태·대안·방산국민학교(1947)가 개교를 하였다. 1949년에 고성여자중학교, 1951년에 고성중학교, 1953년에 회화중학교, 1954년에 고성동중학교가 각각 개교를 하였다.

2)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1963)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제정·공포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이 공포된 이후의 교육과정으로 법령상의 명칭이 ‘교과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교과과정의 시기 또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시기라고도 한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때의 교육과정은 지적인 체계가 중심이 되어 있기는 하나 ‘생활 교육’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여러 면에서 나타나 있었다.

(1)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1949년 교육법의 공포에 따라 교육과정을 새롭게 제정하지는 요구로 교육과정의 제정에 착수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호로 공포하게 되었다.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정해지자 교육과정의 제정을 서둘러 이듬해인 1955년 8월 1일자로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을 공포하였다. 이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표’와 ‘교과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것을 우리

는 제1차 교육과정이라 부른다.

제1차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 제2조에서 ‘본령에서 교육과정이라 함은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 라고 한 규정과 문교부령 제44~47조로 공포된 교육과정의 명칭 자체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과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보아도 교과 교육과정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도 국정, 검정, 인정 등의 종별을 새로이 마련하였는데 새 교과서 편찬이 1958년 봄까지 끝남으로써 교과 교육과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이 시대의 교육과정이 지적인 체계가 중심이 되어 있기는 하나,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결과 학생들이 경험과 생활을 존중하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이 침투되어 있음도 또한 그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자체는 ‘교과 중심’이었으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편찬하는 교과서는 벌써 ‘생활 중심’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구성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구성 방침이나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각급 학교에 공통되는 본 과정의 기본 태도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현실 생활을 개선·향상시킬 사회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교육을 통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부흥시키고 미개발된 사회 환경을 발전시켜 보려는 뜻이 내포된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정부 수립 후 제정·공포된 교육법에서 제시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도로서의 교육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내용은 적정·필수의 최소량이어야 함을 밝혀 지적 체계와 국가 기준으로서의 교육과정 체계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넷째, 반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반공·도의교육을 강조하게 된 까닭은 광복 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전쟁으로 인하여 도덕적인 타락이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반공의식 교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업교과는 필수, 선택을 합하여 총 이수 시간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시간을 배당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과 직업교육에의 강조를 알 수 있게 한다.

다섯째, 특별활동 시간의 배당하여 전인교육을 지향하였다. 특히 특별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적 학생활동, 학생의 개별 성장, 직업 준비 및 이용후생, 학생의 취미에 관한 것임을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에서 밝히고 있다.

(3)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1차 교육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으로 교과중심 교육과정에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특징이 있으나 ‘교육과정령’ 으로서의 체계, 진술 형식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편제상의 특징으로서는 특별활동이 교육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 이외의 기타 교육활동으로 편성되어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2개 활동이 처음으로 편제되었다. 그리고 교과는 대 교과제를 취하여 8개 교과로 하였으나 지금의 도덕과는 편제표 상에 편제되어 나타내지 않고 각 학년 총 이수(履修) 시간 수 범위 내에서 연간 35시간 이상의 시수(時數)를 확보하여 전 교과 및 기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간 배당의 기준을 총 이수 시간 수에 대한 백분율로 제시한 것이 제2차 교육과정 이후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특히 이때부터 단위 수업 시간의 운영에서 분과 또는 통합 운영 지도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음은 교과의 통합적인 운영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국민학교의 교과 편제는 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 보건, 음악, 미술, 실과 등 8교과로서 교수요목시대와 같았으나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즉, ‘이과’는 ‘자연’으로 바뀌었으며 5·6학년 여자에게만 부과되던 가사가 4학년부터 남·여 모두에게 ‘실과’로 부과되었다. 한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실업교육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특별활동이 시간 배당 기준 표에 기재되었으며 교과 배당시간을 시간 대신에 퍼센트로 표기한 것도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라 하겠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나누었는데 교과활동은 국어, 수학, 사회생활,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업가정과 선택교과는 실업가정, 외국어, 기타 교과로 편제하였다.

고등학교는 국어(1), 사회(일반사회·도덕·국사),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업가정과 선택교과로 국어(2), 사회(세계사·지리), 수학(해석·기하), 과학, 교련, 철학 및 교육, 음악, 미술, 체육, 외국어, 전문과정 등의 교과와 특별활동을 더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교육과정은 연구조건이 구비되지 못하였고 교육과정 구성의 기술 및 기초 자료의 부족과 함께,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현실과의 유리가 심하다는 반성과 여론이 제기되어 1963년에 다시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4) 1차 교육과정기 고성의 교육

제1차 교육과정 말기에는 4·19 학생의거, 제2공화국의 탄생, 5·16 군사정변 등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새로운 도전과 혁명에의 의지로 점철된 시기이기 때문에 고성의 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4·19 의거의 여파로 학원 내의 집단행동이 있었으며 교원노조운동이 확산되어 대정부 압력단체로서 그 기틀을 잡아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5·16 군사정변을 맞게 되었다.

1952년부터 군(郡)을 단위로 교육위원을 피선하여 교육자문기관으로 활동하던 교육자치제는 5·16 군사정변으로 군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중단되었고, 군수 하에 교육과를 두었으며, 정년이 60세로 인하되었다.

이 시기 고성군에서는 봉발, 봉현, 영동, 율흥, 율천국민학교와 와도, 좌련분교장(分敎場) 그리고 영천중, 영현중학교가 개교를 하였다. 1957년에는 교육청 청사를 신축하였다.

3)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1973)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는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로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여 1973년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다시 개정할 때까지를 말한다. 이때의 교육과정 개념은 교과간 비교적 횡적인 관련이 결여된 일군의 교수요목이나 지적인 체계로 구성된 교과과정과는 달리 ‘학교의 주도 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과정을 개념상 ‘생활중심 교육과정’ 또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국민학교·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반공·도덕생활 및 특별활동의 3개 영역으로, 고등학교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2개 영역으로 전체구조를 갖추었다.

(1)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소련의 스푸트니크(Sputnik)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세계적인 교육 경쟁의 현상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는데, 그 초점은 초·중등교육 개선에 두고 교육목표를 재검토하면서 교육과정의 구조를 조정하였다. 문교부는 5·16군사정변을 계기로 하여 종래의 교육을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로 이를 공포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생활이나 경험 자체를 교육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 운영 면에서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을 강조하여 생활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였다.

첫째, 교육과정의 내용면에서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민

을 기르려고 했으며, 현대 과학 기술의 습득과 실업 및 직업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학습 경험을 충분히 계획하도록 힘썼다. 또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일상생활과 직결되게 하여 자활할 수 있는 실천인 육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의 조직에서는 합리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과학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각급 학교간의 연결, 각 학년간의 관련, 각 교과간의 계통적 발전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

셋째,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학교 교육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적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2) 구성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민주적 신념이 확고하고 반공정신이 투철하며, 민주적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둘째, 독립자존의 민족적 기풍과 아울러 국제 협조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과 유용한 기능 및 과학적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직결되는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넷째,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학습 활동을 충분히 포함시킨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이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시키도록 하였다.

첫째, 기초 학력 충실을 기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계열을 합리화하여 각 학교 간에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셋째,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 경영을 지향하여 관련성 있는 교과의 종합 지도를 강조한다.

넷째,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를 교과활동, 반공·도덕생활 및 특별활동으로 한다.

다섯째, 중학교의 교과는 공통 필수 교과만을 두고, 고등학교에서는 단위제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섯째, 각급 학교의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시간배당 계획에 융통성을 주도록 하며 교육과정 내용을 서술하는 형식을 통일한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개정 요점’에서는 교육과정의 계열화와 학교 급별 계열화를 통

일하여 일관성 있는 발전적 계통 학습을 강조하고, 필수 불가결한 최소의 내용 요소를 엄선하여 기초학력을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학교 급간의 연계성과 아울러 교과간의 통합성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국민학교의 저학년(1, 2학년)에서 각 교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통합)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별활동의 시간 배당은 학교 실정에 맞게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3)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우선 제1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 과 ‘교과 과정’ 을 별도로 공포했던 것을 이를 합쳐 일련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공포하여 명실 공히 교육과정령으로서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그리고 명칭도 제1차의 ‘교과과정’ 에서 ‘교육과정’ 으로 바뀌어 교육과정이 교과활동 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에 의한 계획이란 뜻으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교육과정의 전개 체계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고 총론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공통되는 개정 취지, 일반 목표, 개정의 요인을 제시한 다음 학교 급별로 시간 배당의 기준을 제시하고 교과활동, 반공·도덕생활, 특별활동별로 운영 계획이나 지도상의 유의점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각론에서도 각 교과별로 개정의 요점,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어 진술하여 체제면에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었다. 특히 학년 목표를 신설한 것은 교과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적어도 체제면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국가 수준으로서의 체계적인 전개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로 공포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활동, 반공·도덕활동, 특별활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시간 배당 기준에 있어서는 각 교과별 시간량을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의 폭을 두어 주당 이수 시간으로 표시하고, 특별활동을 총 이수 시간 수의 백분율로 표시하여 그 운영의 융통성을 기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체육, 미술, 실과’ 의 8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 ‘사회생활과’ 가 ‘사회과’ 로 명칭이 바뀌었다.

학교 수업 일수는 연간 35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시간 수업은 40분 단위이나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시간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1, 2학년의 학습 지도는 ‘교과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도에 힘써야 함’

을 나타내어 1차와 마찬가지로 교과외의 종합적인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학교·중학교의 교육과정은 3개 영역으로, 고등학교는 2개 영역으로 전체구조를 갖추었는데 그중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것은 바로 고등학교의 교과활동의 편제에 관한 문제였다.

그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활동은 단위제에 의한 계열 선택과정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으나 진학하는 학생과 진학하지 않고 곧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을 위해서 교과활동 영역을 달리하게 되었다. 즉, 진학희망자 중 그 적성에 따라 인문과정과 자연과정 또는 특수재능을 위한 예능과정을, 비진학자를 위해서는 취업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요는 학생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따라 인문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및 예능과정으로 구분하여 지도하도록 편제하였는데 인문계는 204단위, 자연계는 214단위, 직업계는 208단위, 그리고 예능계는 인문계의 과정에 준하여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3개년간의 총 이수단위는 공통과목 및 계열 선택의 시간수가 각각 90단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단위제·계열 선택과정의 구성은 교육과정 구성에서 큰 변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4) 부분 개정

1963년 2월에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은 1964년부터 연차적으로(1, 2학년: 1964년, 3, 4학년: 1965년, 5, 6학년: 1966년) 시행하도록 하여 이에 맞추어 교과서의 지도 지침이 발간되었다. 그 후 1968년의 국민교육헌장의 선포,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대입 예비고사제 실시에 따라 문교부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우선 긴급을 요하는 것을 부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과 한글 전용 계획 등 정부 시책과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2차 교육과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 1969년 9월 4일 문교부령 제251호로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부분 개정에서는 반공·도덕생활을 강화하고 특별활동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활동의 변화로는 국어과에서 완전한 한글 전용 실시를 위하여 한자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미술과에서 표준색을 12색(또는 24색)으로 하였다. 반공·도덕생활은 시간 배당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하였으며, 특별활동 구성 체계를 보완하여 국민교육헌장 이념과의 관련 하에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학급회 활동, 아동회 활동, 클럽 활동의 세 영역에 따라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전체 시간에 대한 백분율(각 학년별로

5~10%)로 제시되었던 시간 배당 기준을 1~2시간으로 표시하여 최저 시간 이상을 확보하면서 운영의 묘를 거두도록 하였다.

1930년부터 미국에서 활발히 전개된 생활중심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에 이르러서야 개념면에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2차 교육과정기 고성의 교육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정년이 환원되었다. 고성군 교육과에서 독립된 고성군교육청이 발족되고 군 단위의 교육자치제 안에서 초등교육만 관장하게 되었다.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 이 선포됨에 따라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 가 발표되고 시설·설비의 평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면소재지 중학교에 재정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70년 초 ‘새마을 운동’ 이 확산되면서 농어촌 신생활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고성군에서는 대동·삼덕·양지국민학교와 병산·종생·포교·화당·자란분교장과 철성·동해·삼산·하일중학교가 개교하였다. 또한 고성여자고등학교, 고성종합고등학교, 철성고등학교가 개교되었는데 고성농업고등학교 밖에 없던 우리 고장에 고등학교가 3개나 설립되어 고등 인력 양성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4)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1981)

우리나라 최초로 구성된 교육과정 심의회에서 1971년 1월 시안을 확정된 뒤 2년간의 실험평가를 거쳐 1973년 2월 14일 문교부령 제310호로 개정, 공포된 것이 제3차 교육과정이다.

1973년 12월 14일, 문교부령 제 310호로 국민학교 교육과정, 1973년 8월 31일에 문교부령 제 325호로 중학교 교육과정,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 350호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1976년 2월 23일에는, 문교부령 379호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차례로 공포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 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이 강화, 지식과 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그리고 구체화된 학교 교육의 일반 목표로 개인적인 면에서의 자아 발견, 사회면에서의 국가 발전 및 민주적 가치의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32개 항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개념의 이해와 지식의 구조적 학습 및 탐구의 능력을 중시한 이 교육과정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학문중심 교육과정’ 의 사조를 받아들였지만 그 내용이나 형식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국적 있는 교육’ 을 슬로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여러 면에서 한국화 된 교육과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3차 교육과정은 총론은 교육과정에 대한 건의를 반영하고 조사 분석과 여론 조사를 거쳐 개정 방침을 세우고 초안을 작성하였다. 1971년 1월에 시안을 확정된 후 교육과정의 이론적 탐색, 소규모 실험 및 준비 기간을 거쳐 1973년에 문교부령으로 제3차 교육과정을 공포하게 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의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학문중심 교육과정 사조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 탐구 과정의 조직’ 으로 정의된다. 이 과정을 강력히 주장한 브루너(Bruner, J. S)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각 교과와 전문가들이 각 교과가 나타내고 있는 지식의 본질을 가장 명백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것’ 을 가리킨다. 대체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해결력을 기르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교과는 수학, 과학, 사회 등이었다.

학문 중심 교육과 함께 제3차 교육과정의 이념이 된 것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이었다. 이는 주체성을 강조하여 한국 전통을 존중하고 창조의 정신을 기르자는 것으로서, 1968년에 제정 공포된 것이다. 제3차 교육과정은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 협동정신, 국민정신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2) 구성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3차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 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등 세 가지를 기본 방침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민족 주체의식을 고양하고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둘째, 인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치관 교육의 강화, 비인간화 경향의 극복과 근면·협동성의 양양을 강조하였다.

셋째, 지식·기술 교육을 쇄신하기 위해서 기본 능력을 배양하고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판단력과 창의력을 함양하며 산학 협동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른 학교 교육의 일반 목표는 자아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 강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3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 및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교육현장의 이념을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반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1949년에 공포된 교육법의 교육 방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다가올 70년대 또는 8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깊이 통찰하고, 이에 대비하는 교육의 목표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제 문제들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긴박한 문제였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국적 있는 교육과 기대되는 한국인상 정립에의 요청에 부응하여 민족 주체 정신을 지니고,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를 창조할 수 있으며,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기본 방침으로 내세웠다.

셋째,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각 교과와 내용 조직에서 지식 구조화의 체계화에 의한 학교급별, 학년별 계열성을 더욱 뚜렷이 하고, 내용의 선택에서 기본 개념과 학문의 원리 및 기초 이론을 일관된 지식 구조의 체계 하에서 전개하는 이른바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며, 학습의 방법 면에서 기억 위주나 단순한 경험의 습득만이 아니라 발견, 탐구의 과정과 기본 개념 이해 과정을 강조하였다.

넷째, 제2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 목표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한국적 현실과 국가 정책적 의지가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리 풍토에 알맞은 민주적 인간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올바른 국가관, 국민 연대 의식, 국토 및 자원의 보존과 개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각 등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의지가 깊게 반영되어 있었다.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구호가 교육 목표에 반영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기본 방침이나 목표에서 위아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가 성격상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각 그 역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산만하게 나열되었다는 점,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미사여구가 모여 있으나 목표 하나하나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3)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3차 교육과정은 체제면에서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가 더욱 체계화되었다. 총론을 일반 목표와 학교급별 교육과정으로 나누고, 구성의 일반 목표에 방침, 일반 목표를 제시하였으

며, 학교 급별 교육과정에 구성 방침,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제2차 교육과정보다 단순화, 체계화되었다.

각론에서도 각 교과별로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목표는 교과 목표에 해당하는 일반 목표와 각 학년별로 학년 목표를 진술하고 있어 그 위계와 체계를 분명히 하였다. 교육과정의 편제 면에서는 ‘반공·도덕생활’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함으로써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도덕과가 교과화됨에 따라 교과는 9개 교과로 되었다. 중등학교에서는 ‘도덕’과와 함께 ‘국사’도 교과로 독립하였으나, 국민학교에서는 종전대로 사회과 내의 국사 분야로 존치시키도록 하되 5, 6학년에서 국사 부분의 내용을 따로 편성하고 교과서도 따로 편찬하도록 하였다.

시간 배당 면에서는 주 단위로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으로 이수의 폭을 두어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도록 했던 구 과정과는 달리 교과별, 학년별로 연간 최소 시간량으로 단일화시켰다. 이것은 구 과정에서 이수의 폭을 둔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여유의 폭이 거의 없었으며, 교육 현실이 교과 담임제가 아니고 학급 담임이 전 교과를 단일의 국정 교과서로 지도하므로 그 폭이 별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바뀐 것이다. 연간 수업 시수로 표시한 것은 주당 시수로 표시함으로써 요일에 따라 수업이 빠져 교과별로 수업 시간이 기준을 넘거나 모자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수업시간 단위를 40분 또는 45분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1~6학년의 성장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활용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45분이 수업 시수로 등장한 것은 국민학교 교육과정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특히 교육 내용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집합’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종래의 생활 수학을 탈피한 획기적인 일이었다. 제1, 2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1, 2학년의 학습 활동은 ‘가급적 관련 있는 교과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도’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 ‘부령’으로 제정되었던 것을 1979년 3월 1일자로 ‘문교부 고시’로 하여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정이 용이하도록 변화시킨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또, 특별 활동의 영역은 학급 활동, 클럽 활동, 이동회 활동, 학교 행사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학교 행사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은 1~3학년은 1973년에, 4~6학년은 1974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사회과는 1973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4) 3차 교육과정기 고성의 교육

1976년 4월 구만면에 구만중학교가 개교하였으며, 국가적으로 학교 교육 환경의 정비와 교육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군내 학교에서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비롯하여 동물 모형 등으로 학교 환경을 교육적으로 조성해서 활용한 시기였다.

국방을 위시하여 산업 발전 등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교육면에서도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은 물론 각계각층의 국민에 이르기까지 범국민적 차원에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덕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는 운동이 벌어졌다.

5)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1987)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공포되었다. 유치원과 국민학교는 198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민학교의 경우 도덕과와 사회과를 제외한 4, 5, 6학년의 교육과정은 1983년도부터 시행하였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도덕과와 국사는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민윤리와 국사는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그 밖의 교과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1987년 6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87·9호로 유치원과 국민학교의 교육과정이 공포되고 198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이 새로 개정 실시될 때까지의 교육과정 시행기를 제4차 교육과정이라 한다.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24호로 개정된 제4차 교육과정은 문교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던 종래의 방식을 벗어나 문교부장관이 한국교육개발원에 개발 과제를 위탁하여 기초 연구와 총론, 각론 시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의 형태’를 도입하였다는 것이 교육과정 정책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개정 시안을 연구·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은 보고서를 통해 교육과정을 ‘문서화된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면서 단일한 교육 사조나 교육 이론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1980년 당시의 정치·사회적 특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와 함께 이에 대처할 적절한 새 교육과정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7·30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한 후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를 1980년 9월 1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촉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종래의 교육방송 및 기초교육 연구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던 개발

원의 연구 업무 영역을 개정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계 연구에 이미 착수하고 있었는데, 문교부가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을 위탁할 당시에는 새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세미나 개최 및 관련 기초 연구를 끝내고 많은 보고서를 낸 바 있어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에 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4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연구·개발(R&D)형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초 연구를 토대로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와 총론 시안을 문교부에 답신 보고를 하였다. 이 답신 보고를 기초로 하여 문교부에서는 총론 시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각론에 대한 심의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2차 심의회(교과별, 학교별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1981년 12월 31일자로 문교부 고시 제424호로 제4차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3차 교육과정이 지닌 학습 내용의 과다, 학습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 교과목 위주의 분과 교육, 기초 및 일반 교육의 소홀, 전인 교육 및 인간 교육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지식의 학문성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적 유용성 면에서 적합하도록 정선하고 그 수준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보완,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의 추진,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 등의 개정의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4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의 입장이나 접근 위에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의 정신과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학문적인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인 교육 과정이라는 특색을 지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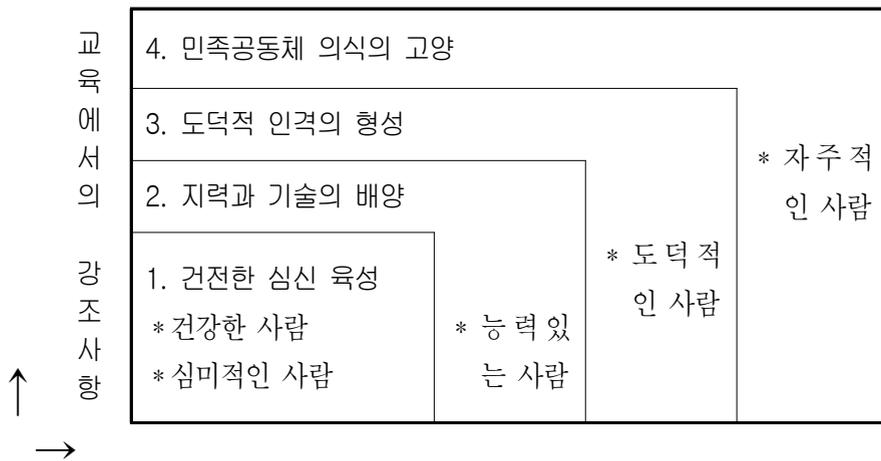
(2) 구성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 사회의 건설, 정의 사회의 구현,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이라는 국정 지표에 따라 민주, 복지, 정의 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사람’,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 ‘인간을 존중하며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도와주어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위와 같은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교육 내용을 정선하여, 초기에는 통합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점차 이를 확대, 심화할 수 있도록 조직하며, 특히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역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과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과의 관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



<인간상과 교육과정 강조사항과의 관계>

특히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를 포괄적인 상위 목표와 구체적인 하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국민학교의 교육은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생활 태도를 형성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밑바탕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 첫째, 보건과 안전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한다.
- 둘째,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꿀 줄 알며,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게 한다.
- 셋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수리적 사고를 기른다.
- 넷째, 자연과 사회의 이해를 위한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고, 지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 다섯째, 기초적인 생활 기능과 근검절약하는 태도를 길러, 자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

을 가지게 한다.

여섯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지게 한다.

(3)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4차 교육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1장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으로 우리나라 미래 사회의 전망에 비추어 본 국민적 과제,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 학교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 그리고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은 ‘국민학교 교육과정’으로 교육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 그리고 각 교과와 특별 활동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편제는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편성하였는데, 교과 활동은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의 9개 교과로, 특별활동은 어린이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세 영역으로 편성되었다.

시간 배당은 통합 교과서에 의한 교과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1, 2학년의 교과 활동 시간을 2·3교과를 합쳐서 시간을 배당한 것이 커다란 변화라 하겠다.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시간량을 학년별, 교과별로 표시하고()안에 주당 평균 시간 수를 늘린 점도 특징이며,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제4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에서 교과 활동은 교과간의 연관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1, 2학년은 교과간의 통합을, 3학년 이상은 분과를 원칙으로 배당되었으며, 특별 활동 시간은 3학년 이상부터 배당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1, 2학년에서의 교과간 통합 시간 배당은 실제 운영에서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서를 탄생시켜서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통합 교과 설정의 길을 열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개정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과 같이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전체구조를 갖추게 되었는데 교과의 변동은 없으나 특별활동은 학급활동, 학생회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의 4개 영역에서 학급활동을 학생회활동에 통합하여 3개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도 제3차 교육과정과 같이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전체구조를 갖추었는데 실업·가정교과에서 필수인 「생활기술」(남) 「가정」(여) 과목을 3학년에서 제외시키고, 2·3학년에서 한 과목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던 농·공·상·수산업과 가사를 3학년에서만 이수하도록 하였다. 요는 2학년과 3학년에서 1개 과목이 줄어들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도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전체 구조를 갖추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공통필수과목을 두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및 기타 계열의 고등학교에서 필수로 부과한 점이다.

제4차 교육과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1~3학년에 시행되었고 도덕과, 사회과를 제외한 4~6학년의 교육과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KBS 1TV를 통하여 전국적인 교원 연수가 시행된 점은 수업 개선을 위한 최초 시도로 기록되었다.

(4) 4차 교육과정기 고성의 교육

1980년대에는 대대적인 교육 개혁이 시도되었다. 7·30 교육개혁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대학 입학 학력고사 성적만으로 대학 진학 등 수많은 개혁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고성군내 각 학교에서는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사람,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 인격을 존중하고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어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교육적 역량을 동원하였다.

1986년 12월에는 고성군 교육청이 전인 교육에 앞장서며 내실 있는 교육을 하는 우수 교육청으로 뽑혀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6)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1992)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초교육의 강화,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미래사회 대비 교육 강조,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의 주안점을 두고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부분 개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1987년 6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87-9호로 개정된 것이 제5차 교육과정이다.

1987년 6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87·9호로 유치원과 국민학교의 교육과정을 고시한 후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1987년 8월 31일에 문교부 고시 87·7호로 고시하고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중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1988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88·7호로 고시해서 1990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시행하게 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행기를 제5차 교육과정이라 한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의 문서화된 포괄적인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단일한 교육 사조나 이론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개인적, 학문적, 사회적 적합

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였다.

(1)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1982년 3월 1일부터 제4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문교부는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적용 실태를 분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1983년도부터는 교육과정 분석·평가 연구,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학생·교원·학부모 요구 의견 조사, 국가 사회적 요구와 전망 조사 등의 기초 연구를 문교부 교과담당 편수관실과 교육과정 담당관실의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3년간 추진한 후, 1985년 6월 17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 기본 계획을 통보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1986년 2월 19일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4차 교육과정의 개정과는 달리 문교부에서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실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의뢰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고 하겠다.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교부는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적정화, 교육과정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5차 개정의 방침으로 정했는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적정화를 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수 과목의 축소, 학습량과 수준의 적정화, 교과목의 조정, 개발 과정의 효율화 등을 꾀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목표의 상세화, 교육 내용의 정선, 지도서의 실용화, 평가 방법의 다양화 등을 꾀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기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의 2중화, 교과 단원의 지역화, 교재 활용의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화 등을 꾀한다.

제5차 교육과정이 적용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미래 사회는 민주주의가 토착화되고 사회 정의가 구현되며, 국민 복지가 실현되고 문화의 주체성이 확립된 민주·정의·복지·문화 사회로 전망하면서 그 사회에 필요한 인간상은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하였다.

(2)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5차 교육과정은 우리의 미래 사회를 자유 민주주의 사회, 정의 사회, 복지 사회, 문화

사회로 전망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하는 인간상을 ‘건강한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하여 이를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에 제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과 운영면에서 개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기초 교육의 강화이다. 학교 교육에서 꼭 정착시켜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정선하여 기초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학교 저학년에서의 국어·산수과의 독립, 특히 국어과의 언어 영역별 독립 교과서 편찬, 중학교의 수학·과학과의 강화, 고등학교의 공통 필수 교과목의 합리적 조정 등은 기초 교육 강화를 위한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이다.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내용을 정선하여 추가·보완하였다.

이제까지의 물질적 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사회 변동과는 질이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에 대비하는 교육도 필요하게 되었다. 국민학교 실과에 컴퓨터의 기초, 중학교의 기술, 가정에 컴퓨터의 원리와 이용 내용을 새로 편성하고, 고등학교에 정보산업 과목을 신설할 것, 그리고 모든 교과목에 걸쳐 주체성과 경제 교육 내용을 크게 강화한 것을 비롯하여 환경 교육, 진로 교육 등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방침을 구현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이다.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교육과정이 의도한 것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교육과정은 법적인 문서로만 존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이 교육과정의 존재를 거의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경향도 있었다. 심지어 교사 양성 기관에서도 고시된 교육과정을 외면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것은 법적 문서로서 고시된 교육과정이 매우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이며, 중·고교의 일부 교과를 제외한 교과목의 교과서가 단일종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과정 자료가 미흡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또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와 내용, 교과서 및 생활기록부 양식 등과의 불일치, 시간(단위) 배당 기준의 지나친 경직성, 교육 내용 및 방법의 획일성,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의 제한 등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주성과 융통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학교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보건과 안전에 대한 바른 습관을 가지게 한다.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씨를 가지게 한다.

셋째,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수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자기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자연과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탐구,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게 한다.

다섯째,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꿀 줄 알며, 경험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기초적인 생활 기능과 근검절약하는 태도를 길러, 자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게 한다.

(3) 편제와 운영상의 특징

제5차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는 고시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교육 목표와 편제, 각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은 총론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으로 구성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은 기초 교육의 충실,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강조, 교육과정 효율성 제고 등 네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따라서 편제와 시간 배당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 1·2학년에 있어서 통합 교과를 신설하였다.

둘째, 통합 교과에서의 1·2학년 국어, 산수는 분과하여 독립하였다.

셋째, 연간 수업 시간 수를 증가하였다.

넷째, 주당 수업 시간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였다.

다섯째, 특별 활동 시간 운영을 현실화하였다.

비록 1, 2학년으로 한정되었으나 4차 교육과정이 교과별로 분과 구성되어 있으면서 교과서만 통합되어 있던 것을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수리 기능을 체계적,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국어와 산수는 통합 교과서에서 분리 독립시키고, 나머지 교과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등의 통합 교과를 신설하여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연간, 학기간, 주간 및 일일의 교육과정 시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주당 시간은 평균적인 의미이므로 고정적,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1, 2학년의 교과 활동의 평가 결과는 활동 상황과 진보의 정도, 특징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문교부 훈령으로 되어 있

는 법정 장부인 ‘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란에 기재하는 평가 결과 기록 방법에 대한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 평가의 본질을 찾고자 한 조치라 하겠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8개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5차 교육과정에서는 조화로운 인격형성, 건전한 집단생활, 언어·수리 등의 기초기능신장, 정보처리능력과 탐구력 신장, 풍부한 정서생활, 유용한 기초기술 습득과 진로탐색 등 6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종전의 교육과정과 같이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전체구조를 갖추었는데 교과활동에서 12개 교과로 편성한 것도 전과 다름이 없었다. 다만 실업·가정과에서 남녀가 공통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술·가정」이라는 과목이 신설된 것이 달라진 점이다.

남녀 평등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남자만 이수하는 과목(기술), 여자만 이수하는 과목(가정)을 분리하는 것은 남녀간의 능력차를 인정하여 남녀평등사상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전체구조를 갖추었다. 교과활동은 제4차와 같이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는데 보통교과는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 실업, 가정의 13교과로, 전문교과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 해운, 가사, 실업, 과학, 체육, 예술에 관한 교과로 편성하였다.

(4) 5차 교육과정기 고성의 교육

1987년 11월에 3층(건평 1,397㎡)으로 된 고성군 교육청 신청사가 준공되었으며, 1990년 4월에는 겸용 학생수련원(좌련 학생수련원)이 개관하였다.

학생수가 서서히 줄어들음으로 인해 폐지 학교가 생기기 시작한 시기이다. 1987년 3월 1일자로 상리초등학교신촌분교장이 폐교되었으며, 1991년 3월 1일에는 삼곡·송의원분교장이 폐교되었다.

7) 제 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1997)

우리나라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재량 권한을 확대한 것이 제6차 교육과정이다.

1992년 9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2·15호로 고시하여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유치원 교육과정, 1992·16호로 고시하여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국민학교 교육과정(3·4학년은 1996년 3월 1일, 5·6학년은 1997년 3월 1일), 1992년 6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로 고시하여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부 고시 제1992·19호로 고시하여 1996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시행하게 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제6차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제6차 교육과정은 21세기 미래상을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은 시대적, 학문적, 개인적인 변화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체제 개선으로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 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단위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적,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하여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법규적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1) 개정의 경과

제6차 교육과정은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개편된 점에서 시대적 의미를 지니게 되고, 기초 보통 교육의 교육 내용 면에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와 교육 관계자가 개정 연구에 참여하였고, 특히 언론 보도 기관을 통해 시안 및 개발 과정이 자세히 공개됨으로써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게 되었다.

교육부에서는 개정 연구 결과를 접수하여 1992년 5월부터 10월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각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개정 시안을 송부하여 검토 의견을 종합하였으며, 정부 각 부처 관련 기관 단체 등 91개 기관에도 개정 시안을 보내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처럼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의사 결정 과정과 검토 수정 보완 정리 작업을 거쳐 1992년 6월 30일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였고, 1992년 9월 30일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고시했으며, 1992년 10월 30일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고시를 끝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2) 구성 방침

제6차 교육과정의 이론 모형은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과 미래에 적합한 현실 접근을 위해

교육과정 탐구의 현실적·상황적 패러다임을 택하여 제반 이론의 절충적, 종합적 입장으로 접근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교육법에 의하여 문서로 고시한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이 핵심으로 구성되며, 이들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 구조적 요인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된다. 특히, 교육 내용은 지식과 그것을 조직하는 사과의 양식, 생활 경험, 공동체 의식 등 제반 관련 요인들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본다.

제6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을 ‘건강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을 육성한다.

둘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한다.

셋째, 학생의 개성, 능력,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간상과 구성 방침을 토대로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은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등 네 가지로 전정되었다.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전달하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역할 분담 체제를 조정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하게 다양한 이수 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고, 필수 과목을 축소하는 한편 선택 과목을 확대하여 교육 내용의 획일성을 해소하였다.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학습량과 수준을 조정하고, 교과목 체계의 개선으로 교육 내용의 적합성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줄였다.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를 고려하고 학습과 생활의 기초 능력을 신장하며,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다.

각급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당해 학교의 학생 실태, 학부모의 요구, 교사의 구성, 학교의 시설, 지역 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상세화하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수·학습 평가 방법과 평가 방법을 실용성 있게 구성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 교육과정 진술 체계를 대폭 쇄신하였다.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으로 제시된 5차 교육과정의 교과별 체계를 바꾸어 각 과목별 성격을 분명히 밝혔고, 내용 체계를 새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며, 학년 목표를 폐지하고, 지도 방법과 평가의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으로 전환하여 의도된 교육과 실현된 교육을 접근시킴으로써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 제6차 교육과정의 기본적 정책 변화라 하겠다.

(3) 편제와 운영상의 특징

제6차 교육과정의 구조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과와 특별 활동’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편제, 시간 배당 기준, 편성, 운영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교과 특별 활동에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등 각 교과와 특별 활동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법에 국민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는 국민학교의 교육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한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 특별 활동, 학교 재량시간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학교 재량시간의 신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역화, 자율화, 다양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라 하겠다.

1, 2학년의 교과는 바른생활,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하고,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우리들은 1학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재 개발은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였다. 3-6학년의 교과는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의 9개 교과로 하였다. 각 학년별 교과, 특별 활동, 학교 재량시간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만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다.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으며, 학습 활동에서의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 공동 학습 과제를 많이 제시하여 소집단 활동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어린 시절부터 많이 가

지도록 한 점이 특색이다.

첫째,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교육을 강화하였다.

둘째, 저학년의 통합교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셋째, 고학년의 수업 시간을 감축하였다.

넷째, 생활의 기초 기능과 태도 교육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학교 재량시간을 신설하였다.

여섯째, 산수를 수학으로 교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재량 시간이 확대되었으며, 남녀를 구분하는 기술과 가정 교과를 폐지하고 기술·가정 교과를 신설함으로써 남녀를 구분하는 교육방식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는 학교의 교과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재량시간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통필수 과목을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경직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윤리를 윤리로 변경하여 이념교육에 대한 강조점을 약화시키고, 학생의 능력에 부응하는 수준별 수업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도입하였다.

(4) 부분 개정

세계화 및 교육개혁의 시대적 요청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전국의 국민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실기하기 위하여 국민학교의 교육과정 중 총론의 내용을 부분 개정하고, 최초로 국민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의 첫 시행년도인 1995년 3월부터 초등 영어 교육 시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부분 개정 기초 연구, 공청회,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심의·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1995년 11월 1일 교육부 고시 제1995-7호로 제6차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 고시하였다.

부분 개정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영어를 정규 교과로 신설하고 3~6학년에 주당 평균 2시간의 수업 시간을 배당하여 1997학년도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처음 제정된 국민학교 영어 교육은 기초적인 생활 영어의 이해와 표현 능력 신장을 목표로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음성 언어 교육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하였다. 특히 문자 교육은 음성 언어와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지도하되, 저학년에서는 문자 인식 수준으로 제한하고, 고학년에서는 음성 표현의 이해를 돕는 보조 수단으로서 문어적 표현을 다루게 하였다.

어휘는 총 500낱말 내외를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놀이 중심의 학습 활동을 강조

하였다. 또 영어 교과서의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학생들이 기초적인 생활 영어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영어 교과서는 창의와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2종 도서(검정)로 개발하기로 확정하였으며, 1995년 11월 25일 검정 공고를 한 후 1996년 10월에는 12종의 검정 교과서가 합격하여 1997년 3월부터 3학년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에까지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 것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의사소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영어 교과서의 신설로 초등학교의 교과는 10개로 늘어나게 되었으나 3학년 이상의 교수·학습 부담 증가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학교 재량시간의 감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재량시간에는 영어 교과서의 보충·심화를 할 수 없다는 지침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5) 6차 교육과정기 고성의 교육

세계화 및 교육 개혁의 시대적 요청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우리 군의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많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급격한 이농 현상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로 1992년 자란분교장, 1993년 대안·삼덕국민학교, 1994년 중생분교장, 1995년 수태·화당분교장, 1996년 양지초등학교와 병신분교장, 1997년 송계분교장이 폐교되었다.

1994년에는 고성교육청 청사 1, 2층을 증축하였으며, 광복 50주년을 맞아 정부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학교 명칭 변경을 선언하고 1996년 3월 1일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하였다.

1997년에는 학교 급식의 전면 실시로 관내 학교마다 급식소와 시설 확충에 힘썼으며, 식생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습관을 함양시키기에 노력하였다.

8)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2007)

제7차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가 발족한 이래 일곱 번째로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1997년 12월 30일에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고시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2000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01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그리고 2002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었다. 2003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에 차례로 적용되었다.

(1) 개정의 배경

1996년 2월 9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체제에 의한 교육과정 편제를 도입한다.

둘째,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셋째, 능력중심의 목표 진술 및 구체적 내용 제시를 최소화한다.

넷째, 교육과정 지원 체제를 확립한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요인은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산업·취업 구조의 변혁,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 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구성 방침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해 그 목표를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에 두었다. 내용으로는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운영면에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에 역점을 두고 제도적으로는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첫째,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둘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넷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다섯째,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여섯째,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한다.

(3) 개정 중점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과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즉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10년)으로 설정하여 학년에 따라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는 교과에 따라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으로 나누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과정·계열의 구분 없이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선택 폭을 넓힌다.

둘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학생의 능력(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 특성에 따라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 선택형 등 세 가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셋째, 재량활동을 신설·확대한다.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신장을 위한 범교과 활동 재량시간을 학교, 교사, 학생이 함께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학습량 최적화와 수준을 조정한다.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과별 최저 필수 요소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정선하고, 범위와 수준도 조정하였다. 아울러 학교 급별 이수 과목 수도 축소하였다.

다섯째,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한다. 학생이 성취해야 할 교과별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학력을 평가하였다.

여섯째, 창의성과 정보 능력을 배양한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 교육과 개방적, 창의적 교육 활동을 강화하였다.

(4) 주요 내용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수업의 도입과 학생 선택권 확대, 재량 활동시간 도입이 골자이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10년과 선택(심화)중심 교육과정 2년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10년간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필수 과목)으로 10개 과목을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르치되 학생별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교 2·3학년부터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의해 79개 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만 듣도록 하여 학생들이 학업수준과 적성에 맞게 배울 과목을 선택해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고교 2·3학년 때 전면 선택과목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전까지의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등의 구분이 원칙적으로 사라졌다.

고1 때 배우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은 국어, 도덕, 사회(국사 포함),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 10개 과목이다. 고 2·3학년 때 배우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는 일반선택과목 26개와 심화선택과목 53개 등 79개 과목이 개설된다. 즉, 초등학교부터 고교 1학년 때까지는 그야말로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공통적으로 익히게 하고, 고교 2·3학년 때는 진로에 맞춰 각자 다른 심화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초중고 과정을 똑같은 과목만 배워 전 과목 총점을 기준으로 한 교육체제의 경직성을 탈피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5)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제와 운영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10년간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중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구성되었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하며 중학교 이상은 실과를 기술·가정으로 하였다.

또한 재량활동은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되는데, 교과 재량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단위) 수는 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였다.

특별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영역별 시간(단위) 수를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배정하되, 봉사 활동과 행사 활동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더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특별 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시간(단위) 배당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 운영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6)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제와 운영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끝난 11, 12학년에 적용되며 교과와 특별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성되는데 보통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양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구성된다.

(7) 7차 교육과정기 고성의 교육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을 설정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 동안 모든 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후 2년간의 선택 중심 교육 기간에는 선택교과를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정착을 위한 연수를 관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 실시하였다.

2004학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 주 5일 수업제가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2005학년도에는 최초로 매월 4번째 토요일을 대상으로 월 1회 도입되었으며, 2006학년도부터는 매월 2, 4번째 토요일을 대상으로 월 2회로 확대되었다.

1999년 9월에는 교육감기 육상대회에서 군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2000년에는 고성 학생수련원(구 양지초등학교)이 개원하였다. 계속되는 학생 수 감축으로 1998년 3월 1일자로 좌련분교장이 폐교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일자로 포교·영동·동창분교장이 폐교되었다. 1999년 3월 1일에는 삼락·월흥초등학교와 광일·대동분교장이 폐교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일에는 대장·봉현분교장과 상동·삼오초등학교가 폐교되었고, 2003년 6월 12일에는 와도분교장이 학생의 전출로 학기 중에 폐교되었으며, 2005년에는 회화중학교구만분교장이 폐교되었다.

9)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2007~)

2007년 2월 28일에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 호로 고시된 교육과정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종전까지 전면 개정으로 이루어졌던 대한민국 교육과정 개정 체제를 수시 개정 체제로 바꾼 뒤 개정된 4번째 교육과정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기존의 차(次) 순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 아닌 2~4년에 한번 씩 수시로 개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8차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었다.

(1) 특징

이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의 과학 교과서를 새로 만들었으며,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을 늘렸다. 또한 중학교 1학년의 수학 교과서와 영어 교과서에서 단계형을 없애 통합하였으며, 수학은 수학과 수학 익힘책, 영어는 영어와 English Activities로 교과서를 나누었다.

무엇보다 국어, 도덕, 역사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변화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기존에 국가에서 한 가지 교과서만을 만들어 배포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교과서 업체에서 교과서를 개발하여 국가의 검인정을 받아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2010년 중학교 1학년 국어, 생활국어, 도덕, 중학교 2학년 역사 교과서가 검인정을 완료하여 각 단위학교에 배포되었다.

그 밖에도 체육 교과군의 독립으로 체육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며, 10학년 과학,

역사 과목 수업을 주당 한 시간씩 늘렸다. 역사 과목을 독립하여 사회과와 분리해 시수를 매김으로써 과목의 시수를 보장(7학년에서 10학년까지)하였으며, 일반 선택 교과와 심화 선택 교과를 통합하고, 다양한 선택 교과(매체언어, 동아시아사 등)를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2) 적용 연도

2007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다. 초등학교는 2009년 3월 1일 1, 2학년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중학교는 2010년 3월 1일 1학년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적용되었다. 고등학교는 2011년 3월 1일 1학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고등학교의 대부분 교과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동시에 적용되었다.

단, 수학과 및 외국어과(영어)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2006. 8. 29)에 의하여 2009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었다.

10)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 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 호로 고시된 교육과정으로, 학교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당 이수과목을 최대 5과목 줄이고 교과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예·체능 등의 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며 학교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집중이수제에 대한 폐단이 너무 많아 학기당 이수과목에서 예체능 과목을 제외시켰다.

(1) 특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습 부담의 적정화를 통한 의미 있는 학습 활동 전개, 폭넓은 인성교육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조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혁신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학년군·교과군을 고려한 최소 '필수학습내용'을 정선했다. 중복되는 내용은 한 과목에 합치고 불필요한 부분은 빼는 형태로 전체 교과 내용을 약 20% 감축했다. 필수 학습 요소 위주로 학습량을 줄이면 동일한 시간에 이론 교육이 아닌 체험·활동을 더 할 수 있게 되므로 창의·인성교육, 체험 활동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기존 공통 과정의 성격을 갖는 고1 과목 내용은 '내용의 적합성'을 따져 일부는 중3 과목으로 내려 보내고 일부는 고1 선택과목으로 정비했다.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을 마련해 수업하는 '교과교실제', 특정 기간을 정해 중점 수업을 하는 '집중이수제', 쪼개진 시간을 블록(block)으로 모아 집중해 가르치는 '블록타임제' 등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다.

(2) 적용 연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은 2011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3월 1일에 5, 6학년까지 적용되도록 하였다. 중학교는 2011년 3월 1일부터 1학년 사회과와 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1일 3학년까지 적용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는 2011년 3월 1일부터 1학년 국어·사회·과학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시작으로 2016년 3월 1일 3학년까지 적용되도록 하였다.

11) 특수 교육

(1) 특수교육의 역사

가. 개화기 이전의 특수교육

13세기 이전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행했던 기록은 없다. 그러나 고려 23대 원종(1259~1274) 때인 13세기 후반부터 맹인들이 직접 복업(卜業)에 종사하였다(고려사 130)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기록으로 세종 27년(1445) 3월 서운관에서 훈도 4~5명을 두고 10명의 맹인을 선발하여 3일에 한 번씩 음양학을 교육하였다(세종실록 107)는 기록이 남아있다.

우리의 역사에서 맹인들이 고려 때부터 점복맹(占卜盲)이나 관현맹(管絃盲)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맹인에 대한 점복교육과 관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짐작되나, 그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최초의 기록은 조선시대 관학인 서운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다.

나. 근대적 의미의 특수교육의 성립

근대적 의미의 특수교육성립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으나 역시 구한말 개화기에 주로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881년 박정양 등 신사유람단은 일본의 각종 교육기관을 보고하는 가운데 맹아원에 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문서상으로 특수교육이 소개된 최초의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특수아동을 위한 교육이 시작된 것은 1894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이며 의사인 홀(R. S. Hall) 여사가 맹인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평양여맹학교를 설립하면서부터이다. 1903년에는 「Moffett」에 의해 평양에 최초의 남자 맹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09년

에는 평양여맹학교에 농아부가 설립되면서 교명도 평양맹아학교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한국 특수교육의 성립은 모두 외국 선교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처음부터 이들은 구미 선진 특수교육 방법을 채택하여 통합교육의 방향을 취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다. 일제강점기의 특수교육

1912년 조선총독부는 제생원 내에 양육부와 맹아부를 두었는데 양육부는 주로 고아를 양육 보호하고, 맹아부는 맹아와 농아에게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반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최초의 특수학급은 1937년 서울 동대문 공립 초등학교의 병허약아(病虛弱兒)학급으로 밝혀지고 있다. 비록 일본인에 의한 것이지만 최초의 공립 특수학급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라. 광복 후의 사립 특수학교 설립

1945년 민족의 광복과 더불어 민주교육이 추진됨에 따라 특수교육에 있어서도 제도적 정비를 하게 되었다.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 특수학교의 설치 의무와 일반학교내의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여 특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법제도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었고, 오히려 1950년대를 전후하여 민간 독지가에 의한 사립 특수학교가 많이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들 사학이 한국 특수교육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해방 후 최초로 설립된 사립 특수학교는 1946년 4월에 이영식 목사가 대구에 설립한 대구맹아학원(광명, 영화학교의 전신)이다. 대구맹아학원은 제생원 맹아부 출신 박영생 등이 교사로 부임하여 대구 중앙교회 하층에서 맹여학생 2명과 농학생 12명을 수용하여 첫 수업을 시작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맹·농교육은 비교적 일찍 시작된 반면에 정신지체아나 지체부자유아 교육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국 최초의 지체부자유아 학교는 1964년에 설립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아재활원 초등학교이며, 정신박약자학교는 1966년의 대구보명학교가 최초이다.

마. 공적책임의 확대기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1970년대 들어서야 공적책임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 UN은 제30차 총회에서 '장애인 권리선언'을 결의하고, 1976년에는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

로 결의하여 선포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를 배경으로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 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임무를 규정하였다. 이 법은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지체자,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자, 언어장애자, 기타 심신장애자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과거에 비해 특수교육기관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특수교육을 받게 된 장애아동의 수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그 방향의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이루어져 온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분리교육만으로는 학교 졸업 이후 장애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도 이제 일반학급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세계의 통합교육이라는 추세를 지향하는 바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교육 원래의 모습을 되살리자는 움직임이라는데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2) 특수교육 현황

(1)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교육시설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각각의 공민학교 등 각종 학교로 구분된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에서는 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의 과정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수학교는 19세기 말 이후로 선교사들에 의해 전개된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광복 후 최초로 1946년 4월에 설립된 사립 특수학교로는 대구에 소재한 대구맹아학원으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구 영화학교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구 광명학교의 전신이다. 초창기의 특수학교들은 장애인 보호시설에 병설된 교육기관의 성격인 것이 많았다.

특수학교는 초창기부터 사립교육기관으로서 대부분 설립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총 150개교 중 국립 5개교, 공립 55개교, 사립이 90개교로써 사립 의존도가 높다. 특수학교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발전상과 더불어 그 수가 증가되어 1962년에 10개교, 1972년에 38개교, 1982년에 65개교, 1990년에 102개교, 2000년에 129개교, 2010년에 150개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서비스 전반에서 사회통합 강조 추세와 통합교육의 지속적 강조의 영향으로 앞으로 분리교육 환경인 특수학교 수의 증가는 둔화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성립 및 전개시기에 보여주었던 특수학교 중심의 특수교육 발전 추진력은 약화될 전망이다. 기존의 특수학교들에 대해 분리교육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변화 요청이 가중될 것이다.

(2) 특수학급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대상 학생이 신체적 또는 지적으로 표준과는 거리가 있고, 교육의 내용·방법이 통상의 학급과는 다르며, 교육장소가 특별히 설치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특수학급이라 부른다. 그러나 간혹 특수학급이라는 용어가 형태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모멸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이다(2조 11호). 여기서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의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2조 6호).

특수교육 대상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선정한다.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15조).

각급 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소정의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21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숫자에 따라 각급 학교간에 차이가 있다. 유치원 과정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1~4인 이하인 경우에는 1학급을, 4인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1~6인인 경우에 1학급을, 6인 이상인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고등학교 과정은 1~7인인 경우에 1학급을, 7인 이상인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7조).

특수학급의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특수교

사가 담당한다. 특수교사는 대학의 특수교육과나 관련학과 또는 대학원 등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로 나뉜다.

(3) 재택·순회교육

재택·순회교육은 특수교사 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순회 교육은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부터 법률에 명시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란 장애아동을 특수학교에 격리 수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일반아동과 공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아동과 같은 학급에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으며, 장애아동과 일반아동과의 수준 높은 공학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특별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반 학급에 방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일반아동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학습을 함께 하고 있지만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이란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으로 강구하여 일반 아동과 함께 교육함으로써, 장애아동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통합교육의 형태는 자료실방식(resource room plan), 협력학급방식(cooperative plan), 고정학습방식(day-school plan), 순회교육방식 등이 있다.

3) 고성의 특수교육

(1) 현황

고성군의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1974년 대성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이 개설되었으며, 특수학교는 없다.

2014년 12월 현재 특수학급 수는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10학급, 중학교 7학급, 고등학교 1학급 등 총 19개 학급이 편성되어 있으며, 학생 수는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까지 포함하여 89명이다.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일반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은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통영잠포학교에 입학하여 통학버스로 등·하교하면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고성군의 특수학급 현황>

(2014년 12월 현재)

순	학교명	설립년도	학급수	학생수		
				남	여	계
1	고성유치원	2012	1	4	0	4
2	고성초	1975	1	7	3	10
3	철성초	2010	1	3	1	4
4	대성초	1974	1	3	4	7
5	삼산초	2010	1	2	0	2
6	하일초	2013	1	2	0	2
7	하이초	1984	1	2	2	4
8	회화초	1981	1	2	1	3
9	동해초	1986	1	2	1	3
10	거류초	1986	1	2	3	5
11	방산초	2010	1	1	2	3
12	고성중	1994	2	11	0	11
13	고성여중	1985	1	0	5	5
14	고성동중	2014	1	6	1	7
15	회화중	2009	1	4	1	5
16	영천중	2012	1	3	0	3
17	하일중	2010	1	2	0	2
18	고성중앙고	2013	1	9	0	9
계			19	65	24	89

(2) 특수교육지원센터

고성군의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고성특수교육지원센터가 2005년부터 옛 고성도서관(고성을 성내로 79번길 10)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고성특수교육지원센터는 순회교육 대상자 및 특수학급 학생의 추가적인 교육 지원과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과 관련한 각종 상담(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가. 연혁

- 2006. 03. 고성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고성초등학교 내)
 - 순회전담강사 1명, 치료순회전담강사 1명
- 2006. 05. 고성특수교육지원센터 개소식
- 2007. 02. 고성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고성교육청 내)
- 2007. 11. 제1회 통합캠프 실시(단비도예마을)
- 2009. 12. 선진특수교육기관 견학(대구보명학교, 대구영화학교, 대구보건학교)
- 2013. 03. 특수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완료 및 이전

나. 활동 내용

가) 특수교육지원활동 지원

-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교수전략 및 방법 지원
-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
- 순회교육 대상학교 지도 및 치료지원 제공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 지원

- 장애아 조기발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및 정보 수집 관리
- 유아 발달진단 결과 정보 관리

다) 특수교육 자료 및 공학기기 대여

- 학교생활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 특수교육 관련 자료 대여(소프트웨어, 교재/교구 등)

라) 특수교육관련 상담

- 특수교육 관련한 각종 상담(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 상담
- 마)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지원
 - 장애아동 발달진단검사 및 진단 검사 지원(신청서 제출)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결과 분석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배치,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결정

12) 유아 교육

(1) 우리나라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은 1897년 일본인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일본인이 설립한 부산유치원이다. 1913년에는 한국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서울에 경성유치원이 설립되었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유치원이 설립되었는데,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교육법, 1949. 12. 31. 법률 제86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에 관한 규정은 1922년 조선교육령이며, 1936년 학무국 학무과에서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946년 학무국이 문교부로 승격, 보통 교육국 초등교육과에서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군정 법령 제64호에 명시되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47년 전국에 유치원 165개가 설립되었으며, 4~5세를 대상으로 수업 연한은 2년이었다. 정부 수립 후 제정된 교육법(법률 제86호, 1949. 12. 31.)은 4세 이상의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게 수업 연한 1년 이상의 유아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유치원의 직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과 교사를 두기로 되어 있다.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는 원장을 대리하며, 교사를 원아를 보육하도록 되어 있다.

유치원의 양적 변화를 보면, 1980년도까지 전국에 900여 개의 유치원이 존재하였다. 이 가운데 90% 이상의 유치원들이 사립인 것으로 보아 유아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약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에 들어서면서 유치원이 조금 증가하였으며, 사립 유치원이 감소하는데 비해 공립 유치원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교육통계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52,546명의 어린이가 8,826개의 공·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교원 수도 48,5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유아 교육에 관한 통계 자료는 1960년부터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는 유치

원 관련 법령과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되어 법적으로 교육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국가의 관심이 적었던 시기였으므로 주로 사립 유치원 중심으로 유아 교육이 이루어졌고, 유치원 수도 적었다.

1960년대 이후 유치원 수를 보면 1960년에 부산시를 포함하여 61개원, 1970년 41개원(부산시 제외), 1980년 77개원, 1990년 1,011개원, 2000년 686개원, 2014년 682개원이다.

1981년부터 유아 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을 이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자 급격하게 유치원 수가 증가하다가 농어촌 인구의 감소, 유아 교육 행정 체제 이원화, 저출산 현상으로 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1995년부터는 유치원도 감소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원아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조금씩 줄고 있으며, 교원 수도 점차 증가하다가 2004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교육통계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경상남도에는 682개의 공·사립유치원이 있으며, 공립 11,461명과 사립 37,750명 등 49,011명의 어린이가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수는 공립 1,195명과 사립 2,255명 등 3,745명인데 그 중 여교원이 3,67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 고성군

경상남도교육청의 취학 전 교육 강화 계획에 따라 본군에서도 1970년 후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 동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거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회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었다. 이어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이 1980~1985년 사이에 설립되었는데, 1980년 7개원, 1981년에 9개원, 1982년에 1개원, 1983년에 4개원, 1985년에 5개원, 1987년에 1개원이 설립되었고, 1991년에는 고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립됨으로써 고성군의 전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개원을 하게 되었다.

1991년에는 내무부 소관의 새마을 유아원이었던 송학유치원과 신흥유치원이 교육부 소관의 공립유치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립유치원은 1980년에 아량유치원, 1983년에 신명유치원, 1987년에 은혜유치원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다.

2014년 9월 현재 단설유치원 1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17원 등 18개 공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없다. 학급 수는 26학급(특수 1학급 포함)에 32명의 교원이 339명의 원아를 돌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이 33개가 있으며, 정원은 1,795명이다. 유형별로는 국공립 3개, 법인이나 단체 4개, 나머지는 민간이나 개인 또는 가정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 2장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제 1절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의 기본 현황

1) 청사 현황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의 청사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08에 위치하고 있다. 1987년 11월 30일 현재의 청사를 3층(1,397㎡)으로 준공하였으며, 1994년 2월 28일 1, 2층 141㎡를 증축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청사>

현재 청사의 규모는 5,017㎡의 대지 위에 지상 3층과 지하 1층의 현대식 건물 1,397㎡로 축조되었다.

지상 1층에는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의 두 사무실과 과장실, 당직실, 설계실, 문서수발실 등이 양쪽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층에는 교육장실, 문서고, 전산실, 컴퓨터연수실 등이 위치하고, 3층에는 회의실과 체력단련실이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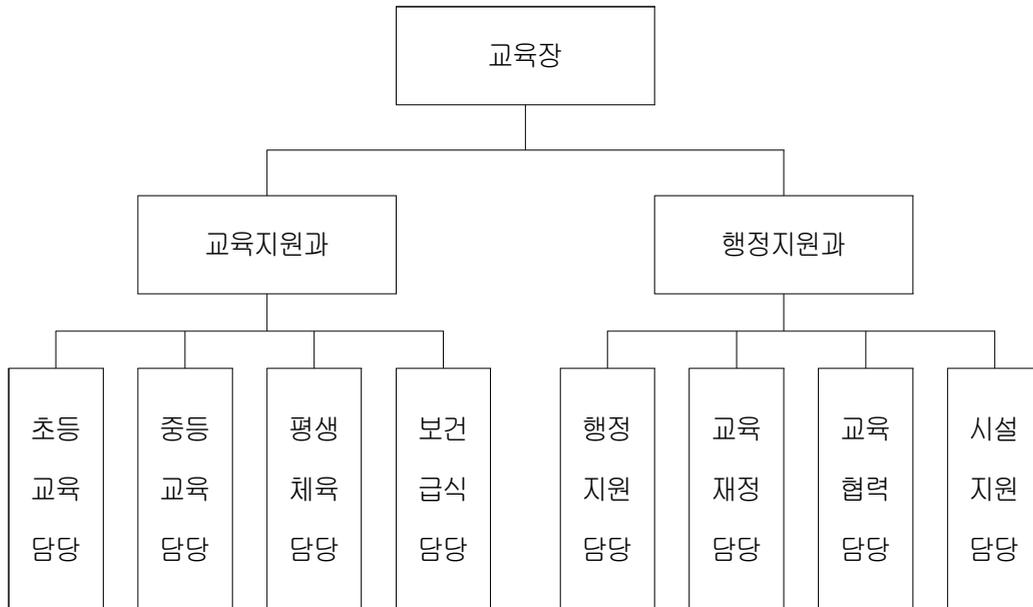
지하 1층은 설비 관련 기계실을 비상시의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를 위한 상설 공간으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건물 전면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후면의 부지는 체력단련을 위한 배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연혁

1949. 05. 26.	· 교육법 제정으로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법률 제86호)
1952. 06. 04.	·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교육구 발족
1957. 10. 05.	· 교육청 청사 신축(구 청사)
1962. 01. 06.	· 교육법 개정에 의해 고성군 교육과로 발족
1963. 11. 01.	· 교육법 개정에 의해 시·군 교육자치제 부활
1987. 11. 30.	· 교육청 신 청사(현 청사) 준공
1990. 06. 27.	· 고성도서관 개관(352석)
1991. 03. 26.	· 경상남도고성교육청으로 개칭
1992. 03. 01.	· 2과 7계로 조직 개편
1992. 04. 01.	· 겸용 학생수련원 개원(좌편학생수련원)
1994. 02. 28.	· 교육청 청사(현 청사) 증축
1996. 03. 01.	·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
1999. 09. 22.	· 교육감기 육상·체조·수영대회 군부 종합우승
2000. 03. 01.	· 2과 8담당으로 조직 개편
2000. 08. 24.	· 고성학생야영수련원 개원(구 양지초등학교)
2001. 03. 01.	· 2과 9담당으로 조직 개편
2002. 08. 30.	· 고성폐지학교지 발간
2005. 08. 31.	· 고성교육사 발간
2010. 09. 01.	·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개칭
2013. 01. 01.	· 2과 8담당 1센터로 조직 개편

3) 직제 및 직원 현황

(1) 직제



(2) 직원 현황

교육전문직		교사		일반직					연구사	기타	합계
장학관	장학사	특수	상담	5급	6급	7급	8급	9급			
2	6	1	1	1	5	10	8	1	1	14	50

(3) 학교 현황

(2015. 9. 1. 기준)

구 분		학교수(분교)	학급수(특수)	교원수	학생수(특수)	
초등 학교	공립	19	165(10)	251	2,198(38)	
중학교	공립	본 교	8	51(7)	121	1,066(24)
		분 교	(1)	3	9	35(1)
	사립	1	8	18	214(1)	
	계	9(1)	62(7)	148	1,211(26)	
고등 학교	공립	2	37(1)	82	952(15)	
	사립	2	31	70	852(10)	
	계	4	68(1)	152	1,804(25)	
합	계	32(1)	295(18)	551	5,213(89)	
유치원	단설	1	9(1)	13	156(6)	
	병설	17	17	19	147	
	계	18	26(1)	32	303(6)	

(4) 예산 현황(2015학년도)

(단위: 천원)

구 분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합계
예산액	19,069,439	169,801	587,557	19,826,797

4) 역대 교육장

대	성명	재임 기간	비고
1	이만수	1952. 09. 03. ~ 1958. 09. 22.	교육감
2	김용태	1958. 09. 23. ~ 1961. 03. 06.	"
3	황문도	1961. 03. 07. ~ 1964. 03. 26.	"
4	이봉렬	1964. 03. 26. ~ 1967. 03. 31.	교육장
5	김경조	1967. 04. 01. ~ 1968. 03. 19.	"
6	박일	1968. 03. 20. ~ 1970. 04. 14.	"
7	황문도	1970. 04. 15. ~ 1976. 02. 28.	"
8	박덕기	1976. 03. 01. ~ 1979. 04. 05.	"
9	서규대	1979. 04. 06. ~ 1980. 02. 28.	"
10	이영주	1980. 03. 01. ~ 1981. 08. 31.	"
11	이각	1981. 09. 01. ~ 1983. 02. 28.	"
12	강대철	1983. 03. 01. ~ 1985. 02. 28.	"
13	허만현	1985. 03. 01. ~ 1989. 02. 28.	"
14	김충곤	1989. 03. 01. ~ 1990. 02. 28.	"
15	심재위	1990. 03. 01. ~ 1992. 08. 31.	"
16	최옥집	1992. 09. 01. ~ 1995. 08. 31.	"
17	안종정	1995. 03. 01. ~ 1997. 08. 31.	"
18	김용태	1997. 03. 01. ~ 1998. 08. 31.	"
19	이동식	1998. 09. 01. ~ 1999. 08. 31.	"
20	안인구	1999. 09. 01. ~ 2000. 08. 31.	"
21	옥정호	2000. 09. 01. ~ 2002. 08. 31.	"
22	류정빈	2002. 09. 01. ~ 2003. 08. 31.	"
23	강상렬	2003. 09. 01. ~ 2005. 08. 31.	"
24	차해숙	2005. 09. 01. ~ 2006. 08. 31.	"
25	이삼화	2006. 09. 01. ~ 2007. 08. 31.	"
26	이정섭	2007. 09. 01. ~ 2008. 08. 31.	"
27	윤맹기	2008. 09. 01. ~ 2010. 02. 28.	"
28	성정기	2010. 03. 01. ~ 2011. 02. 28.	"
29	정경훈	2011. 03. 01. ~ 2012. 08. 31.	"
30	김형규	2012. 09. 01. ~ 2014. 02. 28.	"
31	함기호	2014. 03. 01. ~ 2015. 02. 28.	"
32	김정희	2015. 03. 01. ~	"

5) 사업소(고성도서관) 현황



<고성도서관>

(1)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95번길 6

(2) 연혁

- 1989. 12. 01. 고성군립도서관 설치 조례 공포
- 1989. 12. 18. 도서관 건물 준공
- 1990. 06. 27. 고성도서관 개관
- 2012. 10. 04. 고성도서관 신축이전 개관식

(3) 직원 현황

구분	사서직					행정직	특수행정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7급		
인원	1	3	3	0	0	1	1	9

(4) 시설 현황

- 1층: 관장실, 행정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 2층: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북카페
- 3층: 자유학습실, 문화강좌실1·2, 휴게실
- 지하1층: 시청각실, 세미나실, 보존서고

(5) 자료 현황

가. 도서

(2014. 8. 현재)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일반도서	2,087	3,282	1,277	8,237	1,810	3,670
어린이도서	1,034	615	287	2,417	3,616	592
참고도서	289	12	7	292	84	107
논문	74	3	6	56	8	31
향토	1	0	0	6	0	0
다문화	0	0	0	87	0	0
합계	3,485	3,912	1,577	11,095	5,518	4,400
비율(%)	4.53	5.09	2.05	14.44	7.18	5.73

구분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총계
일반도서	2,532	1,514	17,017	3,953	45,379
어린이도서	614	1,969	15,547	2,904	29,595
참고도서	292	116	23	325	1,547
논문	13	1	6	11	209
향토	6	0	1	17	31
다문화	0	0	0	0	87
합계	3,457	3,600	32,594	7,210	76,848
비율(%)	4.50	4.68	42.41	9.38	100%

나. 비도서

(2014. 8. 현재)

구분	E-BOOK	VOD	DVD	CD-ROM	웹콘텐츠	디지털토킹북	오디오북	총계
수량	4,322	522	4,460	639	16	42	57	10,058

(6) 이용 시간

구분	월요일	화~금요일	토~일요일
종합자료실	휴실	09:00 ~ 18:00	09:00 ~ 17:00
어린이자료실/유아자료실	휴실	09:00 ~ 17:00	
디지털자료실	휴실	08:00 ~ 22:00	
자유학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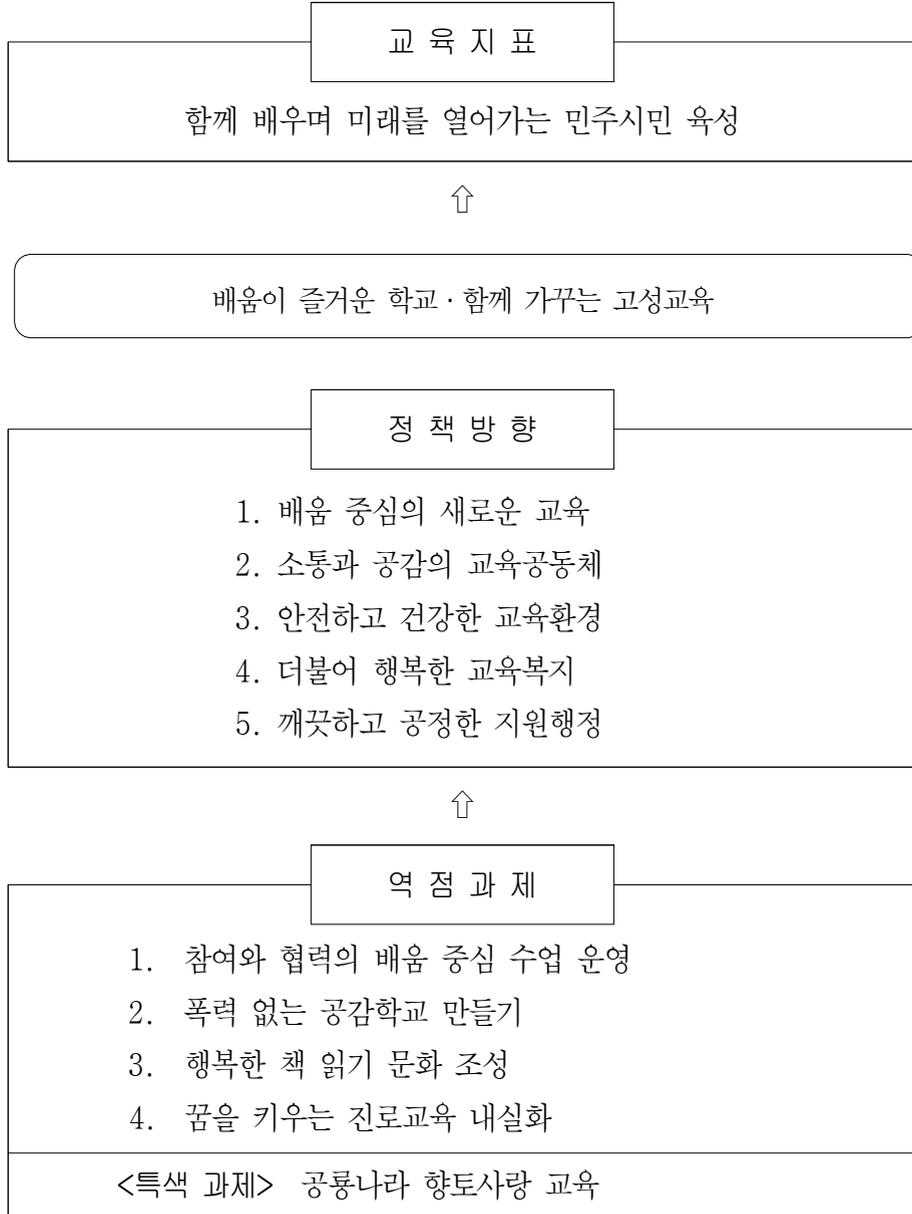
(7) 휴관일

가. 자료실: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나. 자유학습실: 법정공휴일

제 2절 교육지표 및 역점과제(2015학년도)

1) 교육지표 및 시책



2) 정책방향 추진계획

(1)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가. 구현 방향

개인의 꿈과 끼를 살리며, 소질을 계발하는 학교교육을 위해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국제화 교육 및 진로·진학 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성을 가진, 스스로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한다.

나. 중점 내용

가) 배움이 즐거운 교실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 지원
- 배움이 즐거운 교육활동 전개
- 경남교육 사이버도서관 활용
- 미래형 지식정보화 교육 구현

나) 행복학교 운영 지원

- 행복학교 공모 및 운영 지원
- 배움 중심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다)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 교육

- 과학 교육 내실화
- 융합 인재 교육 활성화
- 영재 교육 활성화
- 환경 생태 교육 활성화
- 수학 교육 활성화

라)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
- 행복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기능 재정립

마) 질 높은 유아 교육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충실
-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 미래형 학교 기반 조성
- 유아교육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
- 유아교육 협력체제 활성화

바) 맞춤형 특수 교육

- 특수교육력 제고
- 선진화된 특수교육 지원
- 장애학생 복지 지원 강화
- 전환 교육 지원 확대

사) 맞춤형 진로·진학·직업 교육

- 진로·진학 지원 체제 구축 운영
- 진로·진학 체험활동 활성화
- 고품격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

(2)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가. 구현 방향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 민주 시민 의식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중점 내용

가)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 학교 내 자치 조직 기능 강화
- 학생 자치활동 내실화
-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나)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 나눔과 배려의 교육 기부 확산

- 교육공동체 중심의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
- 학부모 교육 참여 활동의 활성화
- 교육 정책 홍보 강화

다)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

- 학교 시설 지역민 개방
- 생애 단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성장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좌 개설

라) 상호문화 이해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상호문화 이해교육
- 실용 중심 외국어 교육 강화
- 국제 교류·교육 활성화

마) 나라 사랑 교육

- 호국·보훈 교육 강화
- 역사 및 지리 교육 강화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가. 구현 방향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기본 체력 증진과 소질 및 적성을 길러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미래사회에 대비한 경쟁력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나. 중점 내용

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 학교 주변 유해 시설 및 학교 내 노후 시설 관리
-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강화
- 실내 교육 환경 개선 내실화
- 재난대응 안전교육 강화

나)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관계 회복 인성교육 및 상담활동 강화
- 학교폭력 예방 기반 구축
-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정서 조절과 소통 중심의 공감학교 운영
-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학생 생활지도

다)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학교 체육 활성화
- 올바른 자세 관리로 학생 건강 확보

라) 포근한 보건교육

- 학교 보건 관리 기반 조성
- 건강한 수면권 확보
- 학생 건강 관리

마) 안전한 건강 급식

- 질 높은 학교 급식 지원
-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 올바른 식생활 교육 강화

바) 건강한 교육 환경 구축

-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선진화

(4) 더불어 행복한 교육 복지

가. 구현 방향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층간·지역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을 구현하며, 시대적 상황과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으로 누구나 꿈을 향해 매진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나. 중점 내용

가) 농어촌 지역 교육 살리기

- 지역문화예술 교육 지원
- 농어촌 지역 맞춤형 진학지도
- 농산어촌 학교 EBS 방송 및 ICT활용 학습 여건 개선

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계층·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다)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체육복, 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
- 학생 교육활동 학습준비물 제공

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 개선

- 고용 안전 추진 강화
- 지속적 처우 개선

마)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 교육

- 문화예술 및 체험활동 기회 확대
- 실천 중심의 예술교육

(5)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 행정**가. 구현 방향**

함께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신뢰받는 교육행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 교육정책 수립 등에 교육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문화를 조성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 구현에 노력한다.

나. 중점 내용

가) 교직원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

- 교직원 업무경감 기반 조성
- 공문서 감축
- 현장 정착 및 환류

나)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조직·정원의 효율적 운영

다) 청렴도 향상

-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
- 교육 시설 공사 전 과정 공개
- 예방과 지도 감사 강화

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 서비스

-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공공 정보 공개 활성화
- 교육역사문화 기록 관리 체계 구축
- 고객 중심 민원 서비스 강화
- 소통·공유의 정보 시스템 운영
- 소통·공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마)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건전한 교육재정 기반 조성
- 효율적인 재정 관리
-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는 사학 육성

바) 합리적인 인사 제도 운영

- 교원 인사 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

사)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 기관 평가 방법 혁신

-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

3) 역점과제 추진계획

(1) 참여와 협력의 배움 중심 수업 운영

가. 구현 방향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과 맞춤형 교수·학습 전개를 바탕으로 기초·기본학습 능력을 기르며, 학력향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나. 중점 내용

- 가) 배움 중심의 수업공개 활성화
- 나) 배움 중심 수업연구·연수활동 강화
- 다) 기초학력 관리 및 지원

(2)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가. 구현 방향

바람직한 학교 문화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건전한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예방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

나. 중점 내용

- 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나)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지원
- 다) 체험 중심의 감성교육

(3)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가. 구현 방향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의 활성화 및 군민과 함께 하는 독서 운동 캠페인을 통하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행복한 미래를 스스로 가꾸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

나. 중점 내용

- 가) 독서 문화 인프라 구축

- 나) 행복한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 군민과 함께 하는 책 읽기

(3)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 내실화

가. 구현 방향

진로·진학교육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로·진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구현함으로써 꿈과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창의 인재를 육성한다.

나. 중점 내용

- 가) 진로 지원 체제 및 연수 강화
- 나) 진로 체험 활동 활성화

4) 특색과제 추진계획

◀ 공룡나라 향토사랑 교육 ▶

가. 구현 방향

자연환경과 유적, 산업, 전통문화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 선현들의 가르침과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나. 중점 내용

- 가) 오니(濫)의 고성사랑 체험활동
- 나) 고니(故)의 전통문화 계승교육
- 다) 지니(知)의 뿌리 찾기 교육
- 라) 시니(新)의 그린토피아 생명환경 교육

제 3장 고성의 학교 현황

제 1절 유·초등학교 현황

고성유치원

고성초등학교

철성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율천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하일초등학교

하이초등학교

상리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영현초등학교

영오초등학교

개천초등학교

구만초등학교

회화초등학교

마암초등학교

동해초등학교

거류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방산초등학교

고 성 유 치 원

고성군 거류면 송산로 111
 ☎ 원장실 673-9348, 교무실 673-9349, 행정실 673-9347



1. 유치원 연혁

2006. 02. 28.	고성유치원 설립 인가 (7학급 : 특수반 1학급 포함)
2006. 03. 01.	고성유치원 개원
2006. 03. 01.	경상남도고성교육청 지정 시범유치원 운영
2012. 03. 01.	2학급 증설 인가(9학급 : 특수반 1학급 포함)
2013. 03. 01.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연구 유치원 운영(1년간)
2013. 09. 01.	소규모 체험학습장 개관
2015. 02. 17.	제9회 수료 및 졸업(수료 61명, 졸업 96명)

2. 유치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특수)	원아수			교직원수		
	남	여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9(1)	85	71	156(6)	16	15	31

3. 역대 원장

대	성명	기간
1	전 경 옥	2006. 03. 01. ~ 2009. 02. 28.
2	권 경 희	2009. 03. 01. ~ 2012. 02. 28.
3	신 영 애	2012. 03. 01. ~ 2014. 02. 28.
4	박 다 미	2014. 03. 01. ~ 2015. 08. 31.
5	권 경 희	2015. 09. 01. ~

고 성 초 등 학 교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85
☎ 교장실 673-7286, 교무실 673-7284~5, 행정실 673-7287



1. 학교 연혁

1906. 12. 01.	사립 보명학교 설립(2학급)
1909. 11. 01.	보명학교, 대성학교, 향교 병합(3학급)
1910. 06. 01.	사립 대성보명학교로 명칭 변경
1911. 06. 01.	공립 고성보통학교로 명칭 변경
1938. 04. 01.	고주 공립 심상소학교로 명칭 변경
1941. 04. 01.	고주 공립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1946. 09. 01.	고성 공립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1950. 06. 01.	고성국민학교로 명칭 변경
1950. 09. 02.	6·25전쟁으로 본관 및 부속건물 전소
1971. 12. 20.	강당 준공
1988. 12. 20.	본관 10교실 개축
1996. 03. 01.	고성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2006. 12. 01.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2015. 02. 12.	제104회 졸업식(총 20,433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34(1)	409	411	820	.	46	20	66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丹性寺澤次郎	1911. 11. 01. ~ 1915. 05. 20.
2	大平郡治	1915. 05. 21. ~ 1919. 07. 10.
3	菊池印十郎	1919. 07. 11. ~ 1923. 03. 27.
4	市野喜久治	1923. 03. 28. ~ 1926. 04. 20.
5	中尾彦助	1926. 04. 21. ~ 1928. 03. 30.
6	兒玉清彦	1928. 03. 31. ~ 1935. 03. 30.
7	池田芳榮	1935. 03. 31. ~ 1938. 03. 30.
8	山口環	1938. 03. 31. ~ 1942. 03. 30.
9	高木佐太郎	1942. 03. 31. ~ 1945. 09. 27.
10	서정실	1945. 09. 28. ~ 1946. 08. 30.
11	김정규	1946. 08. 31. ~ 1950. 11. 19.
12	노성식	1950. 11. 20. ~ 1953. 03. 30.
13	정용무	1953. 03. 31. ~ 1959. 03. 30.
14	주기영	1959. 05. 29. ~ 1960. 09. 27.
15	권재흡	1960. 09. 28. ~ 1962. 02. 27.
16	이상우	1962. 02. 28. ~ 1968. 03. 19.
17	김정규	1968. 03. 20. ~ 1969. 08. 31.
18	김홍배	1969. 12. 04. ~ 1974. 02. 28.
19	류성갑	1974. 03. 01. ~ 1979. 02. 28.
20	정진규	1979. 03. 01. ~ 1983. 08. 31.
21	윤병선	1983. 09. 01. ~ 1988. 08. 31.
22	이종배	1988. 09. 01. ~ 1991. 05. 21.
23	강병륜	1991. 06. 18. ~ 1993. 02. 28.
24	이유석	1993. 03. 01. ~ 1997. 08. 31.
25	김삼규	1997. 09. 01. ~ 2000. 02. 29.
26	홍성수	2000. 03. 01. ~ 2003. 02. 28.
27	김종철	2003. 03. 01. ~ 2005. 02. 28.
28	백명흠	2005. 03. 01. ~ 2009. 02. 28.
29	천강우	2009. 03. 01. ~ 2012. 08. 31.
30	허종철	2012. 09. 01. ~

철 성 초 등 학 교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1
☎ 교장실 674-8111, 교무실 674-8112, 행정실 674-8114



1. 학교 연혁

1944. 07. 26.	고주제2공립 초등학교 설립 인가
1944. 08. 21.	개교(재적 36명, 고성읍 동외리 구 공회당)
1947. 04. 01.	철성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1948. 07. 21.	제1회 졸업식
1950. 10. 10.	현 본교 위치로 이전(월평리 953번지)
1983. 03. 15.	병설 유치원 개원
1990. 11. 17.	본관 10개 교실 및 현관 개축
1994. 10. 17.	급식학교 지정
1996. 03. 01.	철성초등학교로 개칭
1996. 12. 07.	다목적실 및 2개 교실 증축
2003. 11. 11.	인성교육 군 시범학교 보고회 개최
2015. 02. 13.	제68회 졸업식(총 3,625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7(1)	26	23	49	17	13	15	28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추 의 수	1945. 09. 24. ~ 1947. 03. 31.
2	김 정 규	1947. 04. 01. ~ 1947. 12. 31.
3	정 종 희	1948. 01. 01. ~ 1948. 03. 31.
4	서 학 조	1948. 04. 01. ~ 1948. 05. 17.
5	김 성 조	1948. 05. 18. ~ 1948. 08. 31.
6	강 제 종	1948. 09. 01. ~ 1950. 05. 31.
7	유 도 선	1950. 06. 01. ~ 1950. 10. 20.
8	김 정 규	1950. 10. 21. ~ 1952. 09. 15.
9	정 호 영	1952. 09. 16. ~ 1953. 12. 19.
10	이 돈 섭	1953. 12. 20. ~ 1955. 05. 31.
11	최 성 렬	1955. 06. 01. ~ 1956. 08. 15.
12	신 양	1956. 08. 16. ~ 1958. 09. 12.
13	정 주 숙	1958. 09. 13. ~ 1961. 10. 05.
14	정 진 규	1961. 10. 06. ~ 1966. 10. 15.
15	빈 윤 옥	1967. 01. 21. ~ 1974. 02. 28.
16	천 명 호	1974. 03. 01. ~ 1976. 08. 31.
17	허 문 도	1976. 09. 01. ~ 1981. 02. 28.
18	정 천 생	1981. 03. 01. ~ 1983. 08. 31.
19	이 종 배	1983. 09. 01. ~ 1988. 08. 31.
20	안 승 덕	1988. 09. 01. ~ 1991. 02. 28.
21	김 봉 규	1991. 03. 01. ~ 1994. 02. 28.
22	김 원 호	1994. 03. 01. ~ 1996. 08. 31.
23	최 광 영	1996. 09. 01. ~ 1999. 08. 31.
24	안 병 성	1999. 09. 01. ~ 2000. 08. 31.
25	이 태 호	2000. 09. 01. ~ 2001. 08. 31.
26	김 남 인	2001. 09. 01. ~ 2003. 08. 31.
27	조 평 규	2003. 09. 01. ~ 2005. 02. 28.
28	목 정 근	2005. 03. 01. ~ 2006. 02. 28.
29	안 용 문	2006. 03. 01. ~ 2007. 02. 28.
30	최 은 재	2007. 03. 01. ~ 2010. 02. 28.
31	강 홍 우	2010. 03. 01. ~ 2012. 02. 28.
32	이 성 우	2012. 03. 01. ~ 2014. 02. 28.
33	박 승 모	2014. 03. 01. ~

대 성 초 등 학 교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51번길 60
☎ 교장실 673-5101, 교무실 673-5102~3, 행정실 673-5104



1. 학교 연혁

1924. 04. 05.	일본인 소학교 개교
1946. 04. 01.	대성국민등학교 개교 인가(개교기념일)
1947. 07. 17.	제1회 졸업식(24명)
1956. 06. 12.	울천국민학교 본교에서 분리
1991. 03. 01.	삼곡분교장 본교에 통폐합
1996. 03. 01.	대성초등학교 교명 개칭
1999. 02. 28.	광일분교장 본교에 통폐합
2009. 11. 01.	대성역사관 개관
2012. 03. 01.	도 생명환경교육 연구학교
2013. 12. 11.	주5일수업제 우수학교 선정
2013. 12. 26.	운동하는 학교 우수학교 선정
2015. 02. 13.	제69회 졸업식(10,344명)

2. 학교 현황

(2015.12. 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21(1)	281	245	526	·	35	23	58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김정규	1946. 04. 30. ~ 1946. 08. 29.
2	정중희	1946. 08. 30. ~ 1947. 10. 19.
3	서학근	1947. 10. 20. ~ 1948. 08. 14.
4	김종우	1948. 08. 15. ~ 1950. 11. 29.
5	최중달	1950. 11. 30. ~ 1952. 09. 14.
6	강홍근	1952. 09. 15. ~ 1961. 10. 04.
7	이봉렬	1961. 10. 05. ~ 1964. 03. 31.
8	김현순	1964. 04. 01. ~ 1965. 06. 20.
9	김성조	1965. 06. 21. ~ 1966. 10. 18.
10	정진규	1966. 10. 19. ~ 1969. 12. 03.
11	류성갑	1969. 12. 04. ~ 1974. 02. 28.
12	빈윤옥	1974. 03. 01. ~ 1976. 08. 31.
13	정진규	1976. 09. 01. ~ 1979. 02. 28.
14	허상복	1979. 03. 01. ~ 1982. 12. 31.
15	박갑진	1983. 01. 01. ~ 1989. 08. 31.
16	김원호	1989. 09. 01. ~ 1994. 02. 28.
17	심재위	1994. 03. 01. ~ 1996. 02. 28.
18	이상석	1996. 03. 01. ~ 1999. 02. 28.
19	박충목	1999. 03. 01. ~ 2000. 08. 31.
20	이상근	2000. 09. 01. ~ 2002. 02. 28.
21	안병성	2002. 03. 01. ~ 2003. 08. 31.
22	김남인	2003. 09. 01. ~ 2006. 02. 28.
23	목정근	2006. 03. 01. ~ 2008. 08. 31.
24	박우근	2008. 09. 01. ~ 2011. 08. 31.
25	이종일	2011. 09. 01. ~ 2013. 02. 28.
26	이재열	2013. 03. 01. ~

울천초등학교

고성군 고성읍 죽계2길 19번지
☎ 교장실 674-8023, 교무실 674-8024, 행정실 674-8028



1. 학교 연혁

1956. 12. 12.	울천국민학교 인가
1957. 06. 12.	개교
1984. 08. 02.	본관 신축 공사
1986. 11. 18.	새마을교육 도 우수학교 선정
1988. 05. 02.	농어촌 급식학교 지정(체육부)
1991. 11. 12.	도 지정 체육우수학교 선정
1992. 09. 01.	도 학교간 경기대회 여자부 종합 우승
1996. 03. 01.	울천초등학교로 개칭
1997. 10. 31.	도 지정 유치원 시범 발표
2000. 06. 23.	도 학예대전 정구부 출전(1위)
2000. 11. 30.	도 지정 체육우수학교 선정
2004. 12. 30.	흡연 예방 솔선수범학교 운영
2015. 02. 13.	제58회 졸업식(총 2,757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5(1)	20	20	40	10	10	7	17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이 기 윤	1957. 06. 12. ~ 1960. 09. 24.
2	황 문 도	1960. 09. 28. ~ 1962. 08. 15.
3	김 성 조	1961. 08. 16. ~ 1965. 06. 24.
4	김 형 만	1965. 06. 25. ~ 1969. 12. 03.
5	천 명 호	1969. 12. 04. ~ 1974. 02. 28.
6	정 계 정	1974. 03. 01. ~ 1977. 08. 31.
7	안 승 덕	1977. 03. 01. ~ 1983. 08. 31.
8	천 명 호	1981. 09. 01. ~ 1985. 08. 31.
9	정 한 조	1985. 09. 01. ~ 1989. 04. 30.
10	이 용 락	1989. 05. 01. ~ 1992. 02. 28.
11	천 명 근	1992. 03. 01. ~ 1996. 02. 28.
12	백 상 수	1996. 03. 01. ~ 1998. 08. 31.
13	황 영 기	1998. 09. 01. ~ 2002. 08. 31.
14	이 철 근	2002. 09. 01. ~ 2003. 08. 31.
15	정 순 렬	2003. 09. 01. ~ 2006. 02. 28.
16	안 효 상	2006. 03. 01. ~ 2009. 02. 28.
17	하 구 만	2009. 03. 01. ~ 2010. 02. 28.
18	황 문 수	2010. 03. 01. ~ 2011. 02. 28.
19	배 승 호	2011. 03. 01. ~ 2013. 02. 28.
20	김 종 속	2013. 03. 01. ~ 2015. 02. 28.
21	박 혜 옥	2015. 03. 01. ~

삼 산 초 등 학 교

고성군 삼산면 미룡2길 65
☎ 교장실 672-7049, 교무실 672-7023, 행정실 673-3592



1. 학교 연혁

1931. 06. 15.	삼산 공립보통학교 개교
1980. 03. 01.	병설유치원 개원
1988. 03. 01.	병산분교장 통폐합
1992. 09. 07.	본관 개축(4,5실)
1998. 09. 01.	포교분교장 통폐합
1999. 09. 01.	삼오초등학교 통폐합
2003. 06. 12.	와도분교장 폐교
2012. ~ 2013.	건강체력향상(육상)연구학교 운영(도지정)
2014. 10. 08.	2014. 경남교육청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2014. 10. 22.	2014. 경남교육청 학교체육활성화 우수학교 선정
2014. 11. 03.	2014. 고성교육 특색과제실천 사례 최우수학교 선정
2015. 02. 16.	제81회 졸업식(총 3,402명)

2. 학교 현황

(2015.12. 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7(1)	21	12	33	13	11	9	20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황정현	1931. 06. 15. ~ 1939. 03. 30.
2	복정사랑(福井四郎)	1939. 03. 31. ~ 1940. 03. 27.
3	안본종길(岸本種吉)	1940. 03. 28. ~ 1942. 03. 30.
4	대강신일(大岡信一)	1942. 03. 31. ~ 1944. 03. 30.
5	증곡전본(曾谷傳本)	1944. 03. 31. ~ 1945. 12. 30.
6	한웅주	1945. 12. 31. ~ 1946. 05. 30.
7	강인수	1946. 05. 31. ~ 1948. 03. 30.
8	박차욱	1948. 03. 31. ~ 1949. 06. 21.
9	이건량	1949. 06. 22. ~ 1950. 02. 22.
10	남수개	1950. 02. 23. ~ 1951. 09. 09.
11	이순봉	1951. 09. 10. ~ 1952. 12. 30.
12	김형식	1952. 12. 31. ~ 1956. 11. 16.
13	이정열	1956. 11. 17. ~ 1957. 01. 31.
14	김삼용	1957. 02. 01. ~ 1960. 03. 30.
15	배기섭	1960. 03. 31. ~ 1961. 08. 15.
16	장병한	1961. 08. 16. ~ 1964. 06. 14.
17	조제익	1964. 06. 15. ~ 1966. 11. 02.
18	강대원	1966. 11. 03. ~ 1970. 08. 31.
19	박순병	1970. 09. 01. ~ 1972. 03. 24.
20	안승덕	1972. 03. 25. ~ 1977. 08. 31.
21	김한용	1977. 09. 01. ~ 1978. 02. 28.
22	강경옥	1978. 03. 01. ~ 1980. 08. 31.
23	김진권	1980. 09. 01. ~ 1986. 08. 31.
24	안승덕	1986. 09. 01. ~ 1988. 08. 31.
25	김원호	1988. 09. 01. ~ 1989. 08. 31.
26	김춘기	1989. 09. 01. ~ 1993. 02. 28.
27	강일규	1993. 03. 01. ~ 1996. 02. 29.
28	김병천	1996. 03. 01. ~ 1999. 08. 31.
29	서능수	1999. 09. 01. ~ 2001. 08. 31.
30	이정찬	2001. 09. 01. ~ 2003. 02. 28.
31	하풍	2003. 03. 01. ~ 2004. 02. 28.
32	서대련	2004. 03. 01. ~ 2005. 08. 31.
33	임대섭	2005. 09. 01. ~ 2008. 02. 28.
34	백운봉	2008. 03. 01. ~ 2012. 02. 29.
35	노선규	2012. 03. 01. ~

하 일 초 등 학 교

고성군 하일면 학림2길 70-15
☎ 교장실 673-1363, 교무실 673-1027, 행정실 673-3386



1. 학교 연혁

1921. 05. 01.	하일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1925. 03. 25.	제1회 졸업식 거행(21명)
1938. 04. 01.	하일공립심상소학교로 명칭 변경
1941. 04. 01.	하일공립국민학교로 명칭 변경
1981. 03. 01.	하일국민학교병설유치원 인가
1995. 03. 19.	수태분교장 통폐합, 농어촌형 급식 실시
1996. 03. 01.	하일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2011. 12. 15.	학교평가 우수학교 선정
2012. 03. 01.	장춘분교장 통폐합
2012. 12. 13.	경상남도 꿈나르미학교 선정
2012. 12. 28.	경상남도 학력향상 우수학교 선정
2013. 06. 28.	준벽지 지정
2015. 02. 13.	제91회 졸업식(졸업생 3명, 총 4,394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7(1)	17	9	26	10	12	9	21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植松姜太郎	1921. 05. 01. ~ 1925. 03. 30.
2	山崎次郎	1925. 03. 31. ~ 1926. 12. 30.
3	三上増米	1926. 12. 31. ~ 1928. 03. 30.
4	具武會	1928. 03. 31. ~ 1936. 03. 30.
5	有馬福千代	1936. 03. 31. ~ 1941. 03. 24.
6	竹本高造	1941. 03. 25. ~ 1942. 03. 30.
7	惹木貞男	1942. 03. 31. ~ 1945. 08. 15.
8	김종두	1945. 08. 16. ~ 1945. 12. 30.
9	이용원	1945. 12. 31. ~ 1947. 09. 30.
10	최영호	1947. 10. 01. ~ 1951. 03. 19.
11	정태이	1951. 03. 20. ~ 1951. 10. 06.
12	강기수	1951. 10. 07. ~ 1953. 11. 30.
13	이명세	1953. 12. 01. ~ 1957. 01. 14.
14	허문도	1957. 01. 15. ~ 1960. 06. 29.
15	이을용	1960. 06. 30. ~ 1962. 02. 27.
16	류성갑	1962. 02. 28. ~ 1964. 05. 14.
17	배기섭	1964. 05. 15. ~ 1966. 06. 14.
18	정소주	1966. 06. 15. ~ 1969. 06. 20.
19	유관주	1969. 06. 21. ~ 1974. 01. 31.
20	황돈용	1974. 02. 01. ~ 1979. 02. 28.
21	표상억	1979. 03. 01. ~ 1980. 08. 31.
22	김용환	1980. 09. 01. ~ 1984. 02. 28.
23	강정규	1984. 03. 01. ~ 1988. 08. 31.
24	김백래	1988. 09. 01. ~ 1990. 02. 28.
25	이정식	1990. 03. 01. ~ 1993. 02. 28.
26	김용춘	1993. 03. 01. ~ 1994. 08. 31.
27	조정우	1994. 09. 01. ~ 1996. 08. 31.
28	강용길	1996. 09. 01. ~ 1999. 08. 31.
29	이상호	1999. 09. 01. ~ 2000. 08. 31.
30	이홍진	2000. 09. 01. ~ 2001. 08. 31.
31	이태호	2001. 09. 01. ~ 2003. 02. 28.
32	이정찬	2003. 03. 01. ~ 2007. 02. 28.
33	조영식	2007. 03. 01. ~ 2008. 08. 31.
34	전현숙	2008. 09. 01. ~ 2009. 08. 31.
35	김성우	2009. 09. 01. ~ 2014. 02. 28.
36	박동윤	2014. 03. 01. ~

하 이 초 등 학 교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423
☎ 교장실 834-5945, 교무실 835-8897, 행정실 834-5230



1. 학교 연혁

1927. 03. 31.	하이 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1927. 05. 01.	하이 공립보통학교 개교
1930. 03. 20.	제1회 졸업식
1938. 04. 01.	하이 공립 심상소학교로 명칭 변경
1939. 06. 15.	부설 덕명 간이학교 개교
1941. 04. 01.	하이공립국민학교로 명칭 변경
1962. 08. 12.	봉현분교장 설립 인가
1981. 03. 01.	하이국민학교병설유치원 개교
1993. 03. 01.	덕명분교장 본교로 통폐합
1996. 03. 01.	하이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1999. 03. 01.	월흥초등학교 본교로 통폐합
1999. 09. 01.	봉현분교장 본교로 통폐합
2005. 06. 07.	체육관 준공
2015. 02. 13.	제86회 졸업식(총 5,734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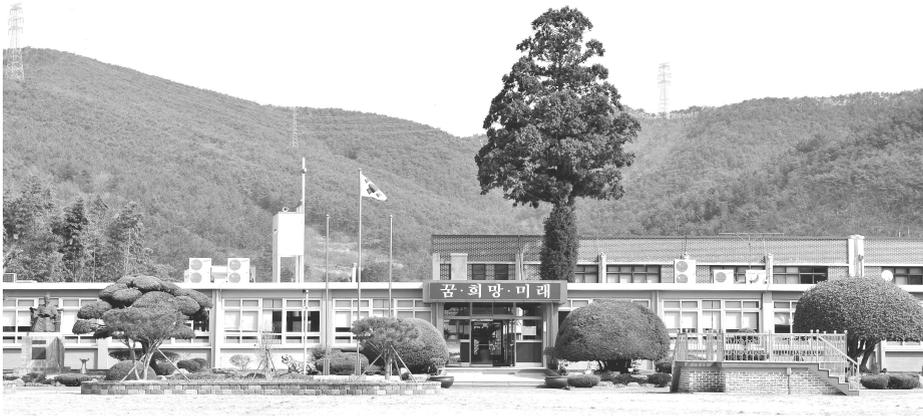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7(1)	40	34	74	13	13	13	26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植松米太郎	1927. 05. 01. ~ 1927. 10. 19.
2	廣優高森	1927. 10. 20. ~ 1934. 03. 31.
3	伊藤義治	1934. 04. 01. ~ 1936. 08. 31.
4	紀寬良	1936. 08. 31. ~ 1944. 03. 31.
5	冲川久雄	1944. 03. 31. ~ 1945. 08. 29.
6	정재순	1945. 08. 30. ~ 1953. 06. 24.
7	강기수	1953. 12. 01. ~ 1955. 05. 09.
8	강인수	1955. 05. 09. ~ 1957. 08. 07.
9	박인홍	1957. 08. 10. ~ 1962. 03. 03.
10	차봉삼	1962. 03. 03. ~ 1969. 08. 31.
11	이용상	1969. 12. 01. ~ 1972. 09. 01.
12	정순동	1972. 09. 01. ~ 1974. 08. 31.
13	김형만	1974. 09. 01. ~ 1979. 02. 28.
14	황돈용	1979. 03. 01. ~ 1982. 08. 31.
15	강경옥	1982. 09. 01. ~ 1987. 08. 31.
16	박찬규	1987. 09. 01. ~ 1991. 02. 28.
17	박응술	1991. 03. 01. ~ 1992. 02. 29.
18	김영목	1992. 03. 01. ~ 1996. 08. 31.
19	조정우	1996. 09. 01. ~ 1998. 08. 31.
20	홍성수	1998. 09. 01. ~ 2000. 02. 29.
21	김규석	2000. 03. 01. ~ 2001. 08. 31.
22	진경근	2001. 09. 01. ~ 2002. 08. 31.
23	차상건	2002. 09. 01. ~ 2004. 02. 29.
24	박길수	2004. 03. 01. ~ 2007. 02. 28.
25	이정찬	2007. 03. 01. ~ 2009. 08. 31.
26	이재열	2009. 09. 01. ~ 2013. 02. 28.
27	문해수	2013. 03. 01. ~ 2014. 02. 28.
28	이성우	2014. 03. 01. ~

상리초등학교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 1길 85
☎ 교장실 672-8035, 교무실 672-8034, 행정실 673-2682



1. 학교 연혁

1921. 02. 25.	상리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4년제)
1921. 09. 01.	개교(입학식): 102명
1950. 05. 01.	상리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1979. 12. 02.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1981. 03. 01.	상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87. 03. 01.	신촌분교장 본교에 통폐합
1996. 03. 01.	상리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1999. 09. 01.	상동초등학교 본교에 통폐합
2007. 10. 30.	역사관 준공
2009. 03. 01.	도지정 연구학교(수학교육)
2011. 11. 11.	아름다운교육상 학교부문 우수상(제12회)
2014. 03. 03.	다목적 강당 '상리어울관' 개관
2015. 02. 13.	제90회 졸업식(총 4,160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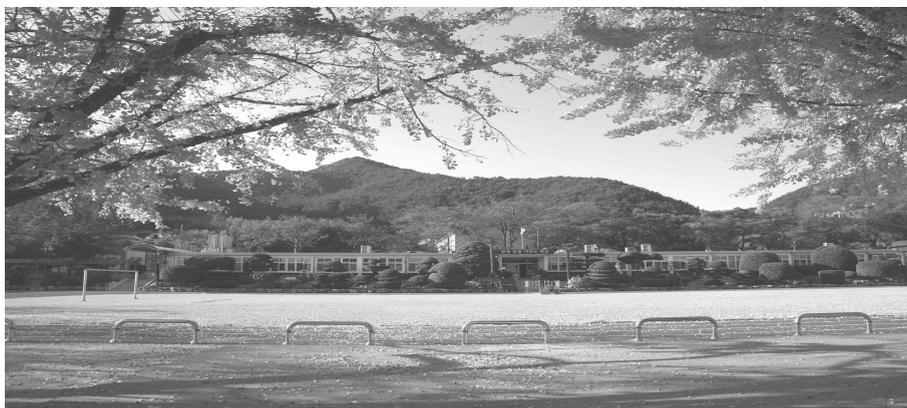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6(1)	30	21	51	9	12	8	20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궁택유일	1921. 07. 20. ~ 1925. 05. 31.
2	천야애활	1925. 06. 01. ~ 1931. 04. 08.
3	지본충용	1931. 04. 09. ~ 1933. 04. 11.
4	익전신일	1933. 04. 12. ~ 1940. 04. 17.
5	원천백	1940. 04. 18. ~ 1941. 03. 31.
6	촌산중조	1941. 04. 01. ~ 1945. 10. 30.
7	김정규	1945. 10. 31. ~ 1946. 04. 29.
8	추의수	1946. 04. 30. ~ 1946. 09. 12.
9	이만수	1946. 09. 13. ~ 1947. 10. 20.
10	임삼돌	1947. 10. 21. ~ 1948. 04. 09.
11	이용원	1948. 04. 10. ~ 1949. 09. 02.
12	최성렬	1949. 09. 03. ~ 1951. 04. 20.
13	이행진	1951. 04. 21. ~ 1956. 05. 09.
14	정한기	1956. 05. 10. ~ 1959. 05. 09.
15	박윤화	1959. 05. 10. ~ 1960. 09. 28.
16	천명호	1960. 09. 29. ~ 1961. 10. 04.
17	이현대	1961. 10. 05. ~ 1965. 09. 19.
18	하대군	1965. 09. 20. ~ 1971. 05. 31.
19	이기정	1971. 09. 20. ~ 1979. 02. 28.
20	이인안	1979. 03. 01. ~ 1984. 02. 28.
21	이봉련	1984. 03. 01. ~ 1989. 04. 30.
22	강용길	1989. 05. 01. ~ 1993. 02. 28.
23	정재욱	1993. 03. 01. ~ 1996. 08. 31.
24	양승원	1996. 09. 01. ~ 1999. 08. 31.
25	김종변	1999. 09. 01. ~ 2000. 08. 31.
26	박충목	2000. 09. 01. ~ 2001. 08. 31.
27	서능수	2001. 09. 01. ~ 2005. 02. 28.
28	김종철	2005. 03. 01. ~ 2008. 08. 31.
29	박종실	2008. 09. 01. ~ 2012. 08. 31.
30	허연수	2012. 09. 01. ~ 2015. 08. 31.
31	강선자	2015. 09. 01. ~

대 흥 초 등 학 교

고성군 대가면 대가로 443-18
 ☎ 교장실 672-4012, 교무실 672-4205, 행정실 672-0502



1. 학교 연혁

1939. 04. 17.	대가 제2 공립 심상소학교 개교
1944. 03. 25.	제1회 졸업(37명)
1945. 05. 15.	대흥초등학교 개칭
1982. 01. 20.	경남상도교육청지정 자연보호 시범학교 발표
1997. 03. 01.	송계분교장 통폐합
2010. 11. 30.	경남상도교육청지정 학생평가 시범학교 발표
2011. 12. 31.	경상남도교육청지정 학력향상 우수학교 선정
2012. 03. 01.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창의경영학교(예술교육)
2012. 12. 31.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2013. 11. 14.	교육부요청 예술교육선도 연구학교 시범 발표
2014. 10. 15.	과학실 1실 증축, 유치원 놀이터 개축
2015. 02. 17.	제72회 졸업식(총 4,128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6(1)	27	32	59	9	12	11	23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허도중	1945. 12. 31. ~ 1950. 11. 30.
2	최진석	1950. 12. 01. ~ 1953. 03. 30.
3	최익조	1953. 03. 31. ~ 1954. 07. 27.
4	김성조	1954. 07. 28. ~ 1957. 11. 02.
5	김형식	1957. 11. 03. ~ 1961. 09. 30.
6	이진목	1961. 10. 01. ~ 1964. 05. 15.
7	김진권	1964. 05. 16. ~ 1970. 09. 01.
8	정순동	1970. 09. 02. ~ 1972. 08. 31.
9	김한욱	1972. 09. 01. ~ 1974. 08. 31.
10	김경상	1974. 09. 01. ~ 1975. 08. 31.
11	정한조	1975. 09. 01. ~ 1980. 08. 31.
12	김문상	1980. 09. 01. ~ 1981. 08. 31.
13	심재위	1981. 09. 01. ~ 1985. 02. 28.
14	이병관	1985. 03. 01. ~ 1987. 02. 28.
15	류성갑	1987. 03. 01. ~ 1991. 08. 31.
16	이상봉	1991. 09. 01. ~ 1993. 08. 31.
17	강상룡	1993. 09. 01. ~ 1994. 04. 06.
18	권범상	1994. 04. 25. ~ 1999. 08. 31.
19	정명영	1999. 09. 01. ~ 2000. 08. 31.
20	진경근	2000. 09. 01. ~ 2001. 08. 31.
21	하근식	2001. 09. 01. ~ 2003. 08. 31.
22	이철근	2003. 09. 01. ~ 2004. 08. 31.
23	강용구	2004. 09. 01. ~ 2006. 08. 31.
24	최덕규	2006. 09. 01. ~ 2009. 02. 28.
25	강복수	2009. 03. 01. ~ 2010. 02. 28.
26	허종철	2010. 03. 01. ~ 2012. 08. 31.
27	임채수	2012. 09. 01. ~ 2013. 08. 31.
28	박귀숙	2013. 09. 01. ~ 2015. 08. 31.
29	김희자	2015. 09. 01. ~

영 현 초 등 학 교

고성군 영현면 대가로 1675-20
☎ 교장실 673-0475, 교무실 673-0008, 행정실 672-4769



1. 학교 연혁

1928. 05. 24.	영현공립보통학교 개교
1938. 04. 01.	영현공립심상소학교로 교명 변경
1939. 03. 01.	6년제 인가
1941. 04. 01.	영현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1970. 12. 20.	본관 하층 4교실 증축
1972. 12. 31.	본관 2층 3교실 증축
1973. 10. 31.	본관 2층 1교실 증축
1981. 01. 31.	병설 유치원 개원
1993. 03. 01.	봉발분교장 본교에 통합
1996. 03. 01.	영현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1996. 03. 15.	학교 급식 실시
2000. 02. 21.	꿈나무 생활관 준공(101.25㎡)
2015. 02. 20.	제 82회 졸업식(졸업생 총수 3,654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6(1)	8	13	21	5	10	13	23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8	이상우	1945. 12. 31 ~ 1948. 11. 27.
9	이진목	1948. 11. 28 ~ 1952. 04. 30.
10	김한옥	1952. 05. 01 ~ 1956. 03. 31.
11	정순동	1956. 04. 01 ~ 1960. 09. 28.
12	김진권	1960. 09. 29 ~ 1964. 05. 12.
13	황순용	1964. 05. 13 ~ 1969. 06. 20.
14	김원개	1969. 06. 21 ~ 1972. 08. 31.
15	이진목	1972. 09. 01 ~ 1974. 02. 28.
16	표상억	1974. 03. 01 ~ 1979. 02. 28.
17	김관수	1979. 03. 01 ~ 1983. 08. 31.
18	서성용	1983. 09. 01 ~ 1984. 02. 29.
19	이병화	1984. 03. 01 ~ 1985. 08. 31.
20	김한택	1985. 09. 01 ~ 1988. 08. 31.
21	박정희	1988. 09. 01 ~ 1991. 06. 17.
22	이수현	1991. 06. 18 ~ 1992. 08. 31.
23	장정영	1992. 09. 01 ~ 1993. 08. 31.
24	조정우	1993. 09. 01 ~ 1994. 08. 31.
25	이인태	1994. 09. 01 ~ 1997. 02. 28.
26	강대술	1997. 03. 01 ~ 2000. 08. 31.
27	강의조	2000. 09. 01 ~ 2003. 02. 28.
28	김판세	2003. 03. 01 ~ 2005. 02. 28.
29	조평규	2005. 03. 01 ~ 2007. 08. 31.
30	고영환	2007. 09. 01 ~ 2010. 08. 31.
31	조원제	2010. 09. 01 ~ 2014. 02. 28.
32	이병주	2014. 03. 01 ~ 2015. 02. 28.
33	박은숙	2015. 03. 01 ~

영 오 초 등 학 교

고성군 영오면 영회로 325
☎ 교장실 672-9014, 교무실 672-9004, 행정실 673-8498



1. 학교 연혁

1929. 09. 10.	개교(영오공립 보통학교)
1932. 03. 20.	제1회 졸업(12명 - 4년제)
1938. 04. 01.	영오 공립 심상소학교로 교명 개칭
1940. 03. 28.	학년 연장 인가(6년제)
1941. 04. 01.	영오공립국민학교로 교명 개칭
1950. 07. 31.	6.25 사변으로 폐교 조치
1950. 09. 24.	점령지구 수복 후 재 개교
1980. 04. 10.	병설유치원 개원
1996. 03. 01.	영오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1998. 09. 01.	영동분교를 본교로 통·폐합
1999. 03. 16.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2000. 08. 24.	도서실 개관
2010. 10. 30.	천연잔디 우레탄 운동장 설치
2012. 12. 13.	학력향상 우수학교 선정
2015. 02. 13.	제83회 졸업식(총 졸업생수 4,867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6(1)	19	20	39	7	11	13	24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西郷隆敏	1929. 08. 31. ~ 1930. 03. 30.
2	工棟端徳山	1930. 03. 31. ~ 1934. 01. 15.
3	萩尾卯助	1934. 01. 16. ~ 1936. 05. 19.
4	奥村善彦	1938. 05. 20. ~ 1940. 04. 09.
5	福井四郎	1940. 04. 10. ~ 1942. 03. 31.
6	土方요助	1942. 04. 01. ~ 1945. 12. 31.
7	최낙현	1945. 12. 31. ~ 1946. 08. 30.
8	정학조	1946. 08. 31. ~ 1948. 11. 14.
9	이상우	1948. 11. 15. ~ 1951. 05. 09.
10	정용한	1951. 05. 10. ~ 1952. 09. 14.
11	경재수	1952. 09. 15. ~ 1958. 03. 30.
12	황돈용	1958. 03. 31. ~ 1958. 07. 09.
13	김덕기	1958. 07. 10. ~ 1962. 02. 27.
14	김상규	1962. 02. 28. ~ 1964. 05. 14.
15	김한욱	1964. 05. 15. ~ 1972. 08. 31.
16	김원개	1972. 09. 01. ~ 1978. 02. 28.
17	신정희	1978. 03. 01. ~ 1982. 08. 31.
18	유은렬	1982. 09. 01. ~ 1984. 02. 28.
19	서표환	1984. 03. 01. ~ 1988. 08. 31.
20	김한택	1988. 09. 01. ~ 1993. 02. 28.
21	강용길	1993. 03. 01. ~ 1996. 08. 31.
22	서홍조	1996. 09. 01. ~ 2000. 08. 31.
23	강부연	2000. 09. 01. ~ 2004. 02. 29.
24	정갑정	2004. 03. 01. ~ 2006. 08. 31.
25	강용구	2006. 09. 01. ~ 2009. 08. 31.
26	조갑규	2009. 09. 01. ~ 2011. 08. 31.
27	방평원	2011. 09. 01. ~

개 천 초 등 학 교

고성군 개천면 옥천로 1268
☎ 교장실 672-0020, 교무실 672-0010, 행정실 672-2822



1. 학교 연혁

1923. 05. 01.	개천 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1923. 06. 04.	4년제 3학급 편성 개교
1981. 03. 01.	병설 유치원 인가
1993. 03. 01.	청광분교장 통합
1994. 03. 10.	농촌형 급식학교 운영
1998. 03. 01.	좌련분교장 통합
2006. 12. 21.	용틀임 도서관 개관
2009. 05. 30.	희망키움학교 선정(3년간)
2010. 11. 09.	도지정 사회과 정책연구학교 운영 보고회
2011. 11. 15.	도지정 자율장학 시범학교 운영 보고회
2011. 12. 30.	농어촌 전원학교 선정(3년간)
2011. 12. 31.	교육과정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
2012. 11. 15.	도지정 계기교육 시범학교 운영 보고회
2015. 02. 13.	제91회 졸업식(졸업생 총 3,665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6(1)	20	18	38	8	11	12	23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김정희	1923. 06. 04. ~ 1925. 03. 31.
2	조항규	1925. 04. 01. ~ 1925. 04. 03.
3	김정희	1928. 04. 04. ~ 1931. 03. 31.
4	松澤三郎	1931. 04. 01. ~ 1934. 03. 31.
5	吉田英人	1934. 04. 01. ~ 1941. 03. 31.
6	桑田修次郎	1941. 04. 01. ~ 1943. 08. 31.
7	吉材謙一	1943. 09. 01. ~ 1945. 08. 15.
8	서학조	1945. 09. 24. ~ 1945. 12. 30.
9	이상주	1945. 12. 31. ~ 1947. 09. 30.
10	이두근	1947. 10. 01. ~ 1950. 06. 30.
11	최만호	1950. 07. 26. ~ 1953. 03. 31.
12	홍태종	1953. 04. 01. ~ 1956. 03. 31.
13	김한옥	1956. 04. 01. ~ 1959. 05. 22.
14	박윤엽	1959. 05. 23. ~ 1960. 03. 31.
15	김삼룡	1960. 04. 01. ~ 1970. 08. 31.
16	강정규	1970. 09. 01. ~ 1972. 12. 15.
17	김문상	1972. 12. 16. ~ 1975. 08. 31.
18	강오대	1975. 09. 01. ~ 1980. 08. 31.
19	서성용	1980. 09. 01. ~ 1983. 08. 31.
20	김관수	1983. 09. 01. ~ 1985. 08. 31.
21	강오대	1985. 09. 01. ~ 1987. 08. 31.
22	이용락	1987. 09. 01. ~ 1989. 04. 30.
23	이봉련	1989. 05. 01. ~ 1990. 11. 19.
24	박영학	1990. 12. 21. ~ 1995. 02. 28.
25	강용근	1995. 03. 01. ~ 1999. 08. 31.
26	김병천	1999. 09. 01. ~ 2000. 08. 31.
27	장수환	2000. 09. 01. ~ 2005. 08. 31.
28	서대련	2005. 09. 01. ~ 2009. 02. 28.
29	최상태	2009. 03. 01. ~ 2013. 02. 28.
30	최상태	2013. 03. 01. ~ 2014. 02. 28.
31	정상록	2014. 03. 01. ~ 2015. 08. 31.
32	정정옥	2015. 09. 01. ~

구 만 초 등 학 교

고성군 구만면 영회로 1763
☎ 교장실 672-3030, 교무실 672-3205, 행정실 672-1032



1. 학교 연혁

1932.06.01.	구만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1932.06.11.	도산서원에서 개교(1학급)
1938.04.01.	구만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1941.04.01.	구만공립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1971.12.31.	경남 중부지구 음악과 시범학교 3년간 선정
1991.09.23.	개교 60주년 기념 봉지탑 건립
1992.12.21.	도선정 국어과 우수학교
1996.03.01.	구만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2011.12.20.	창의경영(학력향상) 우수학교 선정
2015.02.13.	제81회 졸업식(졸업생 총수 4,820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6(1)	8	12	20	6	10	9	19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片山房治	1932. 06. 11. ~ 1933. 03. 30.
2	金澤芳美	1933. 03. 31. ~ 1936. 04. 23.
3	石田輝男	1936. 04. 24. ~ 1941. 03. 30.
4	김성조	1941. 03. 31. ~ 1945. 12. 30.
5	이봉양	1945. 12. 31. ~ 1951. 03. 19.
6	남기조	1951. 03. 20. ~ 1953. 03. 30.
7	이상주	1953. 03. 31. ~ 1957. 10. 03.
8	김진권	1957. 10. 04. ~ 1959. 05. 28.
9	박희열	1959. 05. 29. ~ 1960. 10. 09.
10	이봉렬	1960. 10. 10. ~ 1961. 10. 04.
11	백영기	1961. 10. 05. ~ 1966. 10. 14.
12	천명호	1966. 10. 15. ~ 1969. 12. 03.
13	박중훈	1969. 12. 04. ~ 1971. 02. 28.
14	허상복	1971. 03. 01. ~ 1979. 02. 28.
15	김상중	1979. 03. 01. ~ 1984. 02. 29.
16	이인안	1984. 03. 01. ~ 1986. 02. 28.
17	이선모	1986. 03. 01. ~ 1990. 08. 31.
18	서병태	1990. 09. 01. ~ 1996. 02. 29.
19	정주석	1993. 03. 01. ~ 1994. 08. 31.
20	서홍조	1994. 09. 01. ~ 1996. 08. 31.
21	김삼규	1996. 09. 01. ~ 1997. 08. 31.
22	김하곤	1997. 09. 01. ~ 1999. 08. 31.
23	강부연	1999. 09. 01. ~ 2000. 08. 31.
24	김종철	2000. 09. 01. ~ 2003. 02. 28.
25	최남기	2003. 03. 01. ~ 2004. 02. 29.
26	이영정	2004. 03. 01. ~ 2007. 02. 28.
27	최광덕	2007. 03. 01. ~ 2009. 02. 28.
28	이승범	2009. 03. 01. ~ 2010. 08. 31.
29	우정기	2010. 09. 01. ~ 2013. 02. 28.
30	김선규	2013. 03. 01. ~ 2014. 08. 31.
31	김옥희	2014. 09. 01. ~ 2015. 08. 31.
32	강정선	2015. 09. 01. ~

회 화 초 등 학 교

고성군 회화면 배둔로 95
☎ 교장실 673-0884, 교무실 673-2024, 행정실 673-2034



1. 학교 연혁

1919. 10. 01.	배둔 공립 보통학교로 개교
1993. 03. 01.	삼덕국민학교 통폐합
1996. 03. 01.	회화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1997. 05. 01.	본관 건물 개축 공사 완공 18교실
1998. 08. 31.	동창초등학교 통폐합
2005. 10. 21.	도지정 재량활동 시범학교 2차년도 보고회
2007. 11. 15.	도지정 학력향상 연구학교(과학과 수행평가) 보고회
2008. 10. 30.	도지정 교수·학습방법 연구학교(사회과) 보고회
2009. 09. 17.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지정
2010. 03. 01.	기초학력 지역중점학교 지정
2012. ~ 2014.	경상남도교육청지정 전원학교 운영
2012. ~ 2014.	교육과학기술부지정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2014. 11. 07.	도지정 향토사랑교육 연구학교 보고회
2014. 02. 17.	제94회 졸업식(졸업생 총수 : 8,538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7(1)	72	57	129	10	14	16	30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김성조	1945. 10. 31. ~ 1948. 11. 14.
2	강홍근	1948. 11. 15. ~ 1952. 09. 14.
3	임성택	1952. 09. 15. ~ 1954. 02. 18.
4	김재만	1954. 02. 19. ~ 1957. 01. 18.
5	황문도	1957. 01. 19. ~ 1959. 05. 28.
6	조종만	1959. 05. 29. ~ 1960. 03. 13.
7	이봉양	1960. 03. 14. ~ 1961. 10. 04.
8	천명호	1961. 10. 05. ~ 1967. 01. 20.
9	하원식	1967. 01. 21. ~ 1971. 08. 31.
10	정수학	1971. 09. 01. ~ 1974. 08. 31.
11	정순동	1974. 09. 01. ~ 1979. 02. 28.
12	강화중	1979. 03. 01. ~ 1981. 08. 31.
13	윤병선	1981. 09. 01. ~ 1983. 08. 31.
14	김태운	1983. 09. 01. ~ 1989. 08. 31.
15	손영만	1989. 09. 01. ~ 1990. 12. 30.
16	이유석	1990. 12. 31. ~ 1993. 02. 28.
17	김춘기	1993. 03. 01. ~ 1994. 08. 31.
18	정주석	1994. 09. 01. ~ 1996. 02. 29.
19	강일규	1996. 03. 01. ~ 1999. 08. 31.
20	이상곤	1999. 09. 01. ~ 2000. 08. 31.
21	안병성	2000. 09. 01. ~ 2002. 02. 28.
22	정규호	2002. 03. 01. ~ 2003. 08. 31.
23	최광덕	2003. 09. 01. ~ 2007. 02. 28.
24	김상재	2007. 03. 01. ~ 2009. 02. 28.
25	최덕규	2009. 03. 01. ~ 2011. 08. 31.
26	남광희	2011. 09. 01. ~ 2014. 02. 28.
27	최규정	2014. 03. 01. ~

마암초등학교

고성군 마암면 옥천로 254
☎ 교장실 672-6205, 교무실 672-6006, 행정실 673-6168



1. 학교 연혁

1928. 05. 15.	마암공립보통학교 개교
1946. 09. 01.	삼락국민학교 분리
1965. 03. 01.	좌련국민학교 분리
1979. 03. 05.	병설유치원 개원
1988. 05. 15.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1996. 03. 01.	마암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2000. 12. 16.	평생교육 지역중심학교 선정
2001. 03. 01.	군지정 자기주도적학습 시범학교
2007. 03. 01.	군지정 교실수업개선 시범학교
2015. 02. 13.	제85회 졸업(총 5,004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6(1)	12	15	27	10	10	11	21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片山床治	1928. 03. 31. ~ 1929. 04. 02.
2	和田正亮	1929. 04. 03. ~ 1933. 05. 25.
3	김태주	1933. 05. 26. ~ 1939. 03. 31.
4	福田永藏	1939. 04. 01. ~ 1943. 03. 31.
5	柏田威郎	1943. 04. 01. ~ 1945. 10. 30.
6	이상범	1945. 10. 31. ~ 1946. 08. 31.
7	최낙헌	1946. 09. 01. ~ 1948. 10. 01.
8	이상주	1949. 05. 16. ~ 1953. 03. 31.
9	최만호	1953. 04. 01. ~ 1956. 03. 31.
10	홍태종	1956. 04. 01. ~ 1960. 09. 28.
11	정순동	1960. 09. 29. ~ 1970. 08. 31.
12	김진권	1970. 09. 01. ~ 1974. 02. 28.
13	김성종	1974. 03. 01. ~ 1979. 02. 28.
14	이용락	1979. 03. 01. ~ 1982. 02. 28.
15	김태진	1982. 03. 01. ~ 1984. 02. 28.
16	한충규	1984. 03. 01. ~ 1986. 02. 28.
17	김상종	1986. 03. 01. ~ 1989. 05. 21.
18	이상락	1989. 05. 22. ~ 1991. 02. 28.
19	이순교	1991. 03. 01. ~ 1993. 02. 28.
20	이정식	1993. 03. 01. ~ 1996. 08. 31.
21	이용식	1996. 09. 01. ~ 1999. 08. 31.
22	김일남	1999. 09. 01. ~ 2002. 02. 28.
23	양장	2002. 03. 01. ~ 2005. 08. 31.
24	황교현	2005. 09. 01. ~ 2007. 08. 31.
25	강홍우	2007. 09. 01. ~ 2010. 02. 28.
26	정원의	2010. 03. 01. ~ 2013. 02. 28.
27	손연식	2013. 03. 01. ~

동해초등학교

고성군 동해면 동해로 1585번길
☎ 교장실 672-5708, 교무실 672-5044, 행정실 672-4679



1. 학교 연혁

1931. 10. 01.	동해보통학교 개교
1938. 04. 01.	동해공립심상학교로 교명 변경
1941. 01. 01.	동해공립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1972. 09. 16.	본관 1층 건물 6교실 개축
1979. 03. 05.	병설 유치원 개원
1986. 03. 01.	특수 학급 개설(1학급)
1996. 03. 01.	동해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2005. 11. 02.	도교육청 지정 평생교육 연구학교 운영
2012. 03. 01.	교육부 창의경영학교(건강증진 모델학교)선정
2012. 11. 19.	도교육청 지정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2015. 02. 13.	제82회 졸업(졸업생 총수 5,165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7(1)	13	20	33	8	14	10	24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일본인	~ 1945. 10. 30.
2	이두은	1945. 10. 31. ~ 1946. 10. 09
3	김계원	1946. 10. 10. ~ 1948. 03. 31.
4	이진목	1948. 04. 01. ~ 1949. 11. 14.
5	황문도	1949. 11. 15. ~ 1957. 01. 18.
6	허종문	1957. 01. 19. ~ 1961. 08. 15.
7	박증술	1961. 08. 16. ~ 1963. 11. 03.
8	최갑규	1963. 11. 04. ~ 1971. 05. 31
9	정계정	1971. 06. 01. ~ 1974. 02. 28.
10	김진권	1974. 03. 01. ~ 1977. 08. 31.
11	황남성	1977. 09. 01. ~ 1980. 02. 29.
12	유성근	1980. 03. 01. ~ 1982. 08. 31.
13	김원호	1982. 09. 01. ~ 1985. 08. 31.
14	강병륜	1985. 09. 01. ~ 1990. 02. 28.
15	강인순	1990. 03. 01. ~ 1990. 10. 19.
16	정상식	1990. 10. 20. ~ 1993. 08. 31.
17	장정영	1993. 09. 01. ~ 1996. 08. 31.
18	이정식	1996. 09. 01. ~ 1999. 08. 31.
19	최광영	1999. 09. 01. ~ 2003. 08. 31.
20	백명흠	2003. 09. 01. ~ 2005. 02. 28.
21	조영식	2005. 03. 01. ~ 2007. 02. 28.
22	박우근	2007. 03. 01. ~ 2008. 08. 31.
23	오창성	2008. 09. 01. ~ 2010. 02. 28.
24	하의근	2010. 03. 01. ~ 2011. 08. 31.
25	강대중	2011. 09. 01. ~ 2013. 02. 29.
26	이장호	2013. 03. 01. ~ 2014. 08. 31.
27	정용덕	2014. 09. 01. ~ 2015. 08. 31.
28	이혜경	2015. 09. 01. ~

거류초등학교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693-14
☎ 교장실 672-1883, 교무실 672-1014~5, 행정실 673-8017



1. 학교 연혁

1926. 04. 22.	거류보통학교 개교
1995. 03. 01.	화당분교 통합
1996. 03. 01.	거류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1999. 09. 01.	대장분교 통합
2008. 05. 27.	다목적 강당 개관
2009. 03. 01.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농산어촌연중돌봄학교 운영
2012. 03. 01.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농산어촌전원학교후속학교 운영
2012. 03. 23.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선정(~2015)
2012. 05. 24	인조잔디운동장 준공식
2013. 10. 02.	경남교육청 독서교육 우수학교 선정
2013. 12. 02.	경남교육청 특색과제 운영 우수학교 선정
2014. 03. 01.	문화체육관광부 요청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학교
2015. 02. 14.	제87회 졸업 13명(총 5,821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7(1)	66	76	142	24	14	16	30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자료없음	1926. ~ 1945.
1	김종두	1946. 01. 05. ~ 1946. 07. 11.
2	서정실	1946. 07. 12. ~ 1946. 10. 28.
3	김형기	1946. 10. 29. ~ 1947. 11. 10.
4	이용원	1947. 11. 11. ~ 1948. 04. 16.
5	이계원	1948. 04. 17. ~ 1951. 12. 30.
6	허도중	1951. 12. 31. ~ 1955. 05. 19.
7	황경조	1955. 05. 20. ~ 1958. 04. 16.
8	이영중	1958. 04. 17. ~ 1958. 09. 22.
9	정지민	1958. 09. 23. ~ 1960. 12. 11.
10	홍태중	1960. 12. 12. ~ 1967. 06. 14.
11	이기정	1967. 06. 15. ~ 1971. 05. 31.
12	최능렬	1971. 06. 01. ~ 1973. 08. 31.
13	박영중	1973. 09. 01. ~ 1974. 08. 31.
14	강정규	1974. 09. 01. ~ 1979. 02. 28.
15	최능렬	1979. 03. 01. ~ 1983. 02. 28.
16	이상락	1983. 03. 01. ~ 1986. 08. 31.
17	이유석	1986. 09. 01. ~ 1990. 12. 21.
18	이상석	1990. 12. 22. ~ 1994. 02. 28.
19	이병화	1994. 03. 01. ~ 1998. 02. 28.
20	하만균	1998. 03. 01. ~ 1999. 02. 28.
21	박차근	1999. 09. 01. ~ 2000. 02. 29.
22	정규호	2000. 03. 01. ~ 2002. 08. 31.
23	이갑정	2002. 09. 01. ~ 2004. 02. 29.
24	강종식	2004. 03. 01. ~ 2005. 08. 31.
25	이판권	2005. 09. 01. ~ 2009. 02. 28.
26	남덕현	2009. 03. 01. ~ 2012. 02. 29.
27	유영갑	2012. 03. 01. ~

동광초등학교

고성군 거류면 봉암2길 11
☎ 교장실 673-5571, 교무실 673-5572, 행정실 673-5547



1. 학교 연혁

1941.03.26.	감서공립심상소학교 설립 인가
1941.04.25.	개교
1946.06.30.	제1회 졸업식(19명 졸업)
1996.03.01.	동광초등학교로 교명 개칭
2004.12.18.	좋은 책 읽기 교육 도 우수학교 선정
2007.11.15.	도 지정 방과후학교 자율시범학교 선정
2009.03.01.	교육과학기술부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선정
2011.03.01.	도지정 생명환경교육 정책연구학교 선정
2015.02.12.	제70회 졸업식(졸업생 총 5,116명)
2015.03.01.	행복학교 지정 운영

2. 학교 현황

(2014.11.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6(1)	29	30	59	16	11	10	21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김기봉	1945. 12. 31. ~ 1946. 09. 13.
2	김영태	1946. 09. 14. ~ 1947. 12. 10.
3	허종성	1948. 04. 15. ~ 1948. 08. 31.
4	박유봉	1948. 11. 15. ~ 1951. 04. 09.
5	이오영	1951. 04. 10. ~ 1951. 12. 23.
6	윤동옥	1951. 12. 24. ~ 1952. 06. 15.
7	김양수	1952. 09. 15. ~ 1954. 05. 01.
8	이봉양	1954. 04. 29. ~ 1960. 03. 14.
9	최능렬	1960. 03. 14. ~ 1961. 08. 16.
10	배기섭	1961. 08. 16. ~ 1964. 05. 16.
11	최능렬	1964. 05. 15. ~ 1971. 05. 31.
12	최갑규	1971. 06. 01. ~ 1974. 08. 31.
13	김익현	1974. 09. 01. ~ 1986. 08. 31.
14	김문상	1976. 09. 01. ~ 1980. 08. 31.
15	정한조	1980. 09. 01. ~ 1985. 08. 31.
16	김경로	1985. 09. 01. ~ 1987. 08. 31.
17	최평락	1987. 09. 01. ~ 1990. 02. 22.
18	강병륜	1990. 03. 01. ~ 1991. 06. 17.
19	박정희	1991. 06. 18. ~ 1994. 02. 25.
20	강호순	1994. 03. 01. ~ 1996. 08. 31.
21	장정영	1996. 09. 01. ~ 1998. 02. 28.
22	이병화	1998. 03. 01. ~ 1999. 02. 28.
23	윤만수	1999. 09. 01. ~ 2001. 08. 31.
24	김관세	2001. 09. 01. ~ 2003. 02. 28.
25	박길수	2003. 03. 01. ~ 2004. 02. 28.
26	장규창	2004. 03. 01. ~ 2007. 02. 28.
27	조갑규	2007. 03. 01. ~ 2009. 02. 28.
28	백명흠	2009. 03. 01. ~ 2011. 02. 28.
29	여현모	2011. 03. 01. ~ 2014. 02. 28.
30	최순옥	2014. 03. 01. ~ 2015. 02. 28.
31	김설영	2015. 03. 01. ~

방산초등학교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42
☎ 교장실 672-3950, 교무실 673-3917, 행정실 672-4080



1. 학교 연혁

1947. 08. 24.	국민학교 6년제 설립 인가
1947. 11. 06.	방산국민학교 개교
1949. 07. 28.	제1회 졸업증서 수여식(16명)
1980. 04. 31.	병설유치원 개원
1996. 03. 01.	방산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1996. 03. 18.	급식소 개설
2002. 01. 08.	서관 4교실 및 화장실, 조리실 증축 준공
2003. 01. 02.	개방형 자연식 담장 조경공사
2009. 11. 04.	본관 6교실 개축 준공(배수로준공,수도관교체)
2009. 12. 28.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완료
2010. 08. 20.	과학실 현대화 사업 완료
2013. 08. 20.	보건실 현대화 사업 완료
2015. 02. 13.	제67회 졸업식(총 2,704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유치원)	학 생 수				교 직 원 수		
	남	여	계	병설 유치원	교원	일반직·기타	계
7(1)	23	24	47	13	11	8	19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박차욱	1947. 11. 06. ~ 1948. 02. 28.
2	황문도	1948. 03. 01. ~ 1949. 01. 31.
3	배자환	1949. 02. 01. ~ 1950. 07. 31.
4	김정도	1950. 08. 01. ~ 1951. 02. 28.
5	이기윤	1951. 03. 01. ~ 1957. 04. 30.
6	김영효	1957. 05. 01. ~ 1961. 07. 31.
7	최능렬	1961. 08. 01. ~ 1964. 04. 30.
8	류성갑	1964. 05. 01. ~ 1969. 11. 30.
9	김형만	1969. 12. 01. ~ 1974. 08. 31.
10	이판열	1974. 09. 01. ~ 1980. 08. 31.
11	정순동	1980. 09. 01. ~ 1984. 08. 31.
12	우상윤	1984. 09. 01. ~ 1986. 02. 28.
13	한충규	1986. 03. 01. ~ 1992. 02. 28.
14	빈상영	1992. 03. 01. ~ 1995. 02. 28.
15	김종변	1995. 03. 01. ~ 1996. 11. 30.
16	김현호	1996. 12. 01. ~ 1997. 08. 31.
17	이상호	1997. 09. 01. ~ 1999. 08. 31.
18	강의조	1999. 09. 01. ~ 2000. 08. 31.
19	차상건	2000. 09. 01. ~ 2002. 08. 31.
20	최광덕	2002. 09. 01. ~ 2003. 08. 31.
21	이판권	2003. 09. 01. ~ 2005. 08. 31.
22	김상재	2005. 09. 01. ~ 2007. 02. 28.
23	김정룡	2007. 03. 01. ~ 2008. 02. 28.
24	임충규	2008. 03. 01. ~ 2009. 02. 28.
25	박경숙	2009. 03. 01. ~ 2012. 08. 31.
26	양병모	2012. 09. 01. ~ 2015. 02. 25.
27	천현숙	2015. 03. 01. ~

제 2절 중 · 고등학교 현황

1. 고성중학교
 - 1-1. 고성중학교삼산분교장
2. 고성여자중학교
3. 고성동중학교
4. 회화중학교
5. 영천중학교
6. 하일중학교
7. 동해중학교
8. 상리중학교
9. 철성중학교
10. 경남항공고등학교
11. 고성중앙고등학교
12. 고성고등학교
13. 철성고등학교

고 성 중 학 교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17
 ☎ 교장실 673-3923, 교무실 673-3921, 행정실 673-3922



1. 학교 연혁

1951. 08. 31.	고성중학교 설립(12학급 인가)
1980. 03. 01.	개교기념일을 9월 5일로 정함
1984. 12. 26.	본관 24.5실 완공
1995. 03. 20.	체육관(강당) 준공
1999. 09. 01.	삼산중학교 본교 분교장으로 편입
2002. 02. 12.	학교 급식소 준공
2003. 01. 01.	도서관 신축
2009. 02. 20.	영어교과교실 4실 완공
2010. 09. 01.	학교 내 수학·과학 영재학급 인가
2015. 02. 13.	제65회 졸업식(총 12,137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11(1)	76	88	80	244(2)	22	15	37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강 정 대	1951. 08. 31. ~ 1952. 02. 28.
2	최 형 련	1952. 03. 01. ~ 1954. 01. 17.
3	이 인 이	1954. 01. 18. ~ 1956. 06. 08.
4	강 정 기	1956. 06. 09. ~ 1958. 06. 25.
5	장 성 균	1958. 06. 26. ~ 1960. 07. 04.
6	박 정 호	1960. 07. 05. ~ 1967. 07. 14.
7	문 승 갑	1967. 07. 15. ~ 1972. 08. 31.
8	최 창 일	1972. 09. 01. ~ 1974. 08. 31.
9	남 천 우	1974. 09. 01. ~ 1976. 08. 31.
10	강 병 철	1976. 09. 01. ~ 1979. 02. 28.
11	최 용 백	1979. 03. 01. ~ 1981. 08. 31.
12	구 두 갑	1981. 09. 01. ~ 1986. 08. 31.
13	정 진 흥	1986. 09. 01. ~ 1989. 08. 31.
14	박 봉 제	1989. 09. 01. ~ 1991. 08. 31.
15	정 찬 식	1991. 09. 01. ~ 1994. 08. 31.
16	정 철 모	1994. 09. 01. ~ 1995. 08. 31.
17	최 진 호	1995. 09. 01. ~ 1997. 02. 28.
18	하 기 호	1997. 03. 01. ~ 1999. 08. 31.
19	이 장 수	1999. 09. 01. ~ 2000. 02. 28.
20	박 종 업	2002. 03. 01. ~ 2002. 02. 28.
21	강 순 복	2003. 03. 01. ~ 2007. 02. 28.
22	박 동 철	2007. 03. 01. ~ 2008. 08. 31.
23	김 중 호	2008. 09. 01. ~ 2010. 08. 31.
24	이 용 훈	2010. 09. 01. ~ 2014. 02. 28.
25	김 은 숙	2014. 03. 01. ~

고성중학교 삼산분교장

고성군 삼산면 미룡2길 75-21
 ☎ 교장실 672-823, 교무실 672-7003, 행정실 672-7044



1. 학교 연혁

1953. 06. 19.	삼산고등공민학교 설립 인가(설립자: 문창수, 1951.07.21 설립 추진)
1969. 12. 27.	고성중학교삼산분교장 인가
1970. 04. 04.	개교식
1971. 01. 01.	삼산중학교 독립 인가(6학급)
1973. 02. 24.	제1회 졸업식(51명)
1979. 03. 01.	학급 증설(9학급)
1995. 03. 01.	학급 감소(3학급)
1999. 09. 01.	고성중학교삼산분교장 인가
2014. 02. 14.	제42회 졸업식(13명, 총 2,377명)
2014. 03. 03.	신입생 입학식(9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3(·)	12	12	11	35	9	1	10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이정문	1971. 03. 18. ~ 1975. 08. 31.
2	김용규	1975. 09. 01. ~ 1977. 02. 28.
3	정종갑	1977. 03. 01. ~ 1978. 08. 31.
4	정원조	1978. 09. 01. ~ 1980. 02. 28.
5	조용삼	1980. 03. 01. ~ 1982. 02. 28.
6	이기호	1982. 03. 01. ~ 1986. 02. 28.
7	정영자	1986. 03. 01. ~ 1987. 08. 31.
8	정현숙	1987. 09. 01. ~ 1989. 08. 31.
9	김원규	1989. 09. 01. ~ 1992. 08. 31.
10	배필순	1992. 09. 01. ~ 1995. 02. 28.
11	김영진	1995. 03. 01. ~ 1996. 02. 28.
12	정왕백	1996. 03. 01. ~ 1997. 08. 31.
13	조영제	1997. 09. 01. ~ 1999. 08. 31.
14	이장수	1999. 09. 01. ~ 2000. 02. 28.
15	박종업	2000. 03. 01. ~ 2002. 02. 28.
16	강순복	2003. 03. 01. ~ 2007. 02. 28.
17	박동철	2007. 03. 01. ~ 2008. 08. 31.
18	김종호	2008. 09. 01. ~ 2010. 08. 31.
19	이용훈	2010. 09. 01. ~ 2014. 02. 28.
20	김은숙	2014. 03. 01. ~

고 성 여 자 중 학 교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95번길 10-3
 ☎ 교장실 673-3920, 교무실 673-3918, 행정실 673-3919



1. 학교 연혁

1948. 09. 01.	고성농업중학교 부설 여자중학교 설치인가
1949. 09. 06.	고성여자중학교 개교(3학급)
1951. 07. 19.	제1회 졸업식 거행
1964. 12. 03.	12학급 증설 인가
1981. 03. 09.	고성여고 신축 교사로 이전
1990. 03. 01.	학칙변경 21학급(특수학급 1학급)
2004. 08. 18.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 중학교 자매결연
2007. 03. 01.	학칙변경 16학급 인가(특수학급 1학급)
2015. 02. 12.	제65회 졸업식 146명(총 15,445명)
2015. 03. 03.	신입생 입학식(99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14(1)	99	127	150	376(5)	29	17	46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오상호	1949. 09. 05. ~ 1950. 10. 31.
2	방두병	1950. 10. 31. ~ 1952. 02. 27.
3	오원덕	1952. 02. 27. ~ 1955. 12. 30.
4	장성균	1956. 02. 24. ~ 1958. 06. 26.
5	주영혁	1958. 06. 26. ~ 1962. 04. 26.
6	김봉재	1962. 04. 26. ~ 1968. 03. 05.
7	김용원	1968. 03. 15. ~ 1970. 04. 25.
8	정창주	1970. 04. 25. ~ 1973. 03. 03.
9	임금세	1973. 03. 03. ~ 1974. 02. 28.
10	정수문	1974. 03. 01. ~ 1976. 09. 01.
11	김승곤	1976. 09. 01. ~ 1978. 03. 01.
12	이경희	1978. 03. 01. ~ 1980. 03. 01.
13	이정문	1980. 03. 01. ~ 1983. 04. 15.
14	이규태	1983. 05. 04. ~ 1988. 02. 28.
15	김봉돈	1988. 03. 01. ~ 1991. 08. 31.
16	박봉재	1991. 09. 01. ~ 1993. 09. 01.
17	조휴전	1993. 09. 01. ~ 1996. 02. 29.
18	최진용	1996. 03. 01. ~ 1999. 02. 28.
19	박순식	1999. 03. 01. ~ 2000. 02. 29.
20	양문식	2000. 03. 01. ~ 2002. 09. 01.
21	최경이	2002. 09. 01. ~ 2003. 09. 01.
22	김광정	2003. 09. 01. ~ 2007. 02. 28.
23	노의제	2007. 03. 01. ~ 2009. 09. 01.
24	양득춘	2009. 09. 01. ~ 2011. 09. 01.
25	김영수	2011. 09. 01. ~ 2015. 02. 28.
26	박구수	2015. 03. 01. ~

고 성 동 중 학 교

고성군 거류면 당동1길 59-14
 ☎ 교장실 672-1094, 교무실 672-1004, 행정실 672-1095



1. 학교 연혁

1946. 04. 01.	거류고등공민학교학교 설립(학생수 50명)
1947. 09. 01.	거류고등공민학교 설립 인가(학생수 120명)
1950. 07. 10.	6.25 전쟁으로 학업 중지
1952. 05. 25.	거류고등공민학교 재 개교
1954. 05. 31.	고성동중학교 설립 인가(2학급)
1955. 12. 31.	교실 4칸 준공
1963. 02. 02.	6학급 인가
1973. 02. 05.	15학급 인가
1973. 12. 31.	본관 7교실 및 현관 개축
1977. 03. 02.	16학급 인가
2000. 03. 01.	학급 감축(6학급)
2002. 05. 10.	교사 신축 이전(당동리 235번지)
2015. 02. 12.	제61회 졸업식(총 9,460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6(1)	25	35	39	99(6)	15	13	28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이병문	1954. 10. 29. ~ 1956. 09. 27.
2	안정삼	1956. 09. 26. ~ 1958. 06. 25.
3	박희규	1958. 06. 26. ~ 1961. 10. 22.
4	양의선	1961. 10. 23. ~ 1963. 11. 17.
5	정순복	1964. 01. 20. ~ 1968. 04. 19.
6	이종구	1968. 04. 20. ~ 1971. 03. 17.
7	정종달	1971. 03. 18. ~ 1974. 08. 31.
8	김병달	1974. 09. 01. ~ 1976. 08. 31.
9	김태은	1976. 09. 01. ~ 1979. 08. 31.
10	이규태	1979. 09. 01. ~ 1983. 05. 03.
11	문봉수	1983. 05. 04. ~ 1986. 08. 31.
12	강문갑	1986. 09. 01. ~ 1991. 02. 28.
13	한우동	1991. 03. 01. ~ 1994. 02. 28.
14	최진용	1994. 03. 01. ~ 1996. 02. 28.
15	하기호	1996. 03. 01. ~ 1997. 02. 28.
16	최영석	1997. 03. 01. ~ 1998. 08. 31.
17	성재선	1998. 09. 01. ~ 1999. 08. 31.
18	이경문	1999. 09. 01. ~ 2000. 08. 31.
19	김화홍	2000. 09. 01. ~ 2002. 02. 28.
20	김일수	2002. 03. 01. ~ 2004. 02. 28.
21	전평일	2004. 03. 01. ~ 2007. 02. 28.
22	이하준	2007. 03. 01. ~ 2008. 08. 31.
23	이성호	2008. 09. 01. ~ 2010. 02. 28.
24	지인숙	2010. 03. 01. ~ 2012. 02. 28.
25	문운석	2012. 03. 01. ~ 2015. 08. 31.
26	한신자	2015. 09. 01. ~

회 화 중 학 교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서길 42-35
 ☎ 교장실 673-2017, 교무실 673-2138, 행정실 673-2012



1. 학교 연혁

1953. 04. 15.	회화중학교 설립인가 6학급 개교
1973. 02. 06.	학칙변경 21학급 인가
2005. 02. 28.	구만분교장 회화중학교로 통폐합
2009. 03. 01.	학칙변경 일반 7(1)학급 인가
2009. 03.	별관 신축
2009. 08.	농어촌전원학교 선정
2009. 09.	다목적체육관(동백관) 신축
2011.	수학교과실 신축
2012. 09. 11.	Wee Class 개관
2013. 02.	2012. 학교평가 우수학교 선정
	2012. 경남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2012. 학력향상 우수학교 선정
2015. 02. 13.	제61회 졸업식(총 10,495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6(1)	40	31	50	121(5)	17	9	26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박은상	1953. 09. 30. ~ 1956. 01. 04.
2	곽치웅	1956. 01. 05. ~ 1958. 06. 26.
3	조홍경	1958. 07. 24. ~ 1966. 05. 19.
4	강대원	1966. 05. 20. ~ 1968. 05. 20.
5	정호영	1968. 05. 21. ~ 1970. 04. 24.
6	김봉규	1970. 04. 25. ~ 1971. 09. 07.
7	최문수	1971. 09. 08. ~ 1975. 08. 31.
8	이정문	1975. 09. 01. ~ 1980. 02. 28.
9	김정주	1980. 03. 01. ~ 1983. 02. 28.
10	김봉돈	1983. 03. 01. ~ 1988. 02. 28.
11	정응석	1988. 03. 01. ~ 1988. 05. 01.
12	장병식	1988. 07. 01. ~ 1991. 08. 31.
13	조휴전	1991. 09. 01. ~ 1993. 08. 31.
14	최진호	1993. 09. 01. ~ 1995. 08. 31.
15	백석기	1995. 09. 01. ~ 1998. 02. 28.
16	임태룡	1998. 03. 01. ~ 1999. 08. 31.
17	백종흠	1999. 09. 01. ~ 2000. 08. 31.
18	배청자	2000. 09. 01. ~ 2002. 02. 28.
19	우종수	2002. 03. 01. ~ 2004. 02. 29.
20	김우영	2004. 03. 01. ~ 2006. 08. 31.
21	장상수	2006. 09. 01. ~ 2009. 02. 28.
22	천평실	2009. 03. 01. ~ 2011. 02. 28.
23	정기조	2011. 03. 01. ~ 2015. 02. 28.
24	이가환	2015. 03. 01. ~

영 천 중 학 교

고성군 영오면 영회로 511
 ☎ 교장실 672-7004, 교무실 672-9011, 행정실 672-9006



1. 학교 연혁

1961. 04. 25.	영현중학교 영천분교 설립인가
1963. 02. 16.	제1회 졸업 47명
1966. 10. 05.	재일교포 성금으로 본관 3교실 신축
1967. 03. 01.	영천중학교 독립 인가(6학급)
1972. 01. 26.	학칙 변경(12학급 인가)
1973. 12. 31.	동편 별관 3교실 증축
2008. 02. 28.	영현분교 통폐합
2012. 02. 15.	제4(1)학급 인가(특수학급 신설)
2015. 02. 13.	제53회 졸업식(24명 졸업, 누계 5,062명)
2015. 03. 02.	신입생 입학식(16명)

2. 학교 현황

(2015.2.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4(1)	16	11	28	55(3)	10	8	18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오명룡	1967. 07. 15. ~ 1970. 04. 24.
2	박은상	1970. 04. 25. ~ 1976. 02. 29.
3	황학우	1976. 03. 01. ~ 1979. 08. 31.
4	김태은	1976. 09. 01. ~ 1982. 05. 31.
5	이무상	1982. 06. 01. ~ 1984. 02. 28.
6	배옥균	1984. 03. 01. ~ 1987. 03. 06.
7	강현문	1987. 03. 07. ~ 1988. 08. 31.
8	김종태	1988. 09. 01. ~ 1992. 02. 28.
9	김달수	1992. 03. 01. ~ 1994. 02. 28.
10	황의호	1994. 03. 01. ~ 1995. 08. 31.
11	김상배	1995. 09. 01. ~ 1997. 08. 31.
12	이종한	1997. 09. 01. ~ 1999. 02. 28.
13	이기원	1999. 03. 01. ~ 1999. 08. 31.
14	화영복	1999. 09. 01. ~ 2001. 02. 28.
15	이승환	2001. 03. 01. ~ 2002. 02. 28.
16	백경기	2002. 03. 01. ~ 2003. 08. 31.
17	하종복	2003. 09. 01. ~ 2006. 08. 31.
18	송봉기	2006. 09. 01. ~ 2008. 02. 29.
19	하을태	2008. 03. 01. ~ 2010. 02. 28.
20	강맹구	2010. 03. 01. ~ 2012. 02. 28.
21	김수권	2011. 03. 01. ~ 2015. 05. 26.
22	하용오	2015. 05. 27 ~

하 일 중 학 교

경남 고성군 공룡로 987
교장실 673-7913, 교무실 673-7912, 행정실 673-7911



1. 학교 연혁

1967. 09. 08.	고성중학교 하일분교 설립인가(3학급)
1968. 03. 09.	개교(3학급)
1970. 03. 01.	하일중학교 독립인가(3년제 학급)
1973. 03. 01.	6학급 인가
1976. 03. 01.	9학급 인가
1976. 12. 31.	교사 후편 부지 972평 매입
1986. 12. 31.	경상남도저축우수학교 도지사 표창
1996. 03. 01.	3학급 인가
2010. 03. 01.	특수학급 인가(1학급)
2015. 02. 12.	제45회 졸업 10명(총 3,642명)
2015. 03. 02.	신입생 입학식(3명)

2. 학교 현황

(2014.11.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3(1)	3	7	5	15(2)	10	5	15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김태곤	1970. 04. 02. ~ 1971. 07. 14.
2	이무생	1971. 07. 15. ~ 1973. 06. 19.
3	김태은	1973. 06. 20. ~ 1975. 08. 31.
4	김수영	1975. 09. 01. ~ 1978. 08. 31.
5	정수상	1978. 09. 01. ~ 1980. 08. 19.
6	진동조	1980. 08. 20. ~ 1982. 02. 29.
7	류재식	1982. 03. 01. ~ 1986. 02. 28.
8	이엄수	1986. 03. 01. ~ 1988. 08. 31.
9	이현	1988. 09. 01. ~ 1990. 08. 31.
10	하연걸	1990. 09. 01. ~ 1992. 02. 28.
11	박성대	1992. 03. 01. ~ 1993. 08. 31.
12	박삼대	1993. 09. 01. ~ 1996. 02. 28.
13	박순식	1996. 03. 01. ~ 1999. 02. 28.
14	박근길	1999. 03. 01. ~ 2000. 02. 29.
15	임수섭	2000. 03. 01. ~ 2001. 08. 31.
16	최정부	2001. 09. 01. ~ 2003. 02. 28.
17	권도한	2003. 03. 01. ~ 2004. 08. 31.
18	윤중효	2004. 09. 01. ~ 2006. 02. 28.
19	안필자	2006. 03. 01. ~ 2008. 02. 29.
20	권진현	2008. 03. 01. ~ 2009. 08. 31.
21	김영수	2009. 09. 01. ~ 2011. 08. 31.
22	이규호	2011. 09. 01. ~ 2015. 02. 28.
23	강성동	2015. 03. 01. ~

동 해 중 학 교

고성군 동해면 동해로 1613
 ☎ 교장실 672-5484, 교무실 672-5200, 행정실 672-5019



1. 학교 연혁

1970. 12. 31.	고성동중학교 동해분교 인가
1972. 03. 22.	신축 낙성식
1971. 12. 27.	동해중학교 승격인가(6학급)
1972. 03. 01.	동해중학교 승격
1972. 03. 22.	제1회 개교기념일 행사
1983. 02. 23.	학칙 변경(9학급)
1986. 02. 24.	학칙 변경(6학급)
1997. 02. 28.	학칙 변경(3학급)
2015. 02. 12.	제42회 졸업식 12명(총 2,924명)
2015. 03. 02.	신입생 입학식(6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3(·)	6	5	11	22	10	6	16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하용태	1971. 03. 01. ~ 1973. 06. 30.
2	이종호	1973. 07. 01. ~ 1975. 08. 31.
3	김충곤	1975. 09. 01. ~ 1979. 08. 31.
4	김병옥	1979. 09. 01. ~ 1980. 08. 31.
5	김종소	1980. 09. 01. ~ 1981. 08. 31.
6	한우동	1982. 09. 01. ~ 1989. 08. 31.
7	강진도	1987. 09. 01. ~ 1990. 03. 25.
8	이흥기	1990. 03. 26. ~ 1991. 08. 31.
9	한우동	1986. 03. 01. ~ 1988. 02. 28.
10	강진도	1988. 03. 01. ~ 1991. 02. 28.
11	이흥기	1991. 03. 01. ~ 1994. 02. 28.
12	박성규	1991. 09. 01. ~ 1992. 08. 31.
13	여형식	1992. 09. 01. ~ 1994. 03. 28.
14	이효수	1994. 07. 01. ~ 1996. 02. 28.
15	강정수	1996. 03. 01. ~ 1998. 06. 30.
16	김진기	1998. 07. 01. ~ 1999. 08. 31.
17	조용진	2000. 07. 01. ~ 2000. 08. 31.
18	허욱	2001. 04. 01. ~ 2002. 02. 28.
19	신영기	2003. 10. 01. ~ 2005. 02. 28.
20	김금희	2005. 03. 01. ~ 2006. 08. 31.
21	배성욱	2006. 09. 01. ~ 2008. 08. 31.
22	박기순	2008. 09. 01. ~ 2009. 08. 31.
23	주영태	2009. 09. 01. ~ 2011. 08. 31.
23	김효형	2011. 09. 01. ~ 2015. 08. 31.
24	이영미	2015. 09. 01. ~

상 리 중 학 교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7길 64
 ☎ 교장실 672-0288, 교무실 672-8280, 행정실 672-8024



1. 학교 연혁

1963. 01. 13.	고성중학교 상리분교 인가
1966. 01. 19.	신축교사 3교실 낙성
1967. 09. 18.	상리중학교 개교(독립 인가 3학급)
1969. 11. 17.	6학급으로 학칙 변경 인가
1981. 03. 01.	학칙 변경(9학급)
1990. 03. 01.	학칙 변경(3학급)
2003. 08. 23.	운동장 배수 시설 및 보수
2004. 06. 16.	테니스장 준공
2015. 02. 12.	제50회 졸업식 4명(총 3,392명)
2015. 03. 02.	신입생 입학식(11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3(·)	7	4	7	18	9	5	14

3. 역대 교장

대	성 명	기 간
1	이 엄 수 (직무대리)	1968. 03. 01. ~ 1968. 03. 14.
2	안 삼 용	1968. 03. 15. ~ 1968. 05. 31.
3	이 엄 수 (직무대리)	1968. 06. 01. ~ 1969. 03. 31.
4	김 정 주	1969. 04. 01. ~ 1970. 09. 01.
5	황 순 배	1970. 09. 02. ~ 1973. 06. 19.
6	김 동 질	1973. 06. 20. ~ 1977. 11. 14.
7	강 신 태	1977. 11. 15. ~ 1983. 02. 28.
8	김 각	1983. 03. 01. ~ 1986. 02. 28.
9	허 현 도	1986. 03. 01. ~ 1987. 08. 31.
10	이 종 규	1987. 09. 01. ~ 1989. 02. 28.
11	차 윤 석	1989. 03. 01. ~ 1990. 02. 28.
12	주 임 숙	1990. 03. 01. ~ 1991. 02. 28.
13	최 진 호	1991. 03. 01. ~ 1993. 08. 31.
14	옥 남 석	1993. 09. 01. ~ 1995. 02. 28.
15	최 진 보	1995. 03. 01. ~ 1997. 02. 28.
16	김 문 일	1997. 03. 01. ~ 1998. 02. 28.
17	최 한 기	1998. 03. 01. ~ 1998. 08. 31.
18	박 광 제	1998. 09. 01. ~ 1999. 08. 31.
19	김 남 영	1999. 09. 01. ~ 2000. 02. 29.
20	김 찬 두	2000. 03. 01. ~ 2001. 08. 31.
21	김 동 환	2001. 09. 01. ~ 2006. 02. 28.
22	김 명 재	2006. 03. 01. ~ 2009. 02. 28.
23	오 용 식	2009. 03. 01. ~ 2013. 02. 28.
24	이 인 구	2013. 03. 01. ~ 2014. 08. 31.
25	정 호 군	2014. 09. 01. ~

철 성 중 학 교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36
 ☎ 교장실 673-3960, 교무실 673-3924, 행정실 673-3925



1. 학교 연혁

1964. 01. 08.	학교법인 재성학원 설립 인가 설립자 김재익 초대이사장 취임
1964. 01. 08.	철성중학교 설립 인가
1964. 03. 05.	제1회 입학식(남80명, 여40명)
1989. 02. 25.	학칙 변경 인가(9학급)
1996. 04. 01.	학교법인 남영학원 설립 인가 박태이 초대이사장 취임
2012. 01. 01.	제5대 남영 박인현 이사장 취임
2013. 01. 23.	경남교육청 주관 학교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2015. 02. 12.	제49회 졸업식(총 7,415명)
2015. 03. 02.	제52회 신입생 입학식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9(·)	50	85	83	218	21	10	31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김한조	1964. 05. 15. ~ 1969. 06. 16.
직무대리	조원홍	1969. 10. 01. ~ 1971. 01. 12.
2	김한조	1971. 01. 13. ~ 1978. 12. 31.
3	권춘섭	1979. 01. 10. ~ 1989. 08. 31.
직무대리	김정효	1989. 09. 01. ~ 1992. 02. 28.
4	권춘섭	1992. 03. 01. ~ 1993. 02. 07.
직무대리	여태민	1993. 03. 01. ~ 1994. 02. 28.
5	여태민	1994. 03. 01. ~ 1996. 04. 06.
6	배종상	1996. 04. 12. ~ 1999. 08. 31.
7	정채화	1999. 09. 01. ~ 2000. 08. 31.
8	안인구	2000. 09. 01. ~ 2004. 02. 29.
9	강호상	2004. 03. 01. ~ 2005. 11. 22.
10	심재환	2005. 11. 23. ~ 2007. 02. 28.
11	김학규	2007. 03. 01. ~ 2009. 08. 31.
12	이성근	2009. 09. 01. ~ 2013. 02. 28.
13	박태은	2013. 03. 01. ~

경 남 항 공 고 등 학 교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27
 ☎ 교장실 673-4561, 교무실 673-4563, 행정실 673-4564



1. 학교 연혁

1935. 03. 30.	고성공립농업 보습학교 설립인가
1935. 04. 26.	고성공립농업 보습학교 개교
1951. 08. 31.	고성농업고등학교로 개칭(3년제 6학급)
1997. 03. 01.	경남항공고등학교 교명 변경
1997. 07. 16.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2008. 03. 01.	정부부처(특허청)에 의한 특성화고 지정
2009. 03. 01.	학과개편(항공기계과, 항공특수설비과, 항공전자발명과)
2014. 03. 01.	학과개편(항공기계과, 항공기체과, 항공전기전자과)
2015. 02. 11.	제76회 졸업(졸업생 159명, 총 8,771명)
2015. 03. 02.	신입생 입학식(147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18(·)	147	140	147	434	41	19	60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김봉일	1945. 11. 28. ~ 1949. 08. 31.
2	강정대	1949. 09. 01. ~ 1952. 02. 27.
3	최형련	1952. 03. 01. ~ 1954. 01. 17.
4	이인이	1954. 01. 18. ~ 1956. 06. 08.
5	장정기	1956. 06. 09. ~ 1958. 06. 25.
6	장성균	1958. 06. 26. ~ 1960. 07. 04.
7	박정호	1960. 07. 05. ~ 1967. 07. 14.
8	문승갑	1967. 07. 15. ~ 1972. 08. 31.
9	정영호	1972. 09. 01. ~ 1974. 08. 31.
10	김병옥	1974. 09. 01. ~ 1976. 08. 31.
11	이용우	1976. 09. 01. ~ 1981. 02. 28.
12	김호룡	1981. 03. 01. ~ 1985. 08. 31.
13	이기한	1985. 09. 01. ~ 1989. 02. 28.
14	김호용	1989. 03. 01. ~ 1991. 08. 31.
15	심응섭	1991. 09. 01. ~ 1994. 08. 31.
16	천영운	1994. 09. 01. ~ 1999. 02. 28.
17	이종한	1999. 03. 01. ~ 1999. 08. 31.
18	백용주	1999. 09. 01. ~ 2002. 08. 31.
19	김광윤	2002. 09. 01. ~ 2003. 08. 31.
20	이장우	2003. 09. 01. ~ 2006. 02. 28.
21	허성락	2006. 03. 01. ~ 2009. 08. 31.
22	송경호	2009. 09. 01. ~ 2013. 08. 31.
23	김병기	2013. 09. 01. ~ 2015. 08. 31.
24	김종관	2015. 09. 01. ~

고 성 중 앙 고 등 학 교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45
☎ 교장실 674-7310, 교무실 674-7311~3, 행정실 674-7315



1. 학교 연혁

1955. 06. 20.	고성여자고등학교 설치인가(3년제 3학급)
1974. 10. 30.	3년제 15학급 설치 인가
1980. 03. 29.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24번지로 교사 이전
1980. 10. 24.	3년제 21학급 설치 인가
2000. 07. 15.	학칙 변경(18학급 인가)
2001. 02. 23.	강당(송학관) 신축
2002. 03. 01.	고성중앙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2004. 11. 29.	도서관(324석) 신축
2006. 05. 03.	농산어촌 우수고 지정
2007. 09. 01.	송학재 1관 개관 및 입소
2008. 09. 01.	교육과학기술부 기숙형공립고 지정
2010. 02. 24.	송학역사관 개관
2010. 03. 01.	송학재 2관 개관 및 입소
2015. 02. 12.	제58회 졸업식 165명(총 11,750명)
2015. 03. 02.	신입생 입학식(166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18(1)	166	165	165	496(9)	38	18	56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오상호	1949. 09. 05. ~ 1950. 10. 30.
2	방두병	1950. 10. 31. ~ 1952. 02. 27.
3	오원득	1952. 02. 28. ~ 1955. 02. 27.
4	주영혁	1955. 02. 28. ~ 1962. 03. 27.
5	박정호	1962. 03. 28. ~ 1962. 06. 07.
6	김봉재	1962. 06. 08. ~ 1968. 03. 14.
7	김용원	1968. 03. 15. ~ 1973. 03. 02.
8	임금세	1973. 03. 03. ~ 1974. 02. 28.
9	정수문	1974. 03. 01. ~ 1975. 02. 28.
10	홍순관	1975. 03. 01. ~ 1977. 08. 31.
11	김학곤	1977. 09. 01. ~ 1978. 02. 28.
12	김승곤	1978. 03. 01. ~ 1980. 02. 28.
13	이병욱	1980. 03. 01. ~ 1982. 02. 28.
14	정수상	1982. 03. 01. ~ 1984. 02. 28.
15	문철수	1984. 03. 01. ~ 1989. 02. 28.
16	김병달	1989. 03. 01. ~ 1992. 02. 28.
17	안철수	1992. 03. 01. ~ 1995. 02. 28.
18	이순희	1995. 03. 01. ~ 1997. 02. 28.
19	장영재	1997. 03. 01. ~ 1998. 02. 28.
20	이영석	1998. 03. 01. ~ 1999. 08. 30.
21	정차근	1999. 09. 01. ~ 2002. 02. 28.
22	김화홍	2002. 03. 01. ~ 2004. 02. 29.
23	신항춘	2004. 03. 01. ~ 2007. 02. 28.
24	김영표	2007. 03. 01. ~ 2011. 02. 28.
25	이상조	2011. 03. 01. ~ 2014. 02. 28.
26	홍재욱	2014. 03. 01. ~

고 성 고 등 학 교

고성군 회화면 배둔서길 42-5
 ☎ 교장실 673-2176, 교무실 673-7892~7, 행정실 673-7891



1. 학교 연혁

1966. 01. 19.	학교법인 고성학원 설립인가, 초대이사장 최학림선생 취임
1966. 03. 23.	고성종합고등학교 설립인가 (인문과3, 토목과3, 가정과3, 계 9학급)
1966. 04. 11.	개교식
1969. 01. 10.	제1회 졸업식(157명)
1996. 03. 01.	학칙변경(보통과15, 정보처리과6, 계 21학급)
1997. 05. 20.	농어촌거점 육성학교 지정
1998. 03. 01.	고성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2002. 09. 19.	학칙변경(보통과15, 정보처리과3, 전자상거래과3, 계 21학급)
2008. 09. 25.	기숙사 입지관 준공
2009. 10. 19.	교육과학기술부 기숙형고등학교(자율학교) 선정
2011. 02. 28.	기숙사 증축 자립관 준공
2011. 12. 25.	제14대 이사장 허원태선생 취임
2013. 07. 12.	학과개편(1학년 일반계 6학급으로 조정)
2015. 02. 12.	제47회 졸업식(총 12,376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19(·)	164	160	183	507	39	17	58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이만수	1966. 04. 11. ~ 1971. 08. 31.
2	최대림	1971. 09. 01. ~ 1974. 08. 31.
3	이만수	1975. 03. 07. ~ 1976. 11. 02.
4	김홍수	1976. 11. 23. ~ 1980. 10. 30.
5	최병인	1981. 02. 13. ~ 1989. 08. 18.
6	최을림	1989. 08. 19. ~ 1994. 02. 28.
7	한하균	1994. 03. 01. ~ 1999. 02. 28.
8	한홍조	1999. 09. 01. ~ 2003. 02. 28.
9	김홍근	2003. 03. 01. ~ 2007. 08. 31.
10	이화성	2007. 09. 01. ~ 2010. 08. 31.
11	정귀화	2011. 03. 01. ~ 2014. 08. 31.
12	윤홍렬	2014. 09. 01. ~

철 성 고 등 학 교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2번길
 ☎ 교장실 674-7606, 교무실 674-7603~5, 행정실 674-7601



1. 학교 연혁

1964. 01. 08.	학교법인 재성학원 설립 인가 설립자 김재익 선생 초대이사장 취임
1966. 03. 15.	철성고등학교 인가
1967. 03. 05.	개교(3학급), 초대교장 김한조 선생 취임
1980. 10. 28.	학칙변경, 학급 증설 인가(21학급)
1994. 11. 03.	구관 목조건물 철거 및 운동장 확장
2002. 03. 18.	강당(해웅관) 준공
2010. 03. 23.	기숙사(철성의숙) 준공
2011. 10. 13.	철성고등학교 축구부 창단
2013. 08. 16.	제8대 김동배 이사장 취임
2013. 10. 02.	축구부 기숙사 준공
2015. 02. 13.	제46회 졸업식(총 8,420명)

2. 학교 현황

(2015.12.현재)

학급수 (특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원	일반직·기타	계
12(·)	110	112	107	329	28	11	39

3. 역대 교장

대	성명	기간
1	김한조	1967. 05. 18. ~ 1969. 06. 06.
2	조원홍	1969. 10. 01. ~ 1970. 07. 10.
3	김한조	1971. 01. 15. ~ 1978. 12. 31.
4	권춘섭	1980. 10. 13. ~ 1989. 08. 31.
5	이봉기	1989. 09. 01. ~ 1993. 08. 31.
6	주영태	1993. 09. 01. ~ 1996. 12. 01.
7	임상규	1997. 03. 01. ~ 2001. 08. 31.
8	이정석	2001. 09. 01. ~ 2002. 08. 31.
9	이판세	2002. 09. 01. ~ 2007. 08. 31.
10	조유제	2007. 09. 01. ~ 2009. 08. 31.
11	이권찬	2009. 09. 01. ~ 2014. 02. 28.
12	신봉기	2014. 03. 01. ~

IV. 폐지 학교 현황

순	교명	소재지	개교일	폐교일	졸업 생수	통합 학교	비고
1	광일초	거류면 송산리 1216	1936. 05.15.	1999. 03.01.	2,874	대성초	고성유치원
2	대동초	동해면 용정리 438	1964. 11.26.	1999. 03.01.	826	동해초	동해청소년학 교
3	대안초	고성읍 대독리 705	1947. 04.03.	1993. 03.01.	1,453	고성초	대화항공정밀
4	대장초	동해면 장좌리 761	1937. 06.07.	1999. 09.01.	1,902	거류초	대부
5	덕명초	하이면 덕명리 190	1939. 05.01.	1993. 03.01.	1,096	하이초	매각
6	동창초	회화면 어신리 937	1937. 05.18.	1998. 09.01.	1,523	회화초	모시꽃예술 체험학교
7	병산분	삼산면 병산리 143-2	1970. 03.13.	1996. 03.01.	201	삼곡초	한울 생명의집
8	봉발초	영현면 봉발리 242	1958. 04.01.	1993. 03.01.	989	영현초	매각
9	봉현초	하이면 봉현리 250-2	1963. 03.18.	1999. 09.01.	1,024	하이초	매각
10	삼곡초	삼산면 판곡리 531	1940. 06.11.	1991. 03.01.	1,256	대성초	매각
11	삼덕초	회화면 삼덕리 1397-3	1971. 03.01.	1993. 03.01.	1,195	회화초	황토 염색학교
12	삼락초	마암면 삼락리 179	1946. 09.06.	1999. 03.01.	2,389	고성초	교육시설
13	삼오초	삼산면 장치리 328	1945. 05.27.	1999. 09.01.	2,041	삼산초	사랑나눔 공동체
14	상동초	상리면 망림리 530	1945. 05.10.	1999. 09.01.	2,654	상리초	연수시설
15	송계초	대가면 송계리 485	1920. 11.01.	1997. 03.01.	3,041	대흥초	매각

순	교명	소재지	개교일	폐교일	졸업 생수	통합 학교	비고
16	수태초	하일면 용태리 505	1947. 01.24.	1995. 03.01.	1,568	하일초	매각
17	송의원분	거류면 감서리	1963. 05.07.	1991. 03.01.		동광초	매각
18	신촌초	상리면 고봉리 526	1957. 09.20.	1987. 03.01.	736	상리초	매각
19	양지초	대가면 연지리 279	1969. 04.07.	1996. 03.01.	849	고성초	공공 용지
20	영동초	영오면 영대리 705	1958. 04.01.	1998. 09.01.	1,356	영오초	대부
21	월흥초	하이면 월흥리 1417-8	1956. 12.01.	1999. 03.01.	1,234	하이초	문화 시설
22	자란분	하일면 송천리 97-6	1969. 10.27.	1992. 03.01.	71	하일초	매각
23	종생분	대가면 갈천리 696-1	1969. 03.01.	1994. 04.01.	91	송계초	매각
24	좌련초	개천면 좌련리 641	1963. 03.08.	1998. 03.01.	511	개천초	보리수동 산
25	청광초	개천면 청광리 521-4	1940. 04.01.	1993. 03.01.	1,761	개천초	매각
26	포교분	삼산면 두포리 1364	1966. 03.01.	1998. 09.01.	410	삼산초	매각
27	와도분	삼산면 두포리 1572	1962. 02.05.	2003. 06.12.		삼산초	매각
28	화당분	거류면 화당리 399-1	1972. 03.01.	1995. 03.01.		거류초	매각
29	장춘초	하일면 춘암리 401-2	1940. 08.15	2012. 03.01.	2,005	하일초	문화 시설
30	구만중	구만면 효락리 590-3	1976. 03.06.	2005. 03.01.	1,540	회화중	수로요
31	영현중	영현면 봉림리 44-9	1955. 06.20.	2008. 03.01.	4,038	영천중	농촌유학 센터
32	영진고	영오면 오서리 1611	1974. 12.07.	2001. 03.01.	3,061		매각

참고 문헌

1.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고성교육 2014』, 유승인쇄출판, 2014.
2. 경상남도고성교육청, 『고성교육사』, 동아출판인쇄사, 2005.
3. 경상남도고성교육청, 『고성폐지학교지』, 창원종합인인쇄, 2002.
4. 경상남도교육청, 『경남교육 60년사』, 문성사, 2007.
5. 고성군지편찬위원회, 『고성군지』, 경남인쇄공업협동조합, 1995.
6. 윤완, 『한국교육사의 이해』, 원미사, 2002.
7. 피정만, 『한국교육사 이해』, 도서출판 하우, 2010.